

2021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공동 하계학술대회

“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위기와 기회 ”

일시: 2021년 7월 16일(금) 13:00~17:00

진행방식: 화상 학술대회 (Zoom)

URL: <https://bufs.zoom.us/j/83918170077?pwd=M3NKQnFld2VJbm4yNjRqRVFYalhMZz09>

- 
- 세션 1: 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
  - 세션 2: 라틴아메리카 경제
  - 세션 3: 라틴아메리카 생태와 문화
  - 세션 4: 라틴아메리카 국토 도시 개발 협력
  - 세션 5: 대학원 세션

참가 URL: <https://bufs.zoom.us/j/83918170077?pwd=M3NKQnFld2VJbm4yNjRqRVFYa1hMZz09>

| 13:20~14:50 | 1부                                                                                                                                                                                                                                                                                                                                                                                                                                                                                                                                                                                                                                                                       |
|-------------|--------------------------------------------------------------------------------------------------------------------------------------------------------------------------------------------------------------------------------------------------------------------------------------------------------------------------------------------------------------------------------------------------------------------------------------------------------------------------------------------------------------------------------------------------------------------------------------------------------------------------------------------------------------------------|
| 세션1         | <p data-bbox="703 871 1080 904"><u>“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 세션”</u></p> <p data-bbox="389 960 488 994">[좌 장]</p> <ul data-bbox="403 1005 604 1039" style="list-style-type: none"><li>• 곽재성(경희대)</li></ul> <p data-bbox="389 1095 488 1128">[발 표]</p> <ul data-bbox="403 1140 1426 1352" style="list-style-type: none"><li>• 임수진(대구가톨릭대) “2019년 칠레의 시민 저항과 헌법 제정”</li><li>• 임태균(서울대) “비폭력 반정부 시위의 성공과 실패: 니카라과와 볼리비아 사례를 통하여”</li><li>• 정호윤(부경대) “아래로부터의 민족건설: 2013-2014 브라질의 반(反) 메가스포르츠 이벤트 시위와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li></ul> <p data-bbox="389 1408 488 1442">[토 론]</p> <ul data-bbox="403 1453 1031 1487" style="list-style-type: none"><li>• 강경희(제주대), 이순주(울산대), 이미정(한국외대),</li></ul> |

참가 URL: <https://bufs.zoom.us/j/83918170077?pwd=M3NKQnFld2VJbm4yNjRqRVFYa1hMZz09>

| 15:00~16:30 | 2부                                                                                                                                                                                                                                                                                                                                                                                                                                                                                                                                                                                                                                      |
|-------------|-----------------------------------------------------------------------------------------------------------------------------------------------------------------------------------------------------------------------------------------------------------------------------------------------------------------------------------------------------------------------------------------------------------------------------------------------------------------------------------------------------------------------------------------------------------------------------------------------------------------------------------------|
| 세션3         | <p style="text-align: center;"><u>“라틴아메리카 생태와 문화 세션”</u></p> <p>[좌 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구호(한국외대)</li> </ul> <p>[발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희문(한국외대), “인간중심적 환경헌법에서 생태중심적 환경헌법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기여”</li> <li>• 조영현(부산외대), “생태 위기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두 개의 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Laudato Si’와 ‘Buen Vivir’ 담론 비교연구”</li> <li>• 박정원(경희대) “‘실패의 정치학’: 라틴아메리카니즘(Latinamericanism)의 현재와 영화 &lt;승리호&gt;”</li> <li>• 조혜진(고려대) “후아나 알바레스의 &lt;Saving the World&gt;에 나타난 감염병과 몸의 식민성”</li> </ul> <p>[토 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경미(부산외대), 이태혁(부산외대), 김선영(서울대), 이경민(조선대)</li> </ul> |

인간중심적 환경헌법에서 생태중심적 환경헌법으로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기여<sup>1)</sup>  
From Anthropocentric Environmental Constitutionalism to Ecocentric  
Environmental Constitutionalism : contribution of Latin American countries  
조희문(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목차

- I. 서론
- II. 2008년 에콰도르 생태중심 환경헌법
- III. 라틴아메리카 법원들의 생태중심주의적 판례
  - 1. 콜롬비아 법원의 생태중심적 판결
  - 2. 에콰도르 법원의 생태중심적 판결
  - 3. 아르헨티나 법원의 생태중심적 판결
- IV. 자연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소송제도
- 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고 있고 먹이사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명체는 이러한 먹이사슬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이러한 도태현상은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먹이사슬에 변화가 있어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간은 특이한 존재이다. 지능의 발달로 먹이사슬에서 수직상승하여 최상위층에 자리잡게 되었지만 실제로 지구 생명체의 먹이사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사실, 인간은 지구 생명체의 먹이사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다른 생명체와는 구별되는 지구의 통치자로 임명했다. 지구는 인간의 식민지이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은 지구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식했으며, 지구역사를 인간중심적 역사(anthropocentric history)로 분석해왔다. 전쟁과 정복으로 점철된 국제사회가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지구상의 공통관심사를 논의한 것은 1백년에 불과하다.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독립주권국가를 표시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한다. 헌법은 명시적일 수도 묵시적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명문헌법을 제정해놓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존재를 통해 국가의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헌법은 통상적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인간을 지구의 중심에 놓고 설계한 것이다. 즉,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인간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해

1) 동 발표문은 학술대회의 발표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상당부분을 출처, 조희문(2020). 중남미에서의 자연권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참고 작성하면서 아직 최종논문으로 다듬지 못했기 때문에 인용 또는 재인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조만간 논문으로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니 최종 발표문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는 인간중심의 환경시스템인 것이다.

인간중심 환경법(anthropocentric environmental law)은 헌법이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가에 따라서 그 법적 성격이 정해진다. 인간중심헌법(anthropocentric constitution)이면 환경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 규정되고, 생태중심헌법(ecocentric constitution)이면 인간은 환경의 한 구성원으로 규정된다. 자연스럽게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인간중심헌법은 인간중심환경헌법이 되고, 생태중심헌법은 생태중심환경헌법이 된다.

헌법에 환경보호를 규정한 대부분의 헌법은 인간중심 환경헌법이다. 그러나 생태중심 환경헌법도 존재한다. 2008년 에콰도르 헌법이 대표적이다. 이런 헌법은 인간을 지구환경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자연을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체로 규정하여 이에 상당하는 법적 능력을 명시해 놓고 있다. 생태중심 환경헌법을 제정한 나라는 에콰도르가 유일하지만 환경법제를 인간중심에서 생태중심으로 옮기는 노력은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언하건데 인간과 자연의 법률적 관계는 인간중심에서 생태중심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코로나사태는 이러한 법률패러다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자연을 재산으로 간주하여 인간을 위해 사용된다는 전통적인 환경법제는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중심적 환경법제로 전환될 것이다.

동 연구는 각국의 헌법이 인간중심 환경헌법에서 생태중심 환경헌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전환의 동인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이렇게 생태중심 환경법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추진방향을 분석하여,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환경법제의 방향성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려주려는 것이다. 환경법제의 방향성이 변화하는 것은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하게 달리 보려는 인간사고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환경법제의 생태중심적 접근법을 설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동 연구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2008년 에콰도르헌법에 규정된 자연권의 내용을 분석하여 생태중심 환경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환경헌법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법원들의 판례를 분석하여 James R. May & Erin Daly(2019)가 주장한 법원의 판례를 통한 환경헌법주의(environmental constitutionalism)의 실천을 확인해보려고 한다. 셋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헌법상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소송인 amparo소송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송이 개인소송(individual action)뿐만 아니라 집단소송(collective action)으로 발전되면서 자연권관련 환경소송에 유효한 헌법소송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생태중심적 환경헌법을 도입하고 있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고 있고, 유효한 헌법소송을 통해 현실적으로 자연권행사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 II. 2008년 에콰도르 생태중심 환경헌법

자연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스스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론적 주장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특히, 1972년 Christopher D. Stone교수가 『should trees have standing?』에서 자연에게 소송당사자능력을 부여하자는 법논리적 분석을 펼친 이후 자연권(rights of nature)에 관한 이론적 주장뿐만 아니라 현실에 구현하려는 환경행동가들

의 노력도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행동들은 인간중심적 헌법질서 내에서 제한된 형태로 발전되었을 뿐, 헌법의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헌법적 제한을 단번에 제거한 사건이 바로 2008년 에콰도르헌법이다. 동 헌법은 인간중심 환경헌법에서 생태중심 환경헌법으로 전환한 최초의 헌법이라는 중요성과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들의 노력과 태도, 그리고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어떠한 식으로 재정립하는가에 따라서 에콰도르헌법은 생태중심 환경헌법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에콰도르가 왜 생태중심환경헌법으로 전환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이유는 동 논문의 연구대상은 아니다. 다만, Méndez(2013:77)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는 에콰도르헌법이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이유는 서양의 인간중심적 세계관과의 단절을 시도한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는 생태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있던 에콰도르의 전통사상을 회복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재산의 사회적 기능(función social de la propiedad)을 넘어서 재산과 사업의 환경적 기능(función ambiental de la propiedad, incluyendo de este modo una nueva función y limitación que se aplica, tanto sobre la propiedad como sobre la iniciativa privada)까지 추가함으로써 생태중심 환경헌법의 토대를 세웠다는 것이다. Méndez의 주장은 에콰도르헌법에 관련된 주장이지만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한계에 달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 에콰도르는 인구의 71.9%가 메스티조, 백인이 6.1% 그리고 7.0%가 토착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인구의 절대다수가 인디오 원주민들의 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마존을 공유하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기 때문에 생태중심 세계관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는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빈부격차의 증가, 사회적 소외층의 확대 및 환경 파괴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중남미에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좌파정부들이 줄줄이 들어설 때였다. 특히, 에콰도르의 코헤아정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정부와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정부는 신헌법주의(neo-constitucionalismo)로 표방되는 라틴아메리카형 사회주의를 도입했다. 신헌법주의의 공통점은 참여적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참여기회를 대폭 늘렸다는 점,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의 확대를 통해 지역적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 3세대 인권과 집단적 권리(derechos colectivos)를 도입했다는 점, 그리고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función social de la propiedad)을 강조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사유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시했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economía social)를 도입하여 공공경제(economía pública)와 민간경제(economía privada)와 함께 경제의 다양성을 인정했으며, 유럽중심(Eurocentrism)의 세계관인 인간중심 세계관(anthropocentric worldview)에서 탈피하여 생태중심적 세계관(ecocentric worldview)으로 대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러 혁신적인 사회구조의 정치적 변화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생태중심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다. 그렇다면 환경보호를 놓고 볼 때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기존 헌법이나 환경법은 자연보호를 인간의 관점에서 설계했다. 환경범죄를 열거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폐수를 방류하여 강물을 오염시켰다면 그 오염행위에 대해 오염기업을 처벌하는 방식이다. 오염기업은 관계자의 처벌과 벌금을 부과 받고, 오염된 강물은 정화작업을 통해서 다시 정상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강물오염으로 발생하는 인간피해에 대한 배상이지 강물이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 부과된 벌금이 오염된 강물의 정화에 사용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인 강물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생태중심환경법은 이와 다

른 관점에서 출발한다. 강물이 기업의 폐수방류로 오염되었다면 강물이 법의 주체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강물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사용하게 되지만 소송의 주체는 강물이고 소송비용을 제한 배상금은 강물이 소유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한국에서도 일찌감치 2004년 천성산 도롱뇽사건에서 도롱뇽을 소송당사자로 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0년 검은머리물떼새 사건에서 검은머리물떼새를 소송당사자로 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양 사건에서 자연물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입법모델을 보면 에콰도르와 같이 헌법의 기본권편에 자연권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발달한 입법모델이다. 헌법에 자연권을 명시하면 하위법을 통해 자연권에 관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규정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입법모델을 보면 에콰도르와 같이 헌법에 자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과 볼리비아의 경우처럼 자연권을 법률로 인정하는 방식, 그리고 미국의 지자체와 같이 지자체법이나 조례로 자연권을 인정하는 입법방식이다. 그리고 콜롬비아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법원판례로 자연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자연보호를 국가단위로 하지 말고 지구법(earth system law)을 제정하여 지구거버넌스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환경보호를 국가단위로 쪼개다보면 국가이기주의 때문에 국제협조가 되지 않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Louis J. Kotze, Rakhyun E. Kim, 2019:1). 같은 맥락에서 James R. May & Erin Daly(2019:12)는 환경헌법주의(environmental constitutionalism)를 강조하면서 법원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환경보호에 나서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하는 기본권들인 인간존엄, 건강, 의식주 권리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물중심적(biocentric)으로 보면 환경의 범위는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시대흐름에 맞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환경보호는 더 이상 학자나 환경운동가들의 몫이나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집단적으로 해결하고 사법부 등 3권도 국제흐름에 따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인간존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에콰도르헌법이 자연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에콰도르헌법에서 자연권을 직접 언급하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sup>2)</sup> 제10조는 권리편 제1장(권리의 적용원칙)의 첫 번째 조문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의 주체를 확인하는데, 제1항에 헌법상 권리 주체성을 자연에게 부여했다.<sup>3)</sup> 이를 통해 인간사회의 조직과 자연과를 구분하여, 인간사회와 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헌법은 제7장(자연권)에 4개 조문(제71~74조)을 두었다.

| 에콰도르헌법의 자연권 규정         |                                                                          |
|------------------------|--------------------------------------------------------------------------|
| 제71조 (완전한 존중권과 유지·재생권) | 전문. 완전한 존중권과 유지·재생권<br>1항. 제소권자 (모든 사람, 공동체, 주민과 국민)<br>2항. 국가의 자연보호 촉진권 |
| 제72조 (회복권)             | 전문. 침해된 자연에 생활을 의존하는 개인이나 지역공동체와 별도로 자연은 침해에 대                           |

2) 에콰도르 등 중남미국가들의 법은 조문의 체계를,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눈다. 즉, LIBRO(권), TÍTULO(편), Capítulo(장), Sección(절), Artículo(조), Parrafo(항), Fraccion(호, I, II...), Inciso(목, a) b)...)의 순서이다. 이중, Parrafo(항)는 1, 2, 3과 같이 번호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에콰도르와 같이 번호없이 문단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을 일일이 세어서 몇 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제1항. 자연은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들의 주체가 된다(La naturaleza será sujeto de aquellos derechos que le reconozca la Constitución.).

|                     |                                                                               |
|---------------------|-------------------------------------------------------------------------------|
|                     | 한 회복권을 가짐<br><b>1항.</b> 환경피해가 심각하거나 영속적인 경우 국가의 즉각적 효과적 적절한 회복조치 시행의무         |
| 제73조 (국가의 예방 조치 의무) | 국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조치 의무<br>국가의 유전 자산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유기체, 유기물 또는 무기물의 도입을 금지 |
| 제74조                | <b>전문.</b> 좋은 삶을 위한 환경서비스 향유권<br><b>1항.</b> 환경서비스의 공공성 및 정부의 규율의무             |

제71조와 72조는 자연권으로 3가지 권리를 명시했는데, 완전한 존중권, 유지·재생권 및 회복권이 그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공동체, 주민과 국민(*toda persona, comunidad, pueblo o nacionalidad*)이 정부 당국에게 자연권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는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을 의무를 부여했다. 따라서 환경에 관련되는 모든 법률이나 행위는 의심이 날 경우에는 자연보호를 우선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자연우선 원칙(*in dubio pro natura*)을 선언한 것이다(Prieto Mendez, 2013:101).

에콰도르헌법은 자연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sup>4)</sup> 자연권을 정의하여 제한을 두기보다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rieto Mendez, 2013:146). 대신, 자연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완전한 존중권(제71조), 유지·재생권(제71조) 및 회복권(제72조)을 열거했다.

완전한 존중권(right to integral respect, *Deber de respeto integral*, 제71조 전문)은 인디오의 자연관과 인생관을 반영한다. 에콰도르헌법은 인디오의 자연신앙을 현대사회에 접목시켰기 때문에 그 해석은 인디오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법제도에 적용해야 한다. 완전한 존중권은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과 태도 및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2번째 권리인 유지·재생권과 3번째 권리인 회복권에 대한 해석지침이 된다.

완전한 존중권과 유지·재생권은 제71조 전문에 규정되어 있고, 회복권은 제72조에 배치되어 있다. 제71조 전문은 자연과 Pacha Mama를 동일시하고(*naturaleza o Pacha Mama*), 생명이 재생산되고 영위되는 곳(*donde se reproduce y realiza la vida*)으로 규정하여, 인디오들의 생각인 자연에서 모든 생명이 탄생하고 생활하고 죽고 다시 재생되는 윤회적 사상을 담고 있다. 자연권의 핵심내용인 완전한 존중권과 유지·재생권은 이러한 자연내에서 발생하는 생명의 윤회활동이 완전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존재·유지·재생의 완전한 존중권(*derecho a que se respete integralmente su existencia y el mantenimiento y regeneración*)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 생명윤회활동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외부로부터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생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모든 사람과 공권력은 이러한 자연에 대한 완전한 존중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deber de respeto integral*)가 있는 것이다(Mendez, 2013:125). 자연은 생명의 존재·유지·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사회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행위는 자연에 대한 완전한 존중권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에콰도르의 자연권은 생물중심주의(*biocentrism*)에 기초하여 보편적 관할권을 갖도록 하여 역외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자연의 회복권(right of restoration, 제72조)은 침해된 자연에 생활을 의존하는 개인이나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국가나 침해자들이 배생해야 하는 의무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명시

4) 헌법에서 사용된 자연과 파차맘마의 역사적 개념과 범위에 관해서는 Gudynas(2014)가 제6장 (6. NATURALEZA, ECOSISTEMA, PACHAMAMA)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는 자연과 파차맘마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되어있다. 자연은 피해에 대한 회복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권은 침해의 성격에 따라서 배상과 보상의 개념이 포함된다. 그리고 제72조 1항은 환경피해가 상당하거나 영속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국가가 회복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나쁜 환경 결과를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달리 말하면 환경회복을 우선 과제로 두어, 환경피해가 심각하거나 그대로 방치하면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경우에, 침해자의 의무이행을 기다리지 말고, 국가가 바로 나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회복조치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이다.

피해발생시 자연을 대리하여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모든 사람, 공동체, 주민과 국민(*toda persona, comunidad, pueblo o nacionalidad*)으로 사실상 모든 사람이 자연을 대리하여 정부당국을 상대로 제소권을 갖는다.<sup>5)</sup>

제73조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국가는 생물종의 멸종, 생태계의 파괴, 자연 사이클의 항구적 변경 등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의무를 두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유전 자산을 결정적으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유기체, 유기물 또는 무기물의 도입을 금지하는 의무규정도 두었다.

제74조는 에콰도르의 특징인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좋은 삶(*buen vivir, good way of life*)을 가능하게 해주는 환경과 자연자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러한 환경과 자연자산의 혜택제공을 환경서비스(*servicios ambientales*)로 명시하고, 독점적 소유를 금하고 국가가 규율하도록 했다. “인간, 지역사회, 인민 그리고 국민은 좋은 삶을 제공하는 환경과 자연 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환경 서비스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며, 그 생산, 제공, 사용 및 이용은 국가에 의해 규율된다.” 여기서 환경서비스의 사취금지(*apropiación*)규정은 환경과 자연자원 등 자연에서 나오는 혜택은 누구나 향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혜택으로부터 사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이다(Kyle Pierari, 2016:45).

지금까지는 기본권편에 있는 자연권의 4개 조문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자연권은 헌법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거론된다. 에콰도르헌법 자체가 친환경, 친자연적 헌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395조의 규정은 해석규정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제395조는 제7편 좋은 삶 (TITULO VII REGIMEN DEL BUEN VIVIR)의 제2장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 (Capítulo segundo: Biodiversidad y recursos naturales), 제1절 자연과 환경 (Sección primera: Naturaleza y ambiente)에 규정되어 있다. 동 조문은 제2장의 총칙성격을 갖고 있으며 몇 가지 주요한 원칙을 규정해두고 있는데 이중 제4항의 규정이 중요하다. 4항은 소위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자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in dubio pro natura*)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sup>6)</sup>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은

5)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정체성 관련하여 다문화(Pluriculturalidad), 다종족(multirracialidad), 다인종(multiétnicidad) 국가임을 표방했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사람, 지역사회, 뿌에블로, 민족 (*toda persona, comunidad, pueblo o nacionalidad*)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뿌에블로(*pueblo*)와 나시오날리다드(*nacionalidad*)는 에콰도르의 특정지역에 집단 거주하는 문화, 역사, 관습, 인종, 종족 등으로 구별되는 인디오 종족에게만 적용된다. 정부에 등록된 인디오 종족은 13개 민족(*nacionalidades*)이고, 이중 2개 민족의 종족들을 뿌에블로(*pueblo*)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집단성을 갖는다.

6) 제4항. 환경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자연의 보호에 더 유리한 의미로 적용한다. (4. En caso de duda sobre el alcance de las disposiciones legales en materia ambiental, éstas se aplicarán en el sentido más favorable a la protección de la naturaleza.)

자연보호의 관점에서 자연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것이다. 4항에 환경(ambiente)대신 자연(naturaleza)을 쓴 이유도 환경이슈는 자연권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다면 법률해석의 문제가 다른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자연권의 보호에 가장 유리하게(más favorable, most favorable)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자연권을 넓은 의미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환경관련 모든 문제는 자연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환경침해 사건에서 형성되는 침해와 구제방식은 모두 자연권의 행사에 적용된다.

제71조는 “생명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Pachamama는 그 자신이 존재하고, 지속하고, 유지하는 권리를 갖고, 필수적 윤회, 구조, 기능과 자신의 진화적 절차를 재생시키는 권리를 갖는다.”<sup>7)</sup>고 명시해 놓았다. Pachamama는 케추아(Quechua)어로 대지의 어머니(대모)를 뜻한다. Pachamama는 Sumac Kawsay와 연결되어 해석된다. 에콰도르 헌법 전문은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고 우리의 존재에 필수적인, 자연인 파차맘마를 기리고 (...)”, “(...) 좋은 삶인 sumak kawsay에 도달하기 위해, 자연과의 다양성과 조화를 통한 시민 공존의 새로운 형태를 (...) 건설하기로 결정한다.”<sup>8)</sup>라고 명시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명문화했다. Sumac Kawsay는 스페인어로 ‘buen vivir’라고 번역되는 ‘좋은 삶’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좋은 삶’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은 일견 동화적이고 비법률적인 느낌을 주지만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자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헌법은 실체규정뿐만 아니라 권리구현을 위한 절차규정도 명문화해 놓아 자연권이 사문화되는 것을 막았다.<sup>9)</sup> 이러한 절차규정에 대해서는 아래 제IV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I. 라틴아메리카 법원들의 생태중심주의적 판례

법원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다르다. 영미법계의 법원은 판례형성을 통해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반면, 대륙법계의 법원은 실정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적응한다. 때로는 사법적극주의(activismo judicial, judicial activism)를 통해 사회변화를 이끌기도 하는데, 최근 콜롬비아법원을 중심으로 자연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라틴아메리카에 확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환경보호를 생태중심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법원들의 판례를 살펴보겠다.

#### 1. 콜롬비아 법원의 생태중심적 판결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1998년 헌법재판소 판결 C-126에서 1998년 헌법이 환경헌법

7) 스페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 71.- La naturaleza o Pacha Mama, donde se reproduce y realiza la vida, tiene derecho a que se respete integralmente su existencia y el mantenimiento y regeneración de sus ciclos vitales, estructura, funciones y procesos evolutivos. (...)

8) CELEBRANDO a la naturaleza, la Pacha Mama, de la que somos parte y que es vital para nuestra existencia, “Decidimos construir, (...) Una nueva forma de convivencia ciudadana, en diversidad y armonía con la naturaleza, para alcanzar el buen vivir, el sumak kawsay”

9) Morales, Manolo (2013), p.77.

(Constitución ecológica)이라고 확인했는데, 2010년 헌법재판소 판결(Sentencia C-595/10)에서도 재확인하면서, 이후 환경관련 사건에서 생태중심적 접근을 견지하고 있다.<sup>10)</sup> 2010년 사건은 환경법 위헌소송으로, 2009년 환경법(법률 제1333호)의 제1조와 제5조 1항에 규정된 환경범죄에 대한 범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콜롬비아헌법은 환경헌법이고, 인류보존을 위한 건강한 환경(healthy environment)의 효과적인 보호를 목적을 하는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건강한 환경에 대한 위협은 적극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콜롬비아헌법이 환경헌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헌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판결문 7.12.).

2016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세계의 관심을 끄는 판결을 내렸다. 아트라토(Atrato)강 사건에서 자연권을 판결로 인정한 것이다(Sentencia T-622/16).<sup>11)</sup> Atrato강 사건은 생태중심적 환경론의 입장에서 중요한 판결이다. Atrato강은 콜롬비아의 북서쪽 태평양 우림지대를 관통하는 강으로, 불법적 금광채굴로 환경과괴뿐만 아니라 채광업자들과 거주민들간의 마찰로 인권보호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2015년에 신성한 대지(Tierra Digna)라는 환경보호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Atrato강과 지역 거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집단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원고 측으로는 Atrato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사회와 여러 단체들이 공동 참여했고, 피고 측으로는 대통령과 환경보호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판결문의 날짜는 2016년 11월 10일로 되어 있으나, 2017년 5월에야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동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o)에 기초하여, “Atrato강은 권리의 주체로써, 그 의미는 보호, 보존, 유지 및, 구체적인 경우에, 회복을 의미한다.”고 선언했다.<sup>12)</sup> Atrato강이 권리주체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법원은 판결문을 연구논문 수준으로 작성하여 환경윤리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중심주의(antropocentrismo), 생물중심주의(biocentrismo)와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o)의 논리를 분석하고 법원판결의 논리를 생태중심주의에서 찾았다(판결문 5.5-5.10). 판결은 생태중심적 관점에서 Atrato강이 권리의 주체로써 보호받아야 하고, 강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사회가 ‘생태문화적 권리(derecho biocultural, biocultural rights)’가 있음을 확인했다.<sup>13)</sup> 또한, 국내판결에 환경관련 국제협약들의 발전단계를 검토하고 나고야 생물다양성협약의 개념을 끌어들이 자연권,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법률적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한 획기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전의 여러 판결과 마찬가지로 콜롬비아헌법이 환경헌법(constitucion ecologica)임을 강조하고(판결문 5.3), 건강한 환경(medio ambiente sano, healthy environment)을 헌법상 법률재(bien

10) 4.2. La Constitución ecológica. El Constituyente de 1991 instituyó nuevos parámetros en la relación persona y naturaleza. Concedió una importancia cardinal al medio ambiente que ha llevado a catalogarla como una “Constitución ecológica” o “Constitución verde” (Sentencia C-595/10).

11) Corte Constitucional-Sala Sexta de Revisión, sentencia T-622 of 2016. 판결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www.corteconstitucional.gov.co/relatoria/2016/t-622-16.htm>

12) 판결문 9.32. (...) es que la Corte declarará que el río Atrato es sujeto de derechos que implican su protección, conservación, mantenimiento y en el caso concreto, restauración.

13) 나고야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과 제10조 c항은 토착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보전에 대한 전통사회의 관리역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생태계의 사회적 관리에 대한 인식은 의정서 내에서 '생물문화적 권리(biocultural rights)'라고 표현되는 특징적 새로운 개념을 부상 시켰다. 생물문화적 권리란 지역사회가 생태계를 운영, 관리 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가꾸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물자원과 문화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이다.

jurídico constitucional)로 보아 국가의 보호의무, 집단기본권으로서 집단청구권, 모든 사람들의 보호의무 등 3층 구조(triple dimensión)로 분석하여 환경파괴에 대해 누구나 청구권이 있음을 강조했다(판결문 5.5).

이렇게 Atrato강의 자연,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조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소수민족 지역사회(comunidad étnica, ethnic communities)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Atrato강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의 보호와 생태계 회복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판결문의 이행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 보존, 유지와 회복’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적극적 사법행위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행동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연권의 헌법상 근거를 제1조에서 찾았다. 제1조는 콜롬비아의 정체성을 민주, 참여, 다양성 공화국(República democrática, participativa y pluralista)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종족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제7조와 8조)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환경과 거주민의 협력관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o)에서 찾는 판결(2015년 C-449, 2010년 C-595)을 여러 번 했는데, 그 논리는 환경은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하고, 또한, 거주민과의 관계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la sentencia C-595 de 2010 anota que la Constitución es muestra igualmente la relevancia que toma el medio ambiente como bien a proteger por sí mismo y su relación estrecha con los seres que habitan la tierra.). 같은 논리는 판결 C-632, 2011년에서 다시 반복된다. 즉, “현재에 와서, 자연은 환경과 인간의 주변으로만 파악되지 않고, 권리 그 자체의 주체로, 그와 같이, 보호되고 보장받아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태계적 보상은 자연에 대해 독점적으로 적용되는 원상회복의 형태를 의미한다. 국가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 선조의 지혜에서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찾는 입장이다(헌법 제7조).”<sup>14)</sup>

2018년에는 콜롬비아 대법원(Corte Suprema)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Sentencia 4360-2018).<sup>15)</sup> 동 소송은 26명의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공화국 대통령과 환경부장관 및 아마존지역 시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중의 소(acción popular)로, 대법원은 아마존지역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보호, 보존, 유지 및 회복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아마존은 콜롬비아의 온실가스방출에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는 2020년까지 모든 산림황폐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으며, 판결확정 후 4개월 내에 아마존 지역의 산림황폐화를 막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유효적 수단으로 정부의 관련기관들이 아마존지역의 피해지역 공동체들에게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명했다.

원고측은 콜롬비아 정부가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이유로 산림의 황폐화 감축의무가 있음을 주장했는데, 첫째, 콜롬비아는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고, 산림의 황폐화가

14) 헌법 제7조. “en la actualidad, la naturaleza no se concibe únicamente como el ambiente y entorno de los seres humanos, sino también como un sujeto con derechos propios, que, como tal, deben ser protegidos y garantizados. En este sentido, la compensación ecosistémica comporta un tipo de restitución aplicada exclusivamente a la naturaleza”. Postura que principalmente ha encontrado justificación en los saberes ancestrales en orden al principio de diversidad étnica y cultural de la Nación.”

15) Sentencia 4360-2018 de la Corte Suprema de Justicia. 판결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legal.legis.com.co/document/Index?obra=jurcol&document=jurcol\\_c947ae53aeb447bd91e8e9a315311ac5](http://legal.legis.com.co/document/Index?obra=jurcol&document=jurcol_c947ae53aeb447bd91e8e9a315311ac5)

온실가스의 주범이기 때문에 산림황폐화 감축은 국제의무 이행에 필수적 사항이라는 점(판결문 11.3), 둘째, 콜롬비아는 2020년까지 아마존의 산림황폐화 제로달성을 약속했다는 점(판결문 11.3), 셋째, 국내적으로는 2015년 법률 제1753호를 통해 연 감축율을 명시했다는 점을 들었다(판결문 13.4). 원고측의 주장은, 콜롬비아가 이러한 국내외 약속에도 불구하고 산림벌목 제로화의 목적달성을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권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판결문 11).

대법원은 헌법국가(Estado Constitucional)의 개념에서 타인 또는 다른 것(otro)에 대한 존중을 도출하고, ‘타인 또는 다른 것’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와 다른 동식물 등 지구상에 공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했다. 이러한 확대론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세대의 환경권리가 강제규범성이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논리의 전개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1년 헌법과 관련 판례 및 국제법과 학설 등을 종합해보면 건강한 환경은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고, 자연과 환경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문화권의 발달에 따라서 콜롬비아 아마존도 권리의 주체(“*sujeto de derechos*”, titular de la protección)이기 때문에 현세대는 행동의 자유에 제한이 있다는 논리를 도출했다(판결문 14).

대법원은 관련 정부기관들이 판결문의 통지 후 4-5개월내에 세대간 협약을 포함하여 산림벌목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결정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법원명령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부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동 사건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이다. 콜롬비아는 비록 헌법에 자연권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콜롬비아 헌법을 환경헌법(constitucion ecologica)으로 규정하고 건강한 환경(medio ambiente sano)을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Atrato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아마존지역의 자연권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파리협정의 의무이행을 국내법적으로 강제했다. 또한 판례는 기후변화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즉,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다. 미래세대의 환경권에는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정책의 입안에도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야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자연권을 판례로 인정하면서 하급심들도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사건에서 Atrato강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지역의 자연물에 대해서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Medellin고등법원(안티오키아주 대법원, TRIBUNAL SUPERIOR, 2019-076, SALA CUARTA CIVIL DE DECISIÓN, Medellín)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차례로 인용하면서 같은 논리로 콜롬비아에서 중요한 강인 Cauca강을 권리주체로 인정했다. 즉, 현세대는 미래세대의 기본권인 존엄성, 물과 식량 그리고 건강한 환경(medio ambiente sano)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Cauca강은 권리주체로써(el río Cauca es sujeto de derecho) 보호, 보존, 유지와 회복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0년 콜롬비아대법원은 Salamanca섬국립공원(Vía Parque Isla Salamanca)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산림황폐화를 막아야 한다고 판결했다(Sentencia STC3872-2020).

이와 같이 콜롬비아는 헌법상 자연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과 콜롬비아가 가입한 환경관련 국제조약들을 생태중심적으로 적극 해석하여 환경헌

법과 건강한 환경 및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 등을 이끌어내어 자연권을 인정하였다.

## 2. 에콰도르 법원의 생태중심적 판결

헌법에 자연권을 인정한 에콰도르에서는 자연권을 주장하는 법원소송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헌법상 자연권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자연권을 인정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는 않다.<sup>16)</sup>

자연권을 인정한 가장 유명한 판례는 2011.3.30. 로하(Loja) 지방법원이 판결한 Vilcabamba강 사건이다. 동 건은 2008년 헌법에 자연권이 규정된 이래 구체적 사건에서 자연권을 행사한 첫 판결이다. 동 사건은 Vilcabamba강변의 도로확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돌과 흙을 강물에 던짐으로써 강을 오염시킨 사건이었다. 도로확장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고 3년간 진행 중이었고, 강폭이 좁아짐으로써 유속을 높이고 강물의 범람으로 강을 생계수단으로 사는 강변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원고인 Richard Frederick Wheeler과 Eleanor Geer Huddle은 2011.3.30. Loja지방법원에, Vilcabamba강을 대리하여 Loja지방정부를 상대로 헌법보호소송(일종의 헌법소원, accion de proteccion)을 제기했다. Loja지방법원은 Vilcabamba강의 자연권을 인정하고, Loja지방정부가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했다.<sup>17)</sup>

법원은 자연권을 인정하면서 입증책임을 원고에서 피고로 전도시켜, Loja정부가 도로확장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피고인 Loja정부는 지역주민은 도로를 필요로 하고 도로확장은 주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되는 것이 없으니 동 헌법보호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한 법원은 사건의 본질은 강변도로의 확장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헌법상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Vilcabamba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2019년 Imbabura주법원은 보호소송(accion de proteccion)에서 Cedros보호림의 자연권을 확인하고, 광산개발이 동 자연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했다. 동 판결에서 자연과 지역공동체와의 사전협의권(consulta previa)을 확인해줌으로써 보호 산림에 대한 개발허가 등에 지역공동체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이나 자원개발 허여는 정권에 따라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자연권의 보호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보호는 법원이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자연권규정의 목적과 내용이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에서 동 판결의 의미가 있다.

2020년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닭과 돼지농장 등이 Alpayacu강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의 자연권보호를 명령했다("Sentencia No. 023-18-SIS-CC). 동 판결에서

16) 다음의 자료는 아래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에콰도르 법원의 자연권에 대한 판단 기준을 파악하는데 일부 도움이 된다. Craig Kauffman and Pam Martin, "Testing Ecuador's Rights of Nature: Why Some Lawsuits Succeed and Others Fail,"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Atlanta, GA, March 18, 2010. <http://files.harmonywithnatureun.org/uploads/upload471.pdf>

17) 판결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s://therightsofnature.org/wp-content/uploads/pdfs/Espanol/Sentencia%20Corte%20Provincial%20Loja\\_marzo\\_2011.pdf](https://therightsofnature.org/wp-content/uploads/pdfs/Espanol/Sentencia%20Corte%20Provincial%20Loja_marzo_2011.pdf))

법원은 헌법 제72조의 자연권은 피해자의 배상권과 별도로 Alpayacu강이 권리의 주체로써 받아야 하는 배상권임을 상기시키고,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환경을 큰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막는 예비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켰다(판결문, 18-19쪽).

에콰도르는 세계최초로 헌법에 자연권을 명문화했지만 법원의 태도는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에콰도르 지하자원의 남용적 개발이 다시 문제화되고 자연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태도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자연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 3. 아르헨티나 법원의 생태중심적 판결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연방헌법이나 연방법에 자연권에 관한 규정이나 환경법제가 생태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법원은 법률이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법적극주의를 통해 혁신적인 판결을 해오는 전통이 있다. 아직까지 자연권에 관련된 판례는 없으나 동물의 인격권에 관한 간헐적인 판결이 있었고, 미주인권법원(IACHR)이 환경중심적 판결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우선, 2014년에 연방행정법원 1심법원(Juzgado Nacional de Primera Instancia en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 Federal)은 오랑우탄을 법의 주체로 인정했다. 원고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동물원에 있는 Sandra라는 오랑우탄이 아르헨티나법상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더 가깝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연에 가깝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동물권리보호 아르헨티나 변호사협회(AFADA)는 29세된 Sandra는 20년간 동물원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좀 더 개방된 자연환경에서 생활한다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구속적부심(habeas corpus, acción de amparo)을 신청하였다. 원고주장은 Sandra는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에 가깝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Sandra를 법의 주체로 인정하고 (“1) Reconocer a la orangutana Sandra como un sujeto de derecho, conforme a lo dispuesto por la ley 14.346 y el Código Civil y Comercial de la Nación), 피고에게 적절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도록 판결했다(판결문).

2016년에는 멘도사법원(Tercer Juzgado de Garantías, PODER JUDICIAL MENDOZA)이 Cecilia라는 침팬지의 법인격에 관한 소송에서 Cecilia의 법인격을 확인해 주었다. 2014년 Sandra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동물권리보호 아르헨티나 변호사협회(AFADA)가 Mendoza시립동물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구속적부심소송(accion de habeas corpus)이었다. 법원은 Sandra사건과 마찬가지로 Cecilia가 ‘비인간 권리주체(sujeto de derecho no humano)’라 판시하여 생태중심적 관점에서 인간이외의 생물에 대해 법인격을 확인해 주었다.<sup>18)</sup> 법원은 “동물의 대부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큰 영장류는 뼈와 살로 구성되고, 출생하고, 고통받고, 마시고, 놀고, 잠자고, 추상적 능력이 있고 군집생활 등을 한다. 규범의 책임을 지는 중심주체 (즉, ‘법의 주체’)는 인간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큰 영장류인 오랑우탄, 고릴라, 보노보, 침팬지 등도 포함된다 (La mayor de los animales y, concretamente, los grandes simios son tambien de carne hueso, nacen, sufren, beben, juegan, duermen, tienen capacidad de abstracci, quieren, son gregarios, etc. As la categor de sujeto

18) 판결문 44쪽 (“II.- Declarar a la chimpance Cecilia, actualmente alojada en el zoologico de la Provincia de Mendoza, sujeto de derecho no humano.”)

como centro de imputaci de normas (o “sujeto de derecho”) no comprender unicamente al ser humano sino tambien a los grandes simios .orangutanes, gorilas, bonobos y chimpances.”)(판결문, 37쪽).

아르헨티나가 환경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바로 2020년에 미주인권법원(IACHR)이 Lhaka Honhat (Our Land) Association Vs. Argentina사건에서 미주인권법원 최초로 환경과 인권문제를 ‘건강한 환경(healthy environment)’의 측면에서 기존의 인간중심적 접근방식을 버리고 생태중심적 접근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동 건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접경지역에서 최소 1629년 이래 거주해오고 있는 132개 인디오 공동체들이 Lhaka Honhat (Our Land) Association을 결성하여 아르헨티나 정부를 피고로 동 지역의 공동체소유권 확인소송이었다. 1900년대 초부터 인디오 거주지역에 비인디오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여 목장과 울타리를 세움으로써 식량과 물을 조달하는 인디오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었다는 주장이다.<sup>19)</sup>

미주인권법원은 미주인권협약 제21조에 따른 피해자들의 공동체 재산권에 대한 분석과 제26조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 건강한 환경과 식량과 물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에 관련된 권리, 그리고 제25조와 제8조에 기초한 사법적 보호권(재판받을 권리)와 정당한 절차(due process)에 관련된 권리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다.<sup>20)</sup> 동 사건에서 자연권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미주인권협약 제26조의 해석이다. 제26조에서 문화적 정체성, 건강한 환경과 식량과 물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에 관련된 권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법원은 OAS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권의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침해는 제26조의 위반여부는 법원의 관할권에 있다고 보았다.<sup>21)</sup> 법원은 국가가 ‘건강한 환경 독립권(autonomous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derecho autonomo a un medio ambiente sano)’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동 건은 미주인권법원이 인권협약 제26조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법원은 건강한 환경, 문화적 정체성, 식량과 물을 인간이 존재하는 필수 불가결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러한 권리들을 다른 권리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닌 그 스스로 독자적인 자율적 권리(autonomous rights, derecho autonomo)임을 인정했다.

#### IV. 자연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소송제도

우리는 콜롬비아와 같이 법원이 판결에서 헌법을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 적극

19) 판결문, para. 36.

20) para. 91. La Corte efectuará su examen del siguiente modo: 1) en primer término, se referirá al derecho de propiedad comunitaria, analizando también otros derechos que, conforme se ha aducido, han presentado relación con la propiedad en el caso: a.- expondrá algunas consideraciones generales sobre la propiedad comunitaria indígena y luego dará cuenta de los argumentos respectivos de la Comisión y la partes y del análisis del Tribunal sobre: b.- el reconocimiento y determinación de la propiedad, y c.- proyectos y obras ejecutadas sobre el territorio reclamado. Más adelante, abordará: 2) los alegatos sobre violaciones a los derechos de circulación y de residencia, al medio ambiente sano, a la alimentación y a la identidad cultural, considerando también el derecho al agua, y 3) las aducidas vulneraciones a los derechos a las garantías judiciales y a la protección judicial en relación con acciones judiciales iniciadas en el caso.

21) 판결문 para. 195.

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보았고, 아르헨티나법원에서와 같이 소극적이지만 동물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판결, 그리고 에콰도르와 같이 대법원이 자연권규정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보았다. 이러한 국가들은 헌법에 자연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헌법상 구제수단을 갖고 있다. 자연권 또는 생태중심적 관점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침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효한 소송수단이 존재하고 폭넓은 당사자적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들이 헌법에 규정한 구제수단은 헌법소원과 유사한 Amparo소송이다. Amparo소송은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헌법소송제도로 헌법상 기본권이 공권력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침해받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 이러한 침해사실이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경우에 긴급구제하는 헌법상 구제제도이다. Amparo소송은 국가마다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는 보호명령(Acción de tutela), 멕시코에서는 암바로소송(Acción de Amparo), 브라질에서는 보호명령(Mandado de Segurança) 등 다양하다.

이러한 헌법소송의 장점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헌법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집단권인 3세대 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하면서 개별권리(individual rights)를 집단권리(collective rights)로 확대하고 이에 맞추어 소송법제에도 기존의 개별소송에서 집단소송까지 확대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amparo소송도 기존 개별소송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졌다. 자연권이 관련되는 환경소송은 대부분 집단소송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amparo소송의 집단성을 인정한 것은 자연권 보호에 아주 유효한 소송수단이 된다.

## V. 결론

현대사회의 발전 속도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지금만큼 중요한 적이 없다. 라틴아메리카 법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 채 생태정의의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에콰도르의 Martinez와 Acosta는 자연권과 생태정의(ecojustice)가 이미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다른 것들(los otros, the others)을 인정하고, 국제사회가 자연권 세계선언(Declaracion Universal de los Derechos de la Naturaleza)과 국제법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Martinez and Acosta, 2017:2956).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자연권을 헌법에 도입하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자연권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특수성과도 맞물려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역사적으로 유럽이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식민지대륙이었다. 그래서 식민지해방은 사실 유럽인들의 유럽으로부터의 독립이지 원주민들의 독립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는 원주민과 유럽정착민들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어 물리적인 정복이 원주민들의 전통문화까지 지워버린 것은 아니다. 특히,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그리고 콜롬비아를 비롯하여 아마존을 매개로 연결된 남미국가들은 원주민들의 전통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다.

남미국가들이 자연권에 매료되고 생태중심적 환경헌법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은 일시적이기보다는 좋은 전통을 되찾으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아마존지역에서의 열대림파괴와 지하자원의 채굴에 따르는 환경파괴와 원주민들의 생활터전에 대한 위협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유럽중심에서 발전되어온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원주민들의 전통사상인 생태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다. 자

연권을 인정하는 생태중심 환경헌법의 탄생은 라틴아메리카가 유럽의 정복에서 정신적으로 독립하려는 한 단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연권에 기초한 생태중심적 환경헌법의 탄생은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에 대한 강한 도전이자 라틴아메리카 고대문명이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가 초래한 현대사회의 난치병을 치유해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아주 귀중한 선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조희문(2020). 중남미에서의 자연권에 관한 이론과 실제, 외법논집, 44권 3호, pp.443-469
- EESC(2019) Towards an EU Charter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Nature,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Knauß, S.(2018). Conceptualizing Human Stewardship in the Anthropocene: The Rights of Nature in Ecuador, New Zealand and India. J Agric Environ Ethics 31, 703-722 (2018). <https://doi.org/10.1007/s10806-018-9731-x>
- Kotzé, L. (2019). A Global Environmental Constitution for the Anthropocene?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8(1), 11-33. doi:10.1017/S2047102518000274
- Kotzé, L., & Villavicencio Calzadilla, P. (2017). Somewhere between Rhetoric and Reality: Environmental Constitutionalism and the Rights of Nature in Ecuador.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6(3), 401-433. doi:10.1017/S2047102517000061
- Kotze, Louis, Kim, Rakhyun(2019) Earth system law: The juridical dimensions of earth system governance
- Méndez, Julio Marcelo Prieto(2013). *Derechos de la naturaleza - Fundamento, contenido y exigibilidad jurisdiccional*, Quito, Corte Constitucional del Ecuador; CEDEC.
- MURCOTT, Melanie(2017) Transformative Environmental Constitutionalism's response to the setting aside of South Africa's Moratorium on Rhino Horn Trade
- PORENA, Daniele(2010)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Italian Case
- UNEP(2017) New Frontiers in Environmental Constitutionalism
- May, James R. & Daly, Erin(2019). Global Judicial Handbook on Environmental Constitutionalism, Third Edition,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생태 위기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두개의 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LAUDATO SI'와 'BUEN VIVIR' 담론 비교연구

조영현(부산외국어대학교)

## 연구 배경

- 기후변화가 초래한 생태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는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함.
- 기존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근대산업문명 모델로는 인류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탈근대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함.
- 1990년대 이후 부상한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운동은 이곳 토착민들의 세계관에 토대를 둔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를 문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고, 이는 부엔 비비르(Buen Vivir) 담론으로 발전함.
- 2015년 라틴아메리카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초로 환경 위기와 빈곤 문제를 연결해서 다룬 회칙 'Laudato Si'(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고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한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변화를 촉구함.

## 연구목적: 회칙 Laudato Si와 Buen Vivir 담론 비교

- 생태환경 위기와 인류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Laudato Si'와 'Buen Vivir'의 핵심 내용과 제안을 검토하고 두 노선의 기본 토대인 원리와 지향점을 알아보고 담론과 회칙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파악해 보고자 함.



## 회칙 Laudato Si의 출현 배경

-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 전통.
- 기후변화가 초래한 생태 위기.
- 빈곤 문제와 가난한 사람들-만연한 불평등.
- 제3세계 라틴아메리카 출신 교황의 등장.
- \*사회교리란?: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의미. 다양한 사상, 풍조, 문화에 대항하여 올바른 사상을 제시할 필요성에서 대두. 가톨릭 사회론, 사회적 가르침이란 용어로도 쓰임.

# 회칙의 구조

- 회칙의 방법론: 가톨릭 액션의 방법론
- Ver: 현실 파악(분석)
- Juzgar: 교회적 성찰(성서와 신학, 윤리)
- Actuar: 구체적 실천
- 표: (황창희 2018, 66 참조)

| 구분       | 장  | 내용                  | 세부주제                                                    |
|----------|----|---------------------|---------------------------------------------------------|
|          | 서론 | 회칙의 의의              |                                                         |
| 성찰<br>원리 | 1장 | 현대 세계-<br>환경문제      |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생물종다<br>양성 감소/삶의 질/사회 붕괴/불<br>평등             |
| 판단<br>기준 | 2장 | 피조물에 대한 복음의 가<br>르침 | 성서적 설명/창조의 조화/보편적<br>친교/재화의 보편적 목적/예수의<br>눈길            |
| 성찰<br>원리 | 3장 | 생태 위기의 근본 원인        | 기술: 창조력과 힘/ 기술관료적<br>패러다임의 세계화/인간중심주<br>의 폐해            |
| 판단<br>기준 | 4장 | 통합생태론               | 환경, 문화, 경제,사회생태론/ 공<br>동선의 원리/ 세대간 정의                   |
| 성찰<br>원리 | 5장 | 문제 해결과 실천           | 국제 정치적 대화/국가-지역간 정<br>책에 대한 대화/정치-경제간 대화<br>/ 과학-종교간 대화 |
| 판단<br>기준 | 6장 | 대안-생태 교육과 영성        | 생태적 회심<br>생태교육/생태영성                                     |
|          | 결론 | 기도                  |                                                         |

# 회칙의 핵심 내용

- 1) 관계성의 원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LS. 12)
- “지구의 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구성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듯이, 생물종들도 우리가 결코 그 전체를 알고 이해할 수 없을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LS. 106-107)
- 죄(하느님, 인간, 지구의 불화)가 창조 질서 전체 파괴(LS. 55)
- 2) 재화의 보편성: 지구=공동의 집(LS. 24)/공공재인 기후(LS. 27)
- “자연 환경이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
- “하느님께서 온 인류에게 땅을 주시어 아무도 제외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 모든 성원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다.” (LS. 76)
- 3)지구의 취약함과 가난한 사람들의 긴밀한 관계: 지구의 울부짖음=가난한 사람들의 울부  
짖음. 분리할 수 없는 동일한 문제(타자에 대한 착취) (LS. 42-43)
- “우리는 환경과 사회와 관련된 두 가지 별개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한 것입니다.” (LS. 107)

## 회칙의 핵심 내용

- 4) 기술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환상: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가능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과 사조가 전개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한 극단에서는 발전이라는 신화를 맹목적으로 믿으며, 생태 문제는 윤리적 성찰이나 커다란 변화 없이도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에서는 인간과 그 개입이 위협이 될 뿐이라서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하므로 지구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줄이고 모든 개입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미래 계획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에서 중용을 취한 것이어야 합니다.” (LS. 50)
- 시장중심주의의 위험성 경고(LS. 96)- “환경은 시장의 힘으로 빠르게 보호되거나 증진될 수 없는 재화에 속하는 것입니다.”(LS. 137-138)
- 5) 인간중심주의의 폐해-인간과 자연 관계(인간의 위치):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배자가 아니고 인간은 자연(피조물)의 일부이다. 자연을 대상화하고 지배하는 논리나 타자의 지배 논리가 같은 것.
- “근대에는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가 있어 왔고,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여 공동의 이해와 사회적 결속 강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LS. 92)
- “오늘날 교회는, 마치 다른 피조물들이 그 고유한 가치가 없고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거나 한 듯이 인간의 이익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용성 보다는 존재가 우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LS. 70)

## 회칙의 핵심 내용

- 6) 삶의 질과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
- 인류가 기술과 그 발전을 획일적이고 일차원적 패러다임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했다고 비판.
- 기술의 산물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특정 권력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활 양식을 좌우하고 사회적 기회들을 조성하는 틀을 만든다고 지적. (LS. 87)
- “새로운 발전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세계적인 개발 모델을 바꾸어야 합니다....간단히 말해서 발전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세상과 전체적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기술과 경제 개발은 발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종종 인간 삶의 질이 실제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환경이 악화되고 식품의 품질이 떨어지며 일부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LS. 140)
- “사람들은 힘이 늘수록 ‘진보’가 이루어지고, 안전, 유용성, 복지, 활력, 가치 총만의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 발전에 인간의 책임과 가치관과 양심의 발전이 함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LS. 84-85)
- 7) 상대적 책임론: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모두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선진국이 더 큰 ‘차등적 책임’을 지고 있다. (LS. 45)
- 8) 상호보완성의 원리: “하느님께서서는 피조물들이 서로 의존하기를 바라신다. 해와 달, 전나무와 작은 꽃 한 송이, 독수리와 참새, 이들의 무수한 다양성과 차별성의 장관은 어떠한 피조물도 스스로는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다른 피조물에 의존해서 서로 보완하며,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간다.”(LS. 70-71)

## 회칙의 제안

1) 공공선과 연대성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

불의, 인권의 상실, 인간을 소모품으로 대하는 현실에서 가장 취약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연대의 표명은 중요(LS. 118).

오늘날의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세상을 물려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

2) 생태 정의와 생태적 회심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과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은 하나임 강조. 생태 정의=사회 정의.

극단적 소비주의와 같은 기존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 추구해야함 강조. 하느님, 인간, 피조물 관계 안에서 돌봄과 조화의 중요성 강조.

창조의 신비 이해: 생태 문제=윤리, 가치 문제.

3) 국제적 노력과 더불어 각국의 생태 문제에 대한 제도화 촉구.

## Buen Vivir 출현 배경

-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생태 위기.
- 전통적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위기 상황 속에서 등장: 199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산 속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 성찰.
- 가난한 사람들(불평등)의 증가와 의식화.
- 원주민 운동.
- 라틴아메리카 사상사 속에 면면히 흐르는 유토피아적 사유와 원주민의 행복론.
- Buen Vivir개념(Sumak Kawsay-Buen Vivir=충만한 삶):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치, 공존, 공생의 삶 강조. 모든 것이 서로 관계 지워져 있고, 상보적이며, 생명의 연대를 이루고 있음 강조.

## 핵심원리

- 공동체성: 이 지역 원주민들은 공동체적 삶의 양태와 패러다임을 가졌다. 서로에 대한 책임 강화.
- 공동체적 공간에서 상호성, 공동재산 체제, 자연과의 공생, 사회적 책임과 합의 등의 원리들이 활력을 갖는다고 봄.
- 공동체성 안에서 인간의 개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공동체성이 유지될 때 개성과 공동체 사이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입장.
- 관계성(relacionalidad):
- “모든 것은 서로 관계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조셉 에스터만
- 상응성(correspondencia)/상보성(complementalidad): complemento는 con+plenus로 이루어졌다. 함께 있어야 충만해지는 것이며 완성된다는 의미.
- 상호성(reciprocidad): 주고 받음. 품앗이.
- 안데스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이 가능했던 이유.
- 앞의 원리들의 핵심은 ‘함께(co)’, 나 ‘상호(re)’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파차마마와 자연권

- 파차마마: 생명을 부여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이신 자연’ 혹은 ‘대지의 신’으로 이해.
- 모든 존재들의 총체,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 됨.
- 자연권 (2008년 에콰도르/2009년 볼리비아 헌법에 삽입): 자연을 대상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 (에콰도르 헌법, 10조). 국가는 자연을 대신해 돌봐야 하는 위임권을 가짐(72조).

## 서구식 근대 발전모델 비판

- 부엔 비비르 담론은 안데스 지역의 정치경제적 위기 극복과 함께 문명과 인간의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대안적 사유임.
- 서구식 발전 모델과 신자유주의는 천연자원 채굴에 의존한 경제로 환경 파괴적 특성을 보였다고 비판(Cortez 2011, 11).
- 시장중심 발전, 위로부터의 발전 모델, 다국적기업과 지배엘리트를 위한 발전정책 비판.
- 근대화=산업화=경제성장=발전=진보=행복이란 등식 거부.
- 공동체 의식이나 전망에서 경제를 보고 시장 논리보다는 생명 논리 강조(Acosta y Esperanza Martínez 2009, 19-30).

## 생태를 중심에 놓는 발전 모델

- 발전을 보는 다른 관점:
- “발전에 있어 이제 유일하거나 보편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발전 형태가 있다... 발전은 이제 순전히 양적인 목표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과정이다... 발전은 부의 축적도 아니고, 산업화도 아니다. 발전은 자연과 우리, 공동체들 간의 조화로운 공생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상호작용, 문화 간 대화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Prada 2011, 235)
- 시장이나 인간중심에서 생태중심으로의 전환 촉구.

## 상호문화성과 다민족 국가 건설

- 상호문화성은 문화적 다원성을 전제-문화적 동질화나 포섭에 저항. 문화간 대화 강조.
- “상호문화성은 주민과 공동체들이 고유한 차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로서의 문화를 고려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유일한 하나의 문화나 지배체제에 동질화 된 문화를 의문시한다. 이런 동질화 된 문화는 어떤 그룹은 우등시하고 다른 타자는 열등시하며, 주체들과 경제적인 것을 분류하고 서열화 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Olvera Salinas 2011, 6)
- 다민족국가: 백인과 메스티조 중심의 단일국민국가 모델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 다양한 인종적 정체성이 인정되는 국가 모델 지향.
- 인종적 위계화와 불평등의 뿌리인 식민성 극복을 지향.

## LS와 BV 비교

- 공통점:
  - 두 시각 모두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성에서 출발- 상호 보완성, 공동체성 강조.
  - 생태문제와 빈곤의 문제가 동일한 문제임을 강조.
  - 발전과 행복에 대한 문제를 문명 비판적 차원에서 재성찰 함: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차등적 책임 강조.
  - 근대서구중심 문화와 패권적 태도 비판.
  - 시장 중심 자본주의 문명의 한계와 위험성 경고.
  - 차등책임론 인정.
- 차이점:
  - LS의 이론적 토대는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에 머물고 있음. 대안으로 서 생태교육, 생태영성의 중요성 강조. 절대 진리의 입장 유지.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위험성 경고하지만 이 모델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 수정하려 함.
  - BV는 더 인종적 입장 강조하고 생태중심적 입장 고수. 교육의 중요성 부정하지 않지만 다민족국가 건설과 상호문화성 수립의 중요성 강조. 자본주의와 현대 문명 비판을 사회주의나 좌파 입장의 토대 위에서 전개.
- 표: 장동훈 2018, 194참조.

| 현실               | Laudato Si            | Buen Vivir         |
|------------------|-----------------------|--------------------|
| 무책임, 소비주의, 탐욕    | 생태적 회심: 합리적 한계 설정, 절제 | 문명의 전환(생태문명으로)     |
| 실천적 상대주의         | 객관적 진리, 보편타당한 원칙      | 유일 보편성이 아닌 다양한 보편성 |
| 현대 인간중심주의        | 그리스도교 인간학-참된 인본주의     | 생태중심주의             |
| 효용, 이익-시장        | 윤리-가치                 | 자본주의 대안            |
| 근대성-전문화, 분업화     | 통합 생태론, 공동선           | 관계성                |
| 세계적 개발 모델(성장 중심) | 지속가능한 발전-새로운 발전모델     | 탈서구발전주의, 탈채굴주의     |
| 직선적 역사관(진보 신화)   | 하느님의 시간-장구한 역사        | 나선적 역사관            |
| 법과 정치 조치         | 국제적 협력, 생태보호 제도화      | 자연권 제정             |
| 문화               | 통합생태론-공동체 문화          | 공동체성과 상호문화성        |

## 결론

- 생태 문화는 환경 훼손, 천연자원 고갈, 오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련의 신속한 부분적 해답들로 축소될 수 없다고 봄. 따라서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공세에 대항하는 다른 시각, 사고방식, 정책, 교육계획, 생활 양식이 필요하다고 역설.
-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 방안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은폐되고 있는 세계 체제 차원의 진짜 문제들을 볼 것을 촉구.
- 석기 시대로 돌아가지는 것 아니고, 현재를 성찰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지나친 과대망상으로 잃어버린 가치와 중요한 목표를 되찾아야 함을 호소.
- 두 노선 모두 생태적 감수성을 촉구함. 문화적 혁명과 통합적 전망의 필요성 강조.

## 참고문헌

- 조영현, 김달관(2012),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수막 카우사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남미연구』 31(2).
- 장동훈(2018),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역사적 기원과 의의」, 『누리와 말씀』, 제 42호, p. 189-218.
- 프란치스코 교황(2015), 『찬미받으소서』,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황창희(2018),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사회교리적 차원. 생태위기와 통합생태론을 중심으로」, 『누리와 말씀』 제 42호, p. 63-88.
- Acosta, Alberto y Esperanza Martínez(ed.)(2009), *Plurinacionalidad. Democracia en la diversidad*, Quito: Abya-Yala.
- Cortez, David(2011). "La construcción social del Buen Vivir en Ecuador", [www.usab.edu.ec/UserFiles/369/File/PDF/.../Cortez.pdf](http://www.usab.edu.ec/UserFiles/369/File/PDF/.../Cortez.pdf)
- Olvera Salinas, René(2011), "Interculturalidad crítica como herramienta para la construcción de otro(s) mundo(s) más justo y digno", <http://hellem.org.mx>
- Prada, Raúl(2011). "El vivir bien como alternativa civilizatoria: Modelo de Estado y modelo económico", Lang Miriam y Dunia Mokrani(ed.), *Más allá del desarrollo*, Quito: Abya-Ya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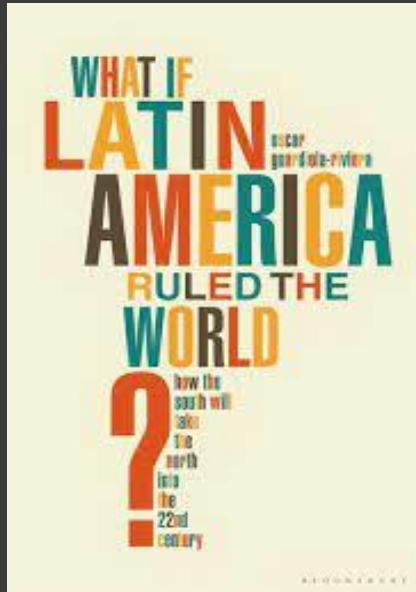
# ‘실패’의 정치학: 라틴아메리카니즘의 현재와 영화 <승리호>

박정원  
(경희대학교)

## Latinameric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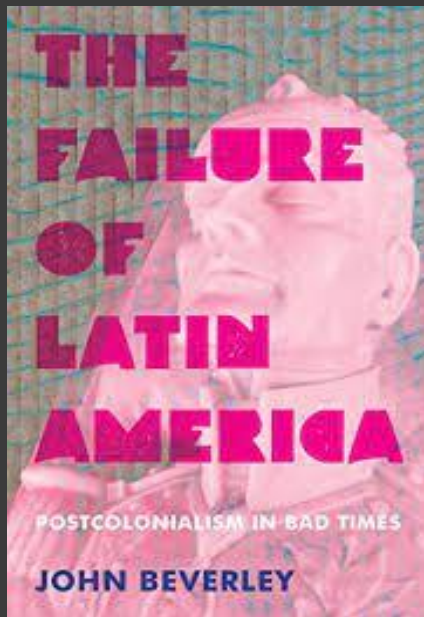
- 1990년대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학계에서 시작된 용어
- Edward Said의 ‘Orientalism’과 ‘Occidentalsim’ 모두에 대한 비판적 독해
-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적 근대 혹은 탈근대의 이론적 탐색
- Enrique Dussel, Walter Dignolo 등의 대표적 연구자
- 탈식민주의, 서발턴 연구와 연계
- 2000년대 초반 한국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도 적극적 수용 및 논의: 김은중, 이성훈, 우석균 등

2010년



*What If Latin America Ruled the World? How the South Will Take the North into the 22<sup>nd</sup> Century*  
(2010) by Oscar Guardiola-Rivera

2019년



<The Failure of Latin America:  
Postcolonialism in Bad Times>  
(2019) by John Beverley

## 라틴아메리카의 ‘실패’

- 중국과 인도: 신흥국가로서 중국 및 인도와 유사한 위상
- 20세기 들어서면서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
- 반면,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위기 가속화
- 근대성(modernity) 및 문명(civilization) 차원에서 접근

“I do not favor the increasingly fashionable abandonment of Latinamericanism in the academy. Will it come to pass? To speak of ebb and flow is to recognize that there is no permanance, except the permanant pressure of inequality itself. **Latin American modernity may have failed, but in its failure (because of its failure?) it retains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modernity, not so bound to the domination of global capitalism as China and India. Latin America’s failure is Latin America’s *difference*.**

Beverley (2019, xviii)

≡ 매일경제

뉴스 오리콘 연예 스포츠 증권 부동산

경제 기업 사회 국제 부동산 증권 정치 IT과학 문화 기록연재 Special Edition 인기뉴스 임포워드 오



## 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서 선진국으로 변경

인형통 기자 입력 : 2021.07.04 17:51:46 수정 : 2021.07.04 17:56:53 1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간)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1964년 설립된 UNCTAD가 특정국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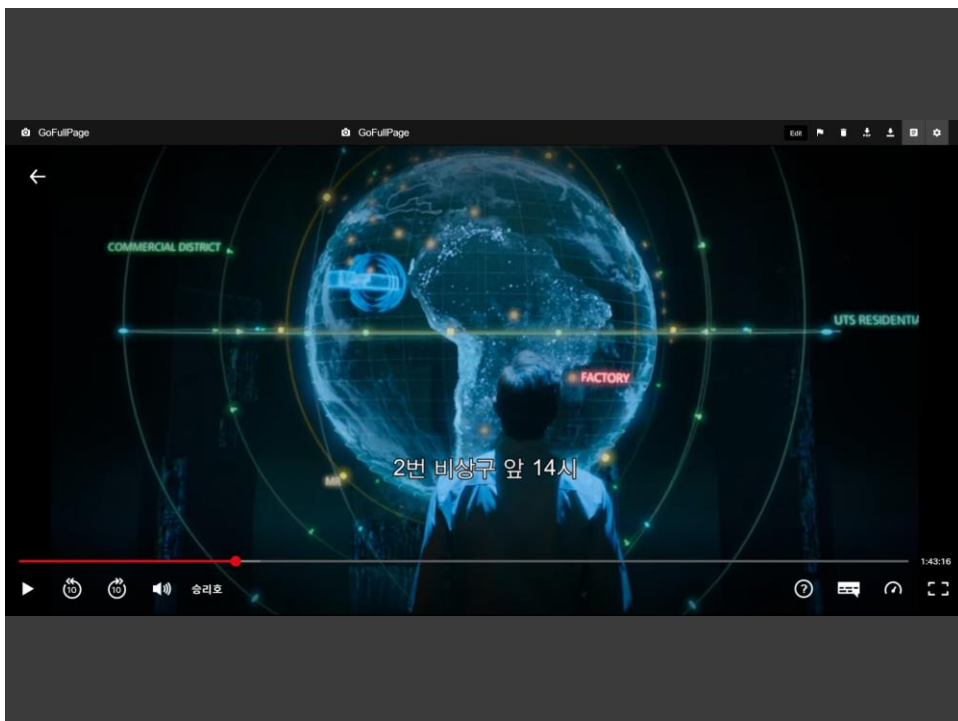
한국 선진국 지위 공식 인정  
<2021년 7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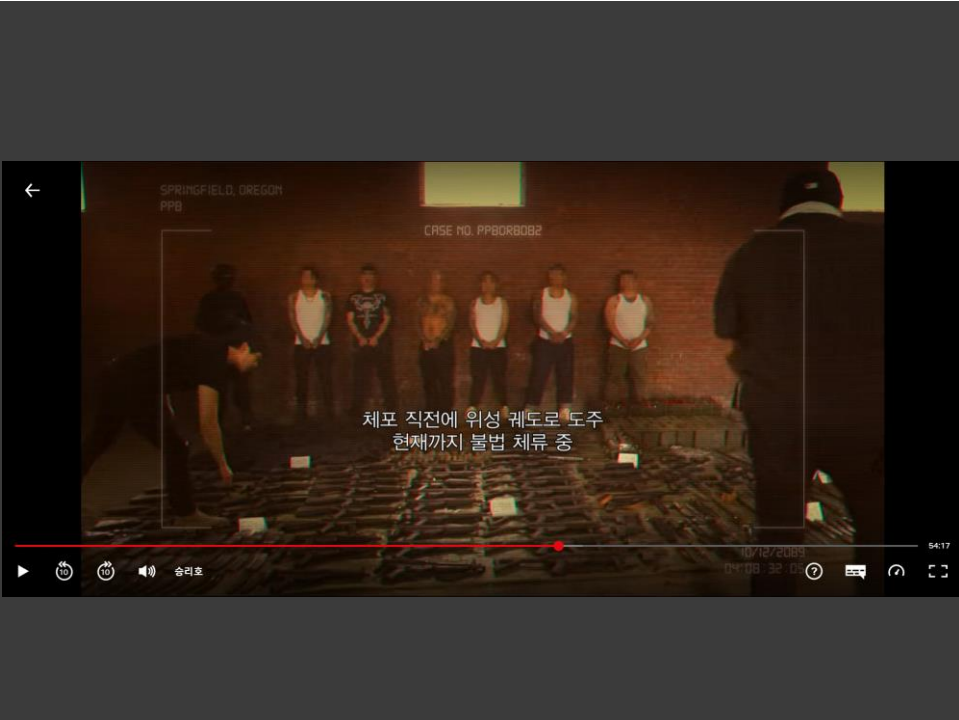
##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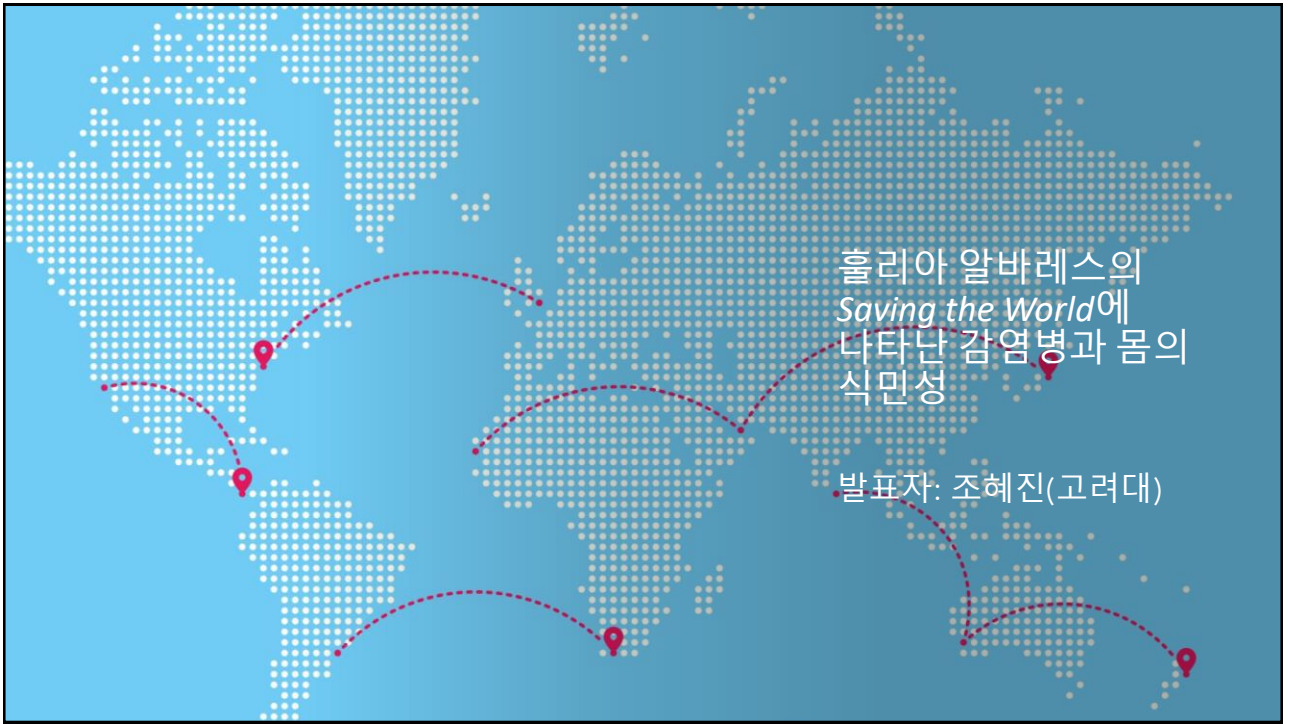
- “Locus of enunciation”
- 과거 소위 ‘제3세계’, ‘주변부’, ‘the Global South’
- 한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문화적 위치의 변화
- 현재 :



<승리호 (Space Sweepers)>  
2021년 NEFLIX 개봉







## Julia Alvarez(1950~)

- 도미니카공화국계 미국 시인(뉴욕 출생), 소설가, 수필가, 사회적 기업가, 활동가.
- 뉴욕에서 출생한 후 곧 부모의 고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와 어린 시절을 보냄.
- 홀리아의 아버지가 트루히요(Trujillo) 독재정권 전복에 가담한 후 1960년 미국으로 망명.
- 작품 대다수에서 경계적 정체성을 다룸: 한 가족이라도 이민의 고충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겪는 것에 관심, 다양한 이주 경험, 어떤 여성이 될지에 대한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성장하는 여자아이의 경험 등을 다룸.

## Julia Alvarez(1950~)

- '알타 그라시아(Alta Gracia)'라는 유기농 커피 농장-문맹퇴치 예술센터 (literacy arts center) 창설: 지속가능한 환경, 문맹퇴치, 교육 관련 활동에 집중.
- 'Border of Lights'의 공동 창립자 겸 의장: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 간의 평화와 연대 증진.

## *Saving the World*(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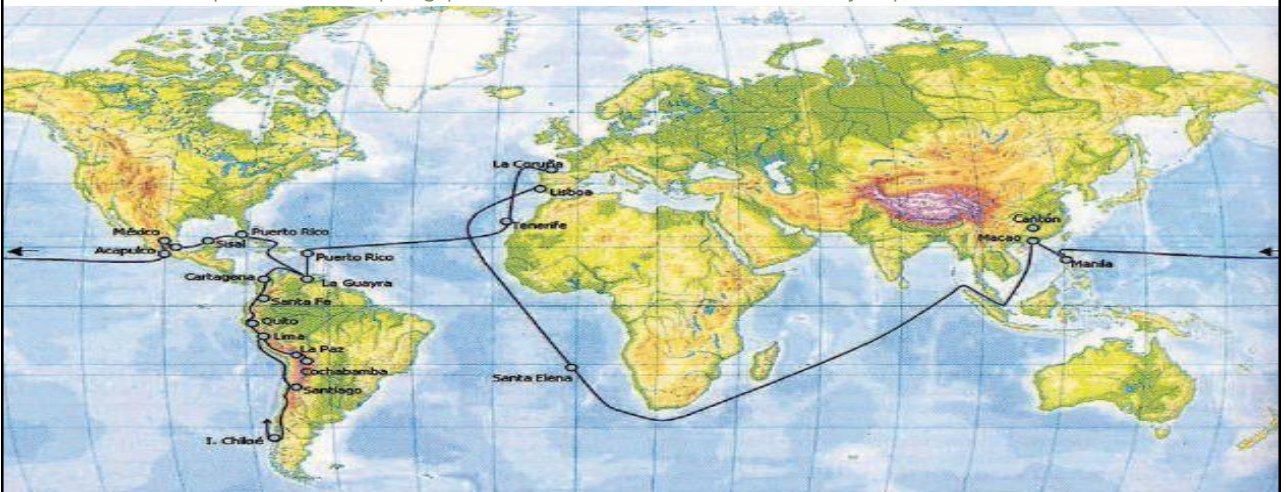
- 감염병과 관련된 두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 홀수 챕터: 소설가 Alma의 이야기 - 21세기 미국에 거주하지만 마음의 고향은 도미니카공화국. 차기작 집필을 위해 Francisco Xavier Balmis의 천연두 백신 원정을 조사. 남편의 옛 애인이 AIDS에 걸렸다면서 전화를 걸.
- 짝수 챕터: 고아원장 Isabel의 이야기 - 19세기 초 천연두 백신 매개체/보균자인 아이들을 데리고 스페인령 아메리카, 필리핀 등으로 가는 발미스의 원정에 동참.

## La Real Expedición Filantrópica de la Vacuna

- 스페인 출신 군인이자 의사인 발미스는 스페인령 식민지를 4번 여행하면서 천연두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은 많은 원주민들을 보았음 – 유럽에서 천연두로 죽어가는 것보다 ‘신세계’의 원주민이 더욱 고통받았고, 발미스는 인간을 치료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어서 무기력함을 느낌.
- 9세 미만의 고아 22명을 선발해 아이들의 몸을 천연두 백신 보급체처럼 활용하며 항해.
- 항해 경로: 스페인—멕시코—필리핀—중국—희망봉—세인트헬레나 섬

## La Real Expedición Filantrópica de la Vacuna

- 출처: <https://vacunasaeop.org/profesionales/noticias/isabel-zendal-y-expedicion-balmis>



## 생명을 대하는 권력의 태도에 문제제기

- *Saving the World* 곳곳에는 빈곤하고 의지할 곳 없는 계층일수록 국가/제도 권력에 의해 이용되고 희생되는 것을 비판.
- “그보다 더욱 자주 우리는 (장성해서 고아원을 나간 이들이) 신병으로 해군에 입대했다는 것과, 그들이 수장(水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난한 이들과 무력한 이들은 너무나 자주 우리 왕들의 전쟁을 위해 이용되었다.” (28쪽)

## 생명을 대하는 권력의 태도에 문제제기

- “치명적인 질병, 점점 확산되는 감염병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겠다는 지극히 선한 의도에서 구상되었지만 그 수단, 즉 고아를 백신의 보균자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적이지 않은가?” (23쪽)
- “확실히, 가엾은 고아들은 백신에 대한 선견지명에만 쓸모 있는 존재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그들 덕분에 세계는 일종의 구원을 받았고, 더 큰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소년들은 고아원에 사는 사생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곳으로 갈 기회를 부여받았다. (18쪽)

## 생명을 대하는 권력의 태도에 문제제기

- 생명관리정치: 미셸 푸코는 19세기 이후 근대 정치의 근본 특성이 국민의 생명 관리에 있다고 설파함.
- 근대 국가에서는 법률 시행과 경제 운영 못지않게 인구를 관리하는 문제, 즉 국민의 생명을 보살피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 - 빈곤 계층일수록 자신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보장받기 위해 점점 더 권력/정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죽게 내버려둘지 통치 권력이 결정.

## HIV/AIDS에 감염된 사람들

- AIDS에 걸린 여인이 주인공 Alma에게 경고성 전화를 걸.
- “나는 덕의 옛 애인이예요. (중략) 지금 모든 아내들에게 전화를 거는 중이에요. 나는 남자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아요. 그들은 당신에게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중략) 나는 단지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알도록 전화하는 거예요. AIDS는 마지막 단계예요. 아마 한동안은 HIV 단계에 있었겠지만 건강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기까지는 (면역바이러스 관련 질병에 걸린 걸) 몰랐죠.” (7-8쪽)

## HIV/AIDS에 감염된 사람들

- 알마는 차츰 전화를 건 여자뿐만 아니라 도미니카공화국의 많은 사람들이 AIDS에 감염된 이유를 이해하게 됨(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제1세계 관광객들의 섹스 관광 때문).
- 방탕하거나 일탈적인 성 행위를 한 개인에 의해 유발된 개인적 층위에서의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층위에서의 감염병.
- 실제 카리브 지역의 HIV/AIDS 감염자는 250,000명 - 이 중 75%가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

## HIV/AIDS에 감염된 사람들

- 도미니카공화국에서의 첫 HIV 사례는 1983년, 첫 AIDS 사례가 보고된 것은 1989년.
- 카리브전염병센터(CAREC)에 따르면, 1982~2005년 HIV/AIDS 감염자 지속적으로 증가(AIDS 30,712건.)
- 범아메리카보건기구(PAHO)에 따르면 1997~2003년에는 매년 평균 447건 증가 - 2003년에는 성인 40명 중 1명은 HIV 양성.
- 수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자 증가: 관광, 특히 섹스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들(Romana and Puerto Plata).

## 결론

- 이 소설은 19세기 초 스페인 제국에 천연두 백신을 전파함으로써 스페인 제국의 신민을 감염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고아소년 원정대와, 21세기 초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군의 섹스 관광으로부터 도미니카공화국 여성들 또는 섹스 관광의 피해자들을 구원하려는 시도를 다룬.
- 두 이야기가 보호하려는 것은 결국 식민화된 몸: 발미스의 여정은 스페인 제국의 신민을, 알마의 여정은 선진국에서 가해지는 섹스 관광의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제국/식민성과 관련된 몸을 구하고자 함.

## References

- Álvarez, Julia (2006), *Saving the World*, Chapel Hill: Algonquin Books.
- Fisher, Jerilyn & Silber, Ellen S.(eds.)(2003), *Women in Literature: Reading through the Lens of Gender*, Westport: Greenwood.
- Martínez, Erika(2016), *Daring to Write: Contemporary Narratives by Dominican Women*,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Trupe, Alice L.(2011), *Reading Julia Alvarez*,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 미셸 푸코(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심세광 옮김), 서울: 난장.
- \_\_\_\_\_(2016),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오토르망 옮김), 서울: 난장.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637397/>

참가 URL: <https://bufs.zoom.us/j/83918170077?pwd=M3NKQnFld2VJbm4yNjRqRVFYa1hMZz09>

| 15:00~16:30 | 2부                                                                                                                                                                                                                                                                                                                                                                                                                                                                                                                           |
|-------------|------------------------------------------------------------------------------------------------------------------------------------------------------------------------------------------------------------------------------------------------------------------------------------------------------------------------------------------------------------------------------------------------------------------------------------------------------------------------------------------------------------------------------|
| 세션4         | <p style="text-align: center;"><u>“라틴아메리카 국토 도시 개발 협력: 이론과 사례 세션”</u></p> <p>[좌 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현(전북대)</li> </ul> <p>[발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지현(부경대) “라틴아메리카 공간 개발과 국제 개발 협력의 거버넌스”</li> <li>• 오인혜(전북대) “멕시코시티 구도심 재개발과 국제 개발 협력”</li> <li>• 노용석(부경대) “국토개발로서의 관광 가치 연계 과정 분석-과테말라 안티구아 사례를 중심으로”</li> <li>• 구경모(부산외대) “냉전에 따른 국토 개발 정책의 전환: 파라과이 동진(東進) 정책 사례”</li> </ul> <p>[토 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유경(전북대), 박윤주(계명대)</li> </ul> |

# 라틴아메리카 공간 개발과 국제 개발 협력 거버넌스

서지현  
부경대학교

\*2021년 7월 16일 LASAK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 연구 배경

### ◆ 개발의 정의

- **개발의 일반적 정의:** '오늘날 "개발"이라는 용어는 경제학, 지리학 지역개발론,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대체로 "국가의 경제 또는 특정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의도된 행위"를 지칭한다' (Chari, 2009, 박경환·윤희주, 2015: 21에서 재인용).
- **개발 의미의 확장:** 다층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발 의미의 확장 – 사회학자 Jan Pieterse(2001)에 따르면 개발은 "미리 설정해 둔 어느 정도의 개량(개선)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개입"으로 개발이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 그리고 "집단적"인 권력 관계는 어떠한가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정치를 포괄하고 있다' (박경환·윤희주, 2015: 21).

## ◆ 국제 개발 협력과 21세기 국제 개발 협력의 전환의 필요성

■ **20세기 국제 개발 협력의 한계:** 2차 세계 대전 이후 북반구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가 본격화된 지 약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히려 상당수의 인구가 기아, 빈곤,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박민철, 2018).

- 원조 공여 주체 중심의 개발 협력
- 단기적 성과를 위해 수원국의 현실을 경제 지표로 단순화
- 개발 협력 성과 및 효과의 일반화

## ■ 21세기 다중 복합적 위기와 전환의 필요성

- 더욱이 21세기 들어서면서 인류는 자연재해, 에너지 및 식량 위기, 기후 변화, 전염병 확산 등의 다중 복합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초국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또한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 정치,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 국토·도시 분야의 개발 협력 또한 예외가 아니다.

## 연구 목적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먼저 역사적 흐름에 따라 개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본다.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개발을 추동하는 주체와 개발의 목표 및 의미 변화, 주요 개발 이론** 등에 대해 살펴본다.
- ② 역사적 흐름에 따라 **국제 개발 협력 모델**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③ **라틴아메리카 공간 개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공간 개발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 뒤, **국제 개발 협력의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 1.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주요 개발 이론

◆ 시기별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 ① 국가 주도 개발 패러다임: 1945-1970's
- ② 글로벌화 개발 패러다임: 1980's- 1990's
- ③ 지속 가능한 개발 패러다임: 21세기

◆ **포스트 개발론 (혹은 탈발전론)**

- "개발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개발담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개발을 성장과 발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 의 한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용균, 2015: 138).
- 포스트 개발론자들은 "개발에 내재한 역사·지리적 의미를 밝히는데 관심을 가지며, 내생적 개발을 지향하고, 개발에 내재한 권력관계의 파급효과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 (위의 글).

- **포스트 개발론 부상의 배경:** "특히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의 효과가 많은 생태·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다양한 사회 운동의 저항에 봉착하였고 "지역문화와 환경을 파괴하는 유럽중심적인 개념에 대한 반발과 성찰의 분위기는 포괄적인 차원의 포스트개발론적 담론을 형성시켰다 " (박민철, 2018: 43).

▪ **포스트 개발론의 핵심 주장:**

- 개발이 많은 개발도상국가와 국민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이지만 "성장, 진보, 그리고 도구적 합리성을 포함하는 개발의 핵심적 가정에 대해 급진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서구 사회의 근대화에 기여한 보편적 경험을 일반화한 나머지 제3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부정한다는 것 " 이 포스트 개발론자들의 핵심 주장이다 (박민철, 2018: 43).

- "유일한 수단으로써의 보편적인 개발이라는 전제를 거부하고 **상호 유기적인 자연과 다양한 사회적 교류의 번성을 통한 지속성을 요구한다**" (박민철, 2018: 44).
- 또한 포스트 개발론은 "효율성을 앞세운 성장 중심적 개발을 거부함과 동시에 내생적인 발전을 강조한다" (위의 글).

## 2. 국제 개발 협력 모델의 변화와 특징

### ▪ 개발 협력 모델의 변화

| 1945-1960's                                                                                             | 1970's ~                                                                                                                                              | 1980's-1990's                         | 21세기                                                                                                   |
|---------------------------------------------------------------------------------------------------------|-------------------------------------------------------------------------------------------------------------------------------------------------------|---------------------------------------|--------------------------------------------------------------------------------------------------------|
| 해외원조에서<br>국제 수준의 개발협력<br>으로                                                                             | 원조 피로<br>원조 효율<br>성 강조                                                                                                                                | 전지구적 과제의 부상과<br>국제개발<br>협력의 필요성<br>증가 | 국제적인 아젠다와<br>국제개발 협력<br>: MDGs, SDG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각국 개발청이 주도<br/>하는 양자 원조</li><li>• 국제개발 기구와<br/>다자간 원조</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970년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함<br/>께, 1980년대 전반적으로 원조 감소</li><li>• 시장 중심의 개발과 원조 효율성 강조</li><li>• 개발 NGOs의 부상</li></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범분야적 주제 강조</li><li>• 총체적 접근과 개발<br/>효과성 고려의 필요<br/>성</li></ul> |

###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의 맥락에서 21세기 국제 개발 협력의 과제

- "포스트 개발 이론은 (...) 반드시 서구 중심의 개발을 부정하기보다는 현지의 여건에 부합하는 만큼 다양한 개발이 정의될 수 있어야 함"을 힘주어 주장했다 (Ziai 2004, 연경심, 2020: 323에서 재인용).
- 이는 "공여국과 협력국이 동등한 관계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교환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정형화된 형태의 개발을 거부하고,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따른 다양한 형태와 현지어로 표현되는 비정형화된 모형과 기능"의 모습을 강조한다 (연경심, 2020: 323).

- 요약하면, **포스트 개발론의 관점에서 개발 협력**은 “공권력, 엘리트, 기타 전문가들보다는 개발의 수혜자들, 참여자들, 사회적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과 **범위에서 결정** ” 되어, 그 **개발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Ferguson, 1994: 50, 연경심, 2020: 324에서 재인용).

### 3. 라틴아메리카 발전과 공간 개발의 특성

| 불균등 사회 공간의 발전 | 국토 개발             | 도시 개발             |
|---------------|-------------------|-------------------|
| 근대화 발전        | 농촌 개발,<br>인프라 건설  | 근대화와 도시화          |
| 세계화 발전        | 지역 균형 발전          | 세계화와 글로벌 도시       |
| 지속 가능한 발전     | 환경, 공동체 친화적 국토 개발 | 지속 가능한 도시와 포용적 도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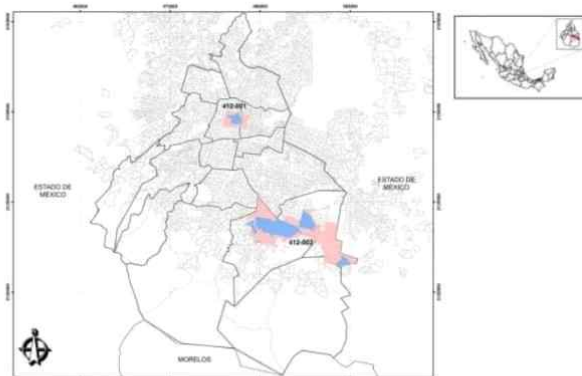
## 참고 문헌

- 박경환, 윤희주 (2015), '개발 지리학과 국제개발협력(IDC)의 부상',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19-43.
- 박민철 (2018), '한국의 개발협력사업과 포스트개발론적 접근: 탄자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10(1): 39-67.
- 연경심 (2020), '포스트 개발 이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아세안 지역 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27(1): 317-347.
- 이용균 (2015), '서구 중심적 개발담론의 재해석과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미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137-152.
- 장효진 외 (2015), '개발효과성 관점에서 개발협력사업 평가체계의 분석: 독일·영국·한국의 개발협력사업 평가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3): 61-94.

# “멕시코시티 구도심 재개발과 국제 개발 협력”

오인혜 (전북대학교)

## Anteceden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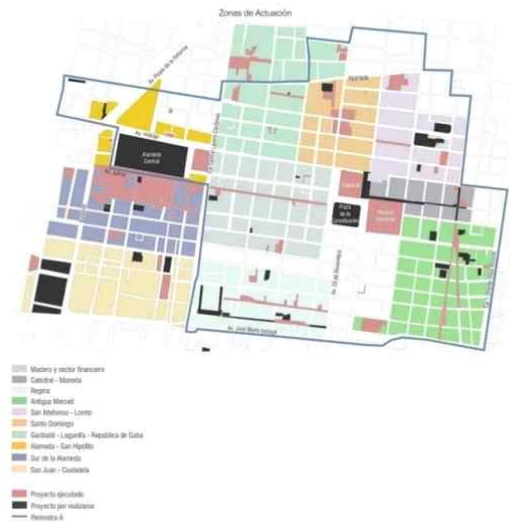
출처: Plan integral de Manejo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2017-2022 p.19

- 멕시코시티 Ciudad de México
  - 아스텍제국과 멕시코 두 나라의 수도
  - 행정적, 문화적, 경제적, 도시적 복합성이 존재하는 공간
  - 1928년 연방구역(Distrito Federal)으로 설정 → 2017년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로 변경

## ■ 멕시코 시티 역사 지구

Centro histórico de Ciudad de México

- 콰우테묵(Cuauhtemoc), 베누스티아노 카란사(Venustiano Carranza) 행정구에 걸쳐 있는 역사, 문화, 상업의 중심지역
- 1980년 4월 1일 지정
- 기념물 및 고고학, 예술 및 역사 지역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sobre Monumentos y Zonas arqueológicas, Artísticas e Históricas)에 의거하여 기존 Zona de Monumentos Históricos를 역사지구(Centro Histórico)로 지정
- 면적: 9.1km<sup>2</sup> (10.2km<sup>2</sup>)



출처: Plan integral de Manejo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2011-2016 p.26

-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 멕시코 근현대사의 역사적 장소
- 1950년대 이후
  - 도심 기능 축소 및 비활성화
  - 멕시코시티 외부로의 확장의 전개
- 구역 계획 및 개발의 중요 계기
  - 멕시코 올림픽의 개최 (1968년)
  - Templo Mayor 발굴 (1978년)
  - 멕시코시티 대지진 (1985년 9월 19일)

아스텍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

스페인 식민시기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중심부

포르피리아토, 주요 건물들의 건축

멕시코 혁명의 영향

1950s



멕시코 올림픽의 개최 (1968년)

템플로 마요르 발굴 (197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 (1987년)

- 
- 도심 내 문화유산의 손상에 따른 적절한 보전 관리 계획 수립의 필요성 ↑
  - 역사적 공간(유적지)과 상업공간의 공존 및 충돌의 공간  
→ 재활성화의 필요성 ↑



---

-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개발의 위한 노력

- 관련 기구들의 설립

1990 Fideicomiso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2001 Consejo Consultivo Ciudadano Autoridad del Centro Histórico

2007 Autoridad del Centro Histórico (ACH)

---

---

## ■ 멕시코 도시 개발의 한계점

- 통합적 계획의 부재 및 거버넌스의 부족
    - 멕시코시티정부와 멕시코 주 정부, 관련 부처 등 다양한 개발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존재
    - 멕시코시티 수도권의 통합적 관리 체계 및 주체의 부재
  - 법적, 제도적 지원의 부족
    - 1977년 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설립, 국가경제프로그램의 지역적 확대
    - 인프라 및 공간계획, 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시 정부에 한정 (헌법 155조)
    - 헌법으로 중간단계의 정부 출범의 금지
  - 자원 조달 방안의 부족
    - 수도권의 통합적 관리 체계 및 주체의 부재로 인한 도시 인프라 및 사회기초 서비스 건설, 관리 및 사용비용지불에 대한 시정부와 주정부간의 갈등
    - 멕시코시티 자체 예산 체계의 한계
- 

---

## Estudio de Caso

### ■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재생 계획 2011-2016

Plan integral de Manejo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 도시재생프로젝트
  - 멕시코 시티 역사지구의 문화, 경제, 거주, 교통 등 전반에 대한 개발 계획
  - 목적
    - 도시, 사회, 경제적 균형 회복
    - 도시 시스템 효율성의 구축 및 부지 가치의 지속
    - 다양한 개발관련 액터들의 참여 메커니즘의 형성
    - 문화적 가치의 보존과 향상
    - 지역의 발전을 위한 향후 지속적인 계획 수립
    -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

---

#### ■ 등장배경

- 역사지구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의 획득을 위한 종합 관리 계획의 필요성이 부각
- 2008년 유네스코와의 합의 하에 계획을 수립



#### ■ 첫번째 통합적 계획의 제시

‘Plan Integral de Manejo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2011-2016’



‘Plan Integral de Manejo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2017-2022’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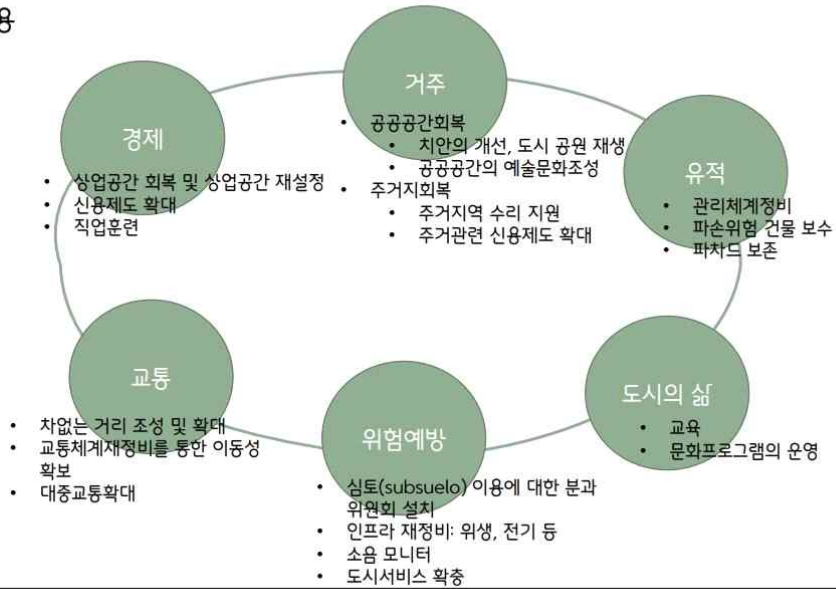
---

---

#### ■ 참여기관

- 농업 및 국토 개발부 (SEDATU: Secretaría de Desarrollo Agrario, Territorial y Urbano)
  - 국립 인류학 및 역사 연구소 (INAH: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
  - 국립 미술 연구소 (INBA: Instituto Nacional de Bellas Artes)
  - 멕시코 도시주택개발부 (SEDUVI: Secretaría de Desarrollo Urbano y Vivienda)
  - 멕시코 관광부 (SECTUR: Secretaría de Turismo)
  - 멕시코시정부 (Gobierno de la CDMX)
    - 건설 및 서비스 부 (Secretaría de obras y servicios)
    - 도시 개발 및 주택 부 (Secretaría de Desarrollo Urbano y Vivienda)
  - 멕시코시티 역사지구기구 (ACH: Autoridad del Centro Histórico)
  - FCHCM: Fideicomiso Centro Histórico de la Ciudad de México
  - UNESCO
-

■ 주요내용



- 해당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을 극복하였는가?
- 전통적인 도심의 중심이 기존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가?
- 문화, 상업, 거주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의 개발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는가?

## ■ 평가

- 멕시코시티 역사지구기구 (ACH)가 중요 역할을 수행
- 여러 프로젝트들 및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계와 관리를 통한 통합적 의견의 수렴을 가능케함



## 참고문헌

- 정일호 외 (2014). 개발도상국 국토분야 계획 수립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중남미 3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을 중심으로-. 경기: 국토연구원
- 이소영 외 (2016 ). 중남미 도시화 특성 분석에 따른 한-중남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경기:국토연구원
- Autoridad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iudad de México(2011) Plan integral de Manejo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2011-2016. México: Gobierno del Distrito Federal.
- Autoridad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iudad de México(2014). Reporte Autoridad del Centro Histórico 2007-2014. México: Gobierno del Distrito Federal.
- Autoridad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iudad de México(2018)Plan integral de Manejo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2017-2022. México: Gobierno del Distrito Federal.
- García, E.R (2017). La reforma política de la ciudad de México. Revista Mexicana de Derecho Constitucional. 36:243-270
- Giglia (2013). Entre el bien común y la ciudad inculcar: la renovación urbana en la Ciudad de México. Alteridades 23(46): 27-38
- Hernández C. (2012)El proyecto Alameda. Ciudades 95: 32-38
- Ñ.A (2013). Plan de manejo y conservación del parque urbano Alameda Central
- 웹사이트
  -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https://whc.unesco.org/>
  - Autoridad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iudad de México <https://www.autoridadcentrohistorico.cdmx.gob.mx/>
  - Gaceta Oficial - CDMX <https://www.consejeria.cdmx.gob.mx/gaceta-oficial>
  - SEDUVI Programas Parciales de Desarrollo Urbano (PPDU) <https://www.seduvi.cdmx.gob.mx/programas/programa/programas-parciales-de-desarrollo-urbano-ppdu>
  - SEDUVI Programa General de Desarrollo Urbano <https://www.seduvi.cdmx.gob.mx/programas/programa/programa-general-de-desarrollo-urbano>

## 과테말라 국토개발과 관광가치의 연계성 분석

- 과테말라 안티구아 사례를 중심으로 -

노용석(부경대학교)

### 1. 과테말라의 역사 개요

- 과테말라에서 본격적인 근대국민국가로의 역사는 1838년 중미연합주(Provincias Unidas del Centro de América)가 붕괴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세기 중미에서 가장 패권적 국가로 인식되던 과테말라는 중미연합주의 붕괴 이후 약 80여 년 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자들 간의 계속된 투쟁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근대국가의 틀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과테말라를 통치하였던 주요 지도자였던 카레라(Rafael Carrera, 1838-1865년 집권)와 바리오스(Justo Rufino Barrios, 1873-1885년 집권), 카브레라(Manuel Estrada Cabrera, 1896-1920년 집권), 우비코(Jorge Ubico, 1931-1944년 집권) 등은 각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명분 속에 양분되어 있었으나, 정치적으로 독재체제를 공고화하는 한편 대외종속적 경제체제를 과테말라에 뿌리내리는 데는 동일한 역할을 하였다. 유나이티드 푸르트 컴퍼니(United Fruit Company)와 우비코 정권이 단행했던 일련의 친미정책은 1944년까지 과테말라 정치의 일반적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 1944년 우비코가 장기집권 및 부정부패와 연관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과테말라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 변화는 국가의 변혁을 염원하는 대학생들과 개혁적 청년 군인들로 구성된 ‘중산계급’이 주도하였으며, 1944년 과테말라 역사상 최초의 자유 공정선거를 가능하게 하여 개혁자인 아레발로(Juan José Arévalo)가 대통령에 즉위하게 된다. 스스로를 ‘정신적 사회주의자’(spiritual socialist)로 자칭하며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던 전직 철학 교수 아레발로는 집권 후 토지개혁과 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과테말라에서 근대국민국가가 수립된 이후 최초로 볼 수 있었던 개혁적 시도들이었다. 결국 1945년부터 1950년까지 과테말라에서 도시노동자의 임금은 80% 가량 인상되고 문맹률이 75%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국민들의 질적 삶을 향상시키는 정치실험들이 진행되었다(Foster 2007: 208-209). 이후 1949년에는 아레발로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하였던 아르벤스(Jacobo Arbenz)가 65%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그는 집권 이후 아레발로보다 좀 더 개혁적이면서도 친공산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다. 결국 과테말라는 1945년부터 1954년 아르벤스 집권까지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별’(Grandin 2004: 4)이 될 수 있었다.

- 아레발로 정권부터 과테말라의 뿌리 깊은 과두제(oligarchy) 집단 및 유나이티드 푸르트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일련의 개혁정책들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아르벤스 정권 이후에도 지속된 토지개혁 조치들은 직접적인 거부의 대상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유나이티드 푸르트와 과두제 집단들은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어려움은 냉전(cold war)이라는 요소와 결합되어 미국의 개

1) 예를 들어 아르벤스 정부에 의한 1952년 농지개혁 조치는 223에이커 이상 규모의 불용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서, 식량난이 심각하였던 서부지역부터 시작하려 하였다. 또한 토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소유주에게 공식

입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정부는 유나이티드 프루트가 과테말라에서의 상황을 불평할 때부터 과테말라의 친공산주의적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이러한 우려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져 1954년 과테말라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개입이 단행되었다. 결국 아르벤스 정권은 미국에 의해 축출되었고, 10년 동안 지속된 과테말라의 정치실험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 아르벤스 정권이 축출된 이후 과테말라 사회는 군사정권과 이에 반대하는 좌파 세력 간의 대결로 점철되었다. 냉전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던 군사정권은 좌파 및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고, 이에 알레한드로 온 소사가 1960년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때 봉기세력 중 일부가 산으로 피신한 후 본격적인 게릴라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1962년 창설된 FAR(Fuerzas Armadas Rebeldes)의 전신이다. 이후로도 과테말라에서는 1966년 몬테네그로 정권의 광폭적인 탄압에 맞서 몇 개의 무장 게릴라 조직이 추가로 조직되는데, 1971년 창설된 ORPA(Organización del Pueblo en Armas)와 1972년 창설된 EGP(Ejército Guerrillero de los Pobres)가 그것들이다<sup>2)</sup>. 이들은 주로 소련과 쿠바로부터 무기 지원 등을 받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군부와 대립하였다.

- 이에 과테말라 군부는 무장 게릴라 세력을 섬멸한다는 목표 하에 수많은 군사작전을 수행하였는데, 'Plan Campaña Victoria 82', 'Operación Sofía 82', 'Plan Firmeza 83' 과 같은 작전명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진행된 것들이었다. 이 군사작전들의 대부분은 루카스 가르시아(Romero Lucas García) 퇴임 이후 리오스 몬트가 권력을 잡고 있던 1982년부터 1983년 사이에 실행되었으며, 무장 게릴라와 그 동조자를 섬멸한다는 미명하에 대다수 마야 원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졌다. 엠네스티는 1982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약 10,000명이 넘는 과테말라 원주민 및 농민이 정부군에 의해 살해되었고, 리오스 몬트 정권 당시 매달 약 3,000명 이상의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 2. 과테말라 국토개발의 역사와 배경

- 과테말라에서 국토를 개발한다는 역사적 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시기에 행해졌다. 첫 번째는 스페인 식민시기이며, 식민지 정부에 의해 어떠한 작물이 재배될 것이고, 식민통치를 위한 기본 계획에 근거해 실시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세기 중반 자유주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었다. 1870년대 이후 과테말라는 커피의 도입과 함께 국토 및 농업구조의 변화를 맞게 된다. 이 시기에는 국토개발 및 영토소유와 관련한 새로운 법적 메커니즘이 수용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식민지 시기에 가지고 있던 공동체적 토지 이용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사적 자본 위주의 토지 운용이 시작되었다. 이후 아레발로와 아르벤스가 정권을 잡았던 1950년대 토지개혁법이 통과(1952년)했으며, 이 법을 통해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봉건적 재산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고 새로운 형식의 자본주의적 농업생산 방법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

적으로 인정된 부동산 감정가격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상 토지의 대지주였던 유나이티드 프루트는 이전부터 세금을 인하받기 위해 토지 공시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놓은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농지개혁이 진행되면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2) 위의 3개 게릴라 조직은 1982년 'Partido Guatemalteco del Trabajo(PGT)'과 연합하여 URNG를 결성하게 된다.

- 과테말라에서 농촌과 도시의 인구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70년대를 거치면서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테말라는 1960년대부터 내전상태에 돌입하게 되었고, 내전을 겪으면서 많은 농민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특히 내전을 통한 갈등이 심했던 북부와 북서부 지역에서의 도시화 비율이 최대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바하 베라파스와 알타 베라파스, 우에우에테낭고, 키체 등의 지역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도시-농촌 인구 비율이 변화한 것은 1976년 발생했던 대규모 지진을 통해서였다.

- 과테말라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은 새로운 거대 도시가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원래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작은 집단들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 3. 과테말라 주요 국토개발 프로젝트

과테말라의 국토개발 프로젝트는 몇 개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El Plan Nacional de Inovación y Desarrollo

- 현재 과테말라의 정권인 히아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대통령 정부의 일반적 국토개발 정책은 “el Plan Nacional de Inovación y Desarrollo”(PLANID)에 개념화되어있다. 이 정책에서 표방하고 있는 3개의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경제 경쟁력 강화와 번영: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3가지 생산 영역을 과테말라 정부에서 인정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수출이다. 전통적으로 과테말라의 수출은 섬유와 과일, 옷 등이었는데, 과테말라 중앙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품은 바나나, 커피, 설탕, 원유, 양하(藺荷, cardamomo)였다. 과테말라 정부는 이 품목들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고자 한다. 두 번째 영역은 작고 건실한 중소기업 운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테말라 정부는 많은 기업들을 국가 내부의 공식적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 영역은 지속가능한 관광이다. 과테말라는 대외적으로 항상 치안이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한 것으로 보였는데, 관광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관광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 사회적 발전: ‘빈곤과의 전쟁’은 아직까지 충분히 실행되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테말라 정부는 사회보조금 등의 사회복지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과테말라 정부는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함. 과테말라에는 모두 25개의 언어군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15%의 인구가 마야 언어군에 속해 있다. 이들은 마야 언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스페인어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원주민과 여성, 초등교육 미이수자에서 문맹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 영양공급의 부족이 발생.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영역주의 하나는 공중보건 영역이다. 병원시설이나 국민당 의료

진 숫자는 상당히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체 의료진의 73%가 과테말라시(수도) 인근에 집중되어 있고, 의사 1명당 국민의 수는 11,489명이다(선진국의 경우 의사 1명당 국민의 수는 348명)

○ 사회안전

과테말라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사회안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죄를 감소시키고, 폭력예방과 공동재산을 지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2) K'atun Nuestra Guatemala 2032

- El 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 y Rural(이하 CONADUR)은 '국가개발협의회'(Sistema Nacional de Consejos del Desarrollo)에 소속된 국가자문위원회로서 다양한 민족성(마야와 크리오요 등)과 언어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테말라의 민주적 국토개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CONADUR는 국가차원의 조정기관으로서 농촌개발 정책 및 토지 이용계획 등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분권화를 추진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각종 개발 정책 및 계획을 공식화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향후 이 계획들의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CONADUR 개발 체계는 하부의 다양한 의견을 상부로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까툰(K'atun) 우리의 과테말라 2032 프로젝트: 까툰 2032는 CONADUR에서 기획한 국토개발 프로젝트이며, 2014년 관련 조약이 통과되었다. 까툰은 마야 월력에서 시간의 단위이며, 현재 계산법으로 7,200일을 의미한다. 이것은 20툰(turn, 1툰은 360일)과 같은 캘린더이며, 7,200일 동안 과테말라 국토개발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 마야의 지배자들은 각 까툰이 시작되고 끝날 때 왕성한 행사를 실시하였다.

- 까툰 프로젝트는 2015년 9월 과테말라가 합의했던 지속가능개발목표(los Objetivos de Desarrollo Sostenible, ODS) 등에 기초해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다.

- 이 모델은 2032년까지 과테말라의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종합개발 계획서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SDGs 환경에 맞는 지속가능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과테말라에서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원주민과 여성, 이민자, 농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이를 통합하는 계획이 있다.

- 까툰의 프레임 워크에서는 과테말라 내 도시 연계(la red urbana) 수립을 위한 도시발전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도시발전 전략은 인구수와 인구밀도, 경제활동인구(EAP), 지역중심지로서의 기능적 역할, 도시화의 정도, 중간도시들의 전략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 시스템의 계층을 제안하고 있다. 1986년부터 여러 지방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해 온 곳은 과테말라 시티, 코반, 사카파, 후트라파, 안티구아 과테말라, 케찰테낭고, 산타크루스 델 키체, 플로레스 등 8 곳이다.

#### 4. 국토개발로서의 관광가치 연계: 안티구아 과테말라 사례를 중심으로

1) 국제적 혹은 중미지역에서 관광산업의 가치(Oddone, Nahuel., E. Alarcón, Pablo. 2016 참조)

- 관광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2013년 1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분야로서, 가장 빠른 시간 내 경제적 이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특히 중미지역에서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관광에 의한 수익은 평균 4% 증가했으며, 과테말라와 파나마는 약 3%의 성장률을 보였다(Oddone, Nahuel., E. Alarcón, Pablo. 2016, 18). 중미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관광산업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 이유는 중미지역에 있는 ‘과거 식민지 유적’, ‘원주민 문화’, ‘자연경관’, ‘생태적 다양성’ 등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멕시코와 페루, 브라질)과 같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미지역 국가의 대부분이 열악한 치안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미지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코스타리카이다.

- 중미지역에서 관광을 통해 재정적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는 국가는 파나마이고, 2위는 코스타리카가 차지하고 있으며 3위에 과테말라가 올라있다. 과테말라의 관광가치가 중미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마야문명 유적인 티칼과 식민지 유산인 안티구아 과테말라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 2) 과테말라 관광산업의 경과

- 1990년 이후 과테말라는 국가 개발을 위해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였다. 과테말라 관광개발 영역은 모두 4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은 공적영역으로서, 대표적인 기관이 INGUAT(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이다. 이 기관은 과테말라 관광의 전체적인 운영을 이끌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사적 영역으로서 동업조합 형식의 CAMTUR(la Cámara de Turismo)이다. 세 번째 영역은 지역공동체(las Comunidades locales)로서, 이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에 대안적 경제로서 관광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영역은 비정부기구와 국제협력기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관광정책으로서, 이것은 CAT(los Comités de Autogestión Turística)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Oddone, Nahuel., E. Alarcón, Pablo. 2016, 23). INGUAT(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에 의하면, 과테말라의 관광객은 2009년 인플루엔자와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 잠시 하강 곡선을 그렸으나, 전반적으로 관광 효과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 INGUAT는 지속가능 관광개발을 촉진하고 형성하는데 있어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테말라 국내조직뿐만 아니라 국제적 연관성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 관광분야는 1996년 과테말라 내전 종식을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되었을 때 ‘평화협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 인정받았고, 이러한 내용은 평화협정 조약 제168조(자연 자원의 개발권 관리)와 170조(재생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의 개발 프로그램)에 기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문자들의 숙소나 식사를 위한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 1999년 el Programa Nacional de Competitividad 제정되었는데, 이 정책은 과테말라 정부가 각 부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6개 주에서 las Agendas Compartidas de Competitividad Turística를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 2000년 INGUAT가 '국가관광전략(la Estrategia Nacional de Turismo)'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국가관광전략에 의거하여 각 지방마다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구들이 만들어졌다(los Comités Locales de Turismo para formular y ejecutar planes turísticos). 이후 INGUAT와 CAMTUR이 '과테말라 관광 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 2004-2014'(la Política Nacional para el Desarrollo Turístico de Guatemala)를 공식적으로 수립하기에 이른다.

- 지역공동체 관광 국가전략은 INGUAT에 의해 2010년부터 강조되었다.

- 과테말라의 핵심 관광자원은 '자연경관(화산과 해변 등)', '22개 원주민과 그들의 삶', '스페인 식민지 이전 고고학 유적지(티칼 등)'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 과테말라의 관광 요소는 다음과 같이 7개 지역으로 나눈다.

○ 근대화된 과테말라와 식민지 유적: 과테말라시티를 중심으로 한 과테말라주 인근의 도시들과 안티구아가 포함된 사카테페케스(Sacatepéquez).

○ Altiplano, 마야문명권: 치말테낭고, 솔로아(Soloá), 토토니카판(Totonicapán) 우에우에테낭고(Huehuetenango), 키체(Quiché), 파나하첼(Panajachel), 치치카스테낭고(Chichicastenango), 산마르코스(San Marcos)의 일부. 마야 문명 원주민 생활을 둘러볼 수 있는 곳.

○ 페텐(Petén), 고대 마야 문명권(티칼): 페텐 주에 위치해 있고, 마야 고고학 유적지가 위치해 있음.

○ 이사발(Izabal): 대서양 방면 해안. 밀림성 자연경관과 백사장, 카리브보다 우월한 초록바다 등의 자연경관.

○ Verapaces: 알타, 바하 베라파스. '자연경관의 천국'

○ 엘 프로그레소, 사카파(Zacapa), 치키물라(Chiquimula), 할라파(Jalapa):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음. 치키물라(Chiquimula)의 에스키푼라(Esquipula)는 상대적으로 멕시코와 중미지역에 종교적인 관광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태평양 방면

- 2012년, la Política Nacional para el Desarrollo Turístico de Guatemala 2012-2022 계획이 승인되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관광이 국가발전의 매개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과테말라의 관광객은 상당수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비율은 약 139.4%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관광객이 줄기 시작했으며, 그 증가율도 12.6%에 그치면서 2008년까지 105%의 관광객 증가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감소세를 이어갔다.

- 사카테페케스의 위치와 현황, 개요, 간략한 역사

- 안티구아 과테말라는 수도 과테말라시티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지역이다. 이곳은 Antigua Guatemala, Ciudad Vieja, Jocotenango, San Catarina Barahona,

San Antonio Aguas Calientes, San Miguel Dueñas, Alotenango 등의 지역과 연계된 광역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안티구아 과테말라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55,383명이 거주하고 있다.

- Consejo Nacional para la Protección de Antigua Guatemala의 설립. Ley de Protección de la Antigua Guatemala를 통해 위원회가 만들어짐.

- 1979년 유네스코에 의해 안티구아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 Antigua Guatemala

- Ciudad Vieja

- Jocotenango

- Pastores

- San Antonio Aguas Calientes

- San Miguel Dueñas

- San Juan Alotenango

- Santa María de Jesús

- Sumpango

#### <참고문헌>

Oddone, Nahuel., E. Alarcón, Pablo. 2016. *Fortalecimiento de la Cadena de Turismo de Antigua Guatemala y de los Municipios Rurales del Departamento de Sacatepéquez*. CEPAL, IFAD.

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 y Rural. 2014. *Plan Nacional de Desarrollo K'atun: Nuestra Guatemala 2032*. Guatemala: Conadur/Segeplán.

Grandin, Greg, 1962. *The Last Colonial Massacre-In Latin America Cold War-*.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 2018. *Plan de Desarrollo Turístico Comunitario(PDTC) para el desarrollo de siete comunidades del municipio de Antigua Guatemala, Sacatepéquez 2019-2022*.

Sanchez Crispin, Álvaro., Mollinedo Beltran, Gerardo., Propin Frejomil, Enrique. 2012. *Estructura territorial del turismo en Guatemala*

# 파라과이 국토개발정책의 전환과 지속

## 횡단 개발에서 종단 개발로

### 1. 파라과이 지리적 특성과 문제점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둘러 쌓인 내륙국
- 대서양 진출 통로: 파라과이강/파라나강
- 식민 시기부터 두 강을 통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아르헨티나)로 물자를 수송함
- 물류 문제는 파라과이의 해묵은 숙제임: 삼국동맹전쟁
- 파라과이강을 기준으로 동서 지역의 개발 편차(기후, 인구, 인프라 등)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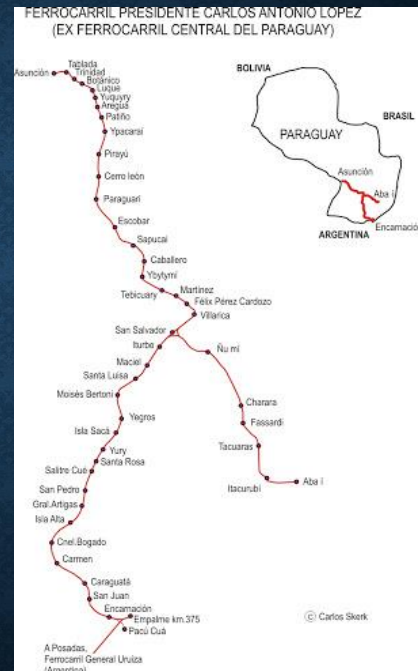


## 2. 냉전과 국토개발의 역사

- 삼국동맹전쟁 이후 파라과이에서는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개 정당이 창당.
- 보수적 성향의 콜로라도당(Partido Colorado), 진보적 성향의 리베랄당(Partido Liberal).
- 냉전 시기 두 정당의 정치적 성향과 대외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구분됨: 콜로라도당(친미, 친브라질), 리베랄당(반미, 친아르헨티나)
- 두 정당의 상반된 외교 관계는 파라과이 국토정책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20세기 초 정권을 잡은 리베랄당은 수도인 아순시온(Asunción)에서 아르헨티나 국경도시인 포사다스(Posadas)를 잇는 철도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외교와 교역을 강화함.
- 냉전과 함께 파라과이는 두 번의 내전(1947년, 1959년)을 거치면서 콜로라도당이 정권을 잡음.
- 20세기 중반 콜로라도당은 미국의 반공주의를 계승하면서 브라질과의 관계를 강화함.
- 그 일환으로 국토개발정책은 철도 중심에서 국도 중심으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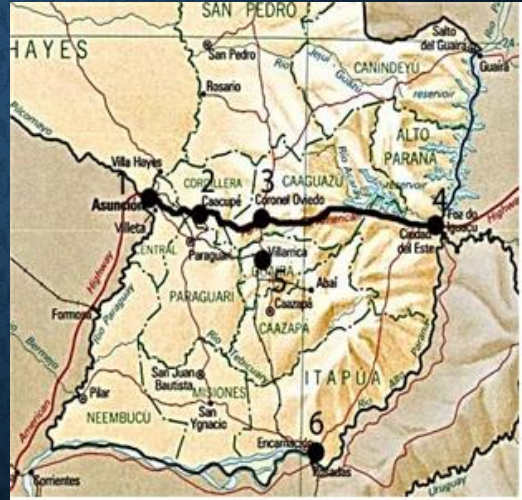
### 1) 친아르헨티나 정책과 철도 개발: '중단 개발'

- 1861년, 철도가 처음 개통: 아순시온에서 루케까지
- 1889년, 비야리카까지 확장
- 아르헨티나와의 교역을 위해 남쪽으로 노선을 연장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연결함.
- 1910년, 아르헨티나의 지원으로 남북을 길게 잇는 '중단 개발'이 시작됨.
- 1913년, 비야리카에서 파라과이 국경도시인 엔카르나시온까지 확장하여 아르헨티나의 국경도시와 연결함
- 당시 주요 수출품은 목재와 마테차, 페티 그라인(petit grain), 탄닌(tanin)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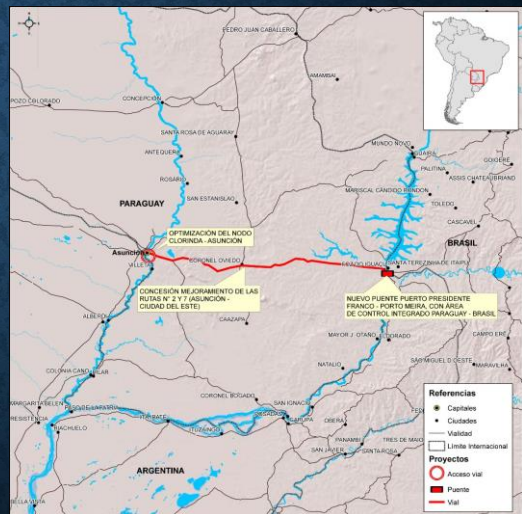
## 2) 친브라질 정책과 국토 개발: ‘횡단 개발’

- 스트로에스네르는 국토 건설을 위해 파라과이-브라질 연합위원회(La Comisión Mixta Paraguay-Brasileña)를 발족.
- 스트로에스네르는 브라질과의 교역을 위한 거점도시인 스트로에스네르 항(Puerto Stroessner), 지금의 시우단 델 에스테를 건설.
- 1961년, 수도부터 국경까지 동·서로 연결하기 위해 ‘코르디예라 국도 계획(Plan Nacional Camino a la Cordillera)’을 수립함.
- 이 계획은 추후에 ‘동진(東進) 정책(Marcha al Este)’으로 이름을 변경함.
- 브라질과 교역을 위한 교량 건설: 우정의 다리(Puente Internacional de la Amistad): 56년 정부 승인, 공사기간(1959년~65년)
- 국도 개발 이후 철도를 기반으로 발달했던 비야리카, 콘셉시온 등 리베랄당의 중심 도시들이 쇠락함.



## 5.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과 횡단 개발의 지속: 사례 1

- 남회귀선 허브: 제 3그룹 아순시온-파라나과
- 파라과이-브라질 교량(통합의 다리, Puente Internacional de la Integración) 건설: 2022년 완공 예정.
- 파라과이의 푸에르토 프레지덴데 프랑코(Puerto Presidente Franco)- 브라질의 포르토 메이라(Porto Meira)를 연결.
- 파라과이 국도 2번과 7번 정비: 브라질(포스 두 이과수)-파라과이(시우단 델 에스테, 아순시온)-아르헨티나(클로린다)
- ITAIPU BINACIONAL과 중남미개발은행(CAF),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자금 지원.



## 6.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과 횡단 개발의 지속: 사례2

- 중부대양간 허브: 제 1그룹 칠레-볼리비아-파라과이-브라질 연결
-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세번째 교량 계획 중: 알토 파라과이의 카르멜로 페랄타 (Carmelo Peralta)와 마토 그로소 도 술의 포르토 무르틴호 (Porto Murtinho)사이의 파라과이강을 연결하는 교량.
- 타당성 조사 완료, 착공 예정



참가 URL: <https://bufs.zoom.us/j/83918170077?pwd=M3NKQnFld2VJbm4yNjRqRVFYa1hMZz09>

| 15:00~16:30 | 2부                                                                                                                                                                                                                                                                                                                                                                                                                                                                                                                                                                                                                        |
|-------------|---------------------------------------------------------------------------------------------------------------------------------------------------------------------------------------------------------------------------------------------------------------------------------------------------------------------------------------------------------------------------------------------------------------------------------------------------------------------------------------------------------------------------------------------------------------------------------------------------------------------------|
| 세션5         | <p style="text-align: center;"><u>“대학원 세션”</u></p> <p>[좌 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석균(서울대)</li> </ul> <p>[발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아령(경희대) “루크레시아 마르텔의 영화 〈사마 ZAMA〉의 하위주체의 시선을 통한 전복적 역사 서술”</li> <li>• 김형중(경희대) “Charly García와 Rock nacional을 통해 살펴본 아르헨티나적 문화횡단(Transculturación)의 가능성-Clics Modernos를 중심으로”</li> <li>• 김지선(경희대) “체제를 흔드는 자연과 여성: 중남미 에코페미니즘 소설로서의 『구조거리(Distancia de rescate)』 연구”</li> <li>• 조은지(경희대) “「경계의 미사」, 멕시코 카우보이의 이주민에 대한 위로와 이질적 도시 티후아나”</li> </ul> <p>[토 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경은(서울대), 박호진(한국외대)</li> </ul> |

## 루크레시아 마르텔의 영화 <사마 ZAMA>의 하위주체의 시선을 통한 전복적 역사 서술

홍아령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 I. 라틴아메리카 식민지 역사의 재구성(창조)

아르헨티나 출신의 영화감독 루크레시아 마르텔의 네 번째 장편 영화인 <사마 ZAMA>(2017)는 아르헨티나 작가 안토니오 디 베네데토(Antonio Di Benedetto)의 소설 『사마 ZAMA』(1956)를 각색한 작품<sup>1)</sup>으로, 영화 및 책의 제목에 드러나 있듯이 크리오요 출신의 지식인으로 파편화된 정체성 속에서 방황하는 ‘사마’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그려내고 있다. 사마는 크리오요 출신의 왕실 대리인이자 라틴아메리카 식민지 변방의 행정관사로 자신의 이중적 출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유럽인으로 인식하며, 스페인(레르마(Lerma))으로의 전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물이다. 그에게 스페인은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스페인이 사마가 회구하는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결정화된 이상적 공간(Eutopia)이자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상적 공간(Utopia)<sup>2)</sup>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근을 위한 계속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중심부에 다다를 수 없었던 그는 점점 더 정신적·물리적 변방으로 물러나게 되며, 결론적으로 사마는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도적 비쿠냐 포르토 생포 탐험에서 반죽음 상태에 이르러 스페인에 도달하지 못한 채, 라틴아메리카의 자연으로 흡수되는 결말을 맞이한다.

영화 <사마>는 루크레시아 마르텔의 영화 세계에서 특이점에 위치해있다. 루크레시아 마르텔은 이전 세 편의 장편 영화 <늪 La ciénaga>(2001), <홀리 걸 La niña santa>(2004), <얼굴 없는 여자 La mujer sin cabeza>(2008)에서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살타(Salta)지방을 배경으로 2000년대 현대 중산층의 고립된(따라서 부패 되어가는) 세계를 다루었다. 하지만 영화 <사마>에서는 18세기 후반 리오 델 라 플라타 부왕령(Virreinato del Río de la Plata)의 북동쪽에 위치한 임의의 공간을 배경으로 서사를 그려냈으며, 현대를 벗어나 식민지 시대라는 과거로의 과감한 전회를 시도한다. 영화는 의복 및 관료제도 등 18

- 1) 감독 루크레시아 마르텔은 한 인터뷰에서 소설의 영화화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히면서, 영화 <사마>는 소설 『사마』를 단순히 각색/번역/해석한 작품이 아니며, 영화와 원작 소설 간의 관계는 ‘전염(infec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대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고대 그리스 문화를 접목 및 변용시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기법을 ‘오염(Contaminatio)’이라고 불렀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고안된 루크레시아 마르텔의 ‘전염’은 원작의 요소들로부터 촉발된 생각과 정서를 통해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Marchini Camia, G., 2018a, p.45). 따라서 본고에서는 감독의 의중을 존중하여 영화 <사마>를 일차 텍스트로 상정하고, 원작 텍스트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보다는 영화 텍스트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영화 <사마>와 소설 『사마』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루시아 곤잘레스(Lucía Gonzales Makowski)의 논문 「Zama y la identidad fragmentada: lectura de una transposición」(2020)과 카를로스 다마스(Carlos Dámaso Martínez)의 논문 「La transposición fílmica de la novela de Di Benedetto Zama por Lucrecia Martel y el debate de la crítica」(2018) 등을 참고하라.
- 2) 본 영화에서 스페인은 상상적 공간으로 제시된다. 사마와 유럽 태생의 루시엥가 부인 간의 대화에서 루시엥가 부인은 유럽을 칭송하는 사마에게 “유럽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유럽을 더 좋게 기억하죠(Recuerda más europa que nunca estuvo)”라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사마가 스페인에 가본 적이 없으며, 사마에게 있어서 스페인은 순전히 상상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영화 속에서 스페인에 있는 그의 아내 마르타와 두 아들은 사진으로도 제시되지 않으며, 아내와 왕실에 보낸 편지에 대하여 그 어떤 답장도 도착하지 않는데, 사마와 스페인을 이어주는 구체적인 매개체의 부재로 인해 사마에게 스페인은 비실제적인 공간으로 남게 된다.

세기 후반의 식민지 시대의 시대적 요소들을 재현함으로써 역사적 독법을 가능하게 하나 영화의 목적은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과거를 재구성하여 대안적 역사(Ucronía)를 창조하는 데 있다. 한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루크레시아 마르텔은 “현재의 요소를 가지고 미래를 그려내는 SF 영화처럼 현재의 요소를 통해 과거를 창조하고자 하였으며”(Marchini, op.cit., p.45)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시간<sup>3)</sup>을 통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존속되어 온 아르헨티나의 유럽 지향적 정체성의 부조리와 하위주체에 대한 억압 구조를 고발한다. 더불어 그녀는 현재와 과거의 하위주체들 간의 공명<sup>4)</sup>을 통하여 이들의 존재와 저항적 수행성을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승리자(백인 지식인 남성)에 의해 써진 식민지 역사를 뒤집고자 한다.

루크레시아 마르텔은 그동안 자신의 출신지로 선주민 문화가 강하게 살아있는 살타지방을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마>에서는 살타지방을 벗어나 현재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파라나 강(Río Paraná) 유역 포르모사(Formosa)주 지역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사마>에서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생략되어있으며 오로지 사마가 전근을 가고자 희망하는 스페인의 도시 레르마(Lerma)만이 구체적인 지역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소 설정과 ‘의도적 생략’이라는 영화적 전략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감독은 권력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인물 사마를 공간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도시보다는 계급 구조가 덜 견고한 주변부 지역을 배경으로 선정함으로써 하위주체들이 행위자로 나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녀는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의 역사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하였으며, 국경지대로 배경을 선정함으로써 영화 <사마>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를 넘어서 주변부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 궁극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현실을 재현 및 재구성하고 있다. 루크레시아 마르텔의 지역명에 대한 의도적 생략은 이전 영화들에서도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그녀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 영화의 서사 및 해석 범위를 확장시킨다.

<사마>에서 카메라의 초점은 중심인물인 사마에게 맞추어져 있으나 루크레시아 마르텔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사마를 둘러싼 세계이다. 그녀는 이전 영화들에서 좁은 시야와 핸드 헬

3) 에드가르도 디엘레케(Edgardo Dieleke)와 알바로 페르난데스 브라보(Alvaro Fernández Bravo)는 영화 <사마>가 현대 예술에서 나타나는 헤테로크로니아적(heterocronía) 시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헤테로크로니아적 시간 기법이란 하나의 이미지 상에 상이한 역사적 시간들을 공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Dieleke & Fernández, 2018, p.2). 헤테로크로니아적 시간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지금 시간(Jetztzeit)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발터 벤야민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며 하나의 성취를 이루는 시간을 가리켜 지금 시간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지금 시간을 통해 현재 세대는 자신들과 동일한 억압 구조에 속해 있었던 과거 세대의 염원을 이뤄줄 수 있는 약한 메시아적 힘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시간은 궁극적으로 역사적 연속체(역사주의/진보 사관의 단선적 시간관)와 이에 기반한 승리자들에 역사를 폭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기예르모 세르베리체(Guillermo Serveriche)는 발터 벤야민과 루크레시아 마르텔의 역사관이 동일선상 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Severiche, 2020, pp.273-274).

4) 일례로 영화상에서 사마의 아이를 낳은 선주민 여성의 팔은 초록색으로 물들어있는데, 초록색은 현재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운동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Dieleke, Alvaro, 2018, p.5) 감독은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남성의 폭력 아래 억압받아온 여성들을 선주민 여성의 몸에 담아내고 있으며, 이들의 저항적 목소리를 선주민 여성의 피부에 새겨놓았다(특히 그녀의 생업이 물고기 비늘을 손질하여 파는 것이며, 사마가 본 영화에서 물고기로 비유된다는 점은 그녀로 하여금 사마(아르헨티나)의 허위의식(유럽 지향적 정체성)과 양면성(식민지 법의 부정당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성과 선주민에 대하여 폭력을 행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더불어 초록색이 자연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선주민 여성의 몸은 라틴아메리카의 자연으로 확장되며, 유럽(남성)에 의해 계속해서 수탈당해온 라틴아메리카 대륙(여성)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드 기법(handheld: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들고 찍는 기법)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변화를 묘사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사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카메라를 고정하는 한편 앵글의 깊이를 더하여(Marchini, 2018b, p. 54) 사마를 둘러싼 하위주체들을 드러낸다. 여기서 하위주체(subaltern)란 라나지트 구하(Ranajit Guha)의 정의에 따라 계급, 출신성분, 나이, 성별, 직업 등의 측면에서 복종(피지배) 상태에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Guha, 1988, p.35). 시선은 주체와 대상을 연결하며 대상에 대한 주체의 욕망과 주체와 대상 간의 권력관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사마와 하위주체에 대한 분석은 감독이 창조한 헤테로크로니아적 세계의 억압 구조 및 억압 구조의 전복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어지는 글에서 필자는 사마의 시선에 담긴 욕망을 분석하는 한편 하위주체의 시선을 통한 권력 구조의 전복 가능성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더불어 감독은 음향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통해 관객의 시선을 하위주체에 맞추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감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바, 관객과 하위주체 간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 II. 사마의 파편화된 정체성과 관음증적 시선

영화는 강가에 서 있는 사마를 비추며 시작된다. 스페인으로 향하는 물길과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마의 모습은 크리오요의 이중적 정체성, 즉 라틴아메리카인이자 스페인인으로서 분열증적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의 위치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라틴아메리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있으나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강 너머 저 먼 곳, 즉 유럽이라는 점이다. 스페인은 아버지의 나라이자 식민 권력의 시작점으로서 상징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다. 사마는 스페인으로부터의 호명(전근 허락)을 통해 상징계 내 온전한 권력 주체로 거듭나고자 하며 자신의 분열된 정체성을 ‘유럽인’으로서 일방향적으로 봉합하고자 한다. 특히 그가 백인 여성을 선호하며, 유럽의 문화를 칭송하는 장면을 통해 그가 추구하는 자기 정체성이 유럽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감독은 이러한 사마의(아르헨티나의) 유럽 지향적 정체성에 대한 도착증적 태도를 비웃고 있다. 그녀는 18세기 후반 식민지 시대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던 프랑스풍의 가발을 영화에 등장시키는데 이 가발은 상류층의 사교 파티나 법정 등에서 사용된다. 감독은 후덥지근한 라틴아메리카의 기후에 맞지 않는 가발을 땀을 흘려가며 고집스럽게 쓰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유럽 지향적 국가 정체성이 아르헨티나에 맞지 않는 옷임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더불어 백발 가발 밑으로 검은 머리카락을 집어넣는 모습은 지역적 요소를 말살시키면서 유럽적 모델에 기반한 근대화를 이루어내고자 하였던 아르헨티나의 이데올로기적 폭력성을 드러내며, 국가적 정체성 문제에 있어 이질성, 혼종(mezcla)을 용납하지 않는 아르헨티나의 독단적인 성격을 폭로한다(Kantor & Kratje, 2017, p.4).

사마는 그의 출신으로 인해 권력 구조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크리오요는 스페인 혈통으로 교육을 받아 공직에 오를 수 있었으나, 스페인 본토 출신인 페닌슐라레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식민지 사회의 수직적 권력 구조 속에서 그들은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사마는 판사로서 지식인 그룹에 속하는데, 앙헬 라마(Ángel Antonio Rama Facal)에 따르면, 식민지 시대 지식인은 문자를 통해 서구 절대왕정의 바로크적(수직적, 중앙집권적) 질서를 식민 사회에 이식함으로써 권력의 주인이자 하수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식민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매개자로서 경계 지대에 놓여 있었다(Rama, 1998, p.17-18).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본국 스페인 법에 따라 선주민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을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모습과 그 아들이 짐승과 유사한 언어와 행

동을 구사하는(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한) 장면을 통해 사마가 권력의 주변부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치에서 크리오요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평등한 지배 체제에 저항하거나 반대로 순응하는 것이다. 두 가지 갈림길에서 사마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체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에 반해 사마의 서기관은 책 집필을 통해 지배 계급에 종속된 위치에서 벗어나 독자적 사유를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감독은 이와 같은 대비를 통하여 18세기 후반 독립을 향한 열망이 피어나던 시기,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만 중시하는 사마의 현실 안주적, 이기적 태도를(사마는 왕실에 자신의 전근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기 위해 서기관이 집필한 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독에게 바친다) 부각함과 동시에 그녀가 이전 영화들에서 비판해왔던 정치(타인)에 무감한 중산층의 기원을 사마로부터 찾고 있다. 더불어 이 두 인물을 통해 권력을 물화시킬 수 있는 도구인 문자를 다룰 수 있으나 명령에서 벗어난 글은 적지 못하여, 지배계층이 만족할만한 글을 써야 하는 식민지 지식인들의 한계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에서 관료들의 책임을 대신하기 위해 무고하게 잡혀 온 선주민 남성은 그들에게 물고기 얘기를 들려준다. 이 이야기는 물고기를 내치려는 물과 그에 맞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더 나아가 강의 중심에 다다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물고기들을 다루고 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카메라는 사마를 비추는데, 감독은 이를 통해 선주민이 사마의 운명을 예언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야기를 통해 사마와 사마를 둘러싼 세계 간의 역학적 관계와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마의 위치를 보여준다. 경계 지대에서 구경꾼(mirón)으로서 두 세계를 엿볼 수밖에 없는 사마는 시선을 통해(시선의 대상인 여성을 통해) 두 세계와 관계하고자 한다. 하지만 두 세계에 동일한 시선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는 사마가 잉태되고 태어나 자란 곳으로 그에게 어머니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감독은 선주민에게 언어를 거의 허용하지 않으며, 이들을 동물과 구분 불가능한 모습으로 재현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를 상상계적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어머니적 공간은 사마에게 양가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상징계로의 진입을 위해 결별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서 원초적 결핍과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욕망을 촉발하는 한편 자신의 정체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아버지 세계(스페인), 즉 권력의 중심 부로의 진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거세 공포를 유발한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적 요소에 대한 사마의 시선은 그리움과 적개심으로 양분화된다. 반면 스페인적 요소에 대해서는 분열되지 않은 이상화된 시선을 보낸다.

강가에 서 있던 사마에게 여성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온다. 여기서 목소리는 행위성을 가지며 사마는 음성이 이끄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웃음소리의 근원지는 강가 한구석에서 진흙으로 피부를 가꾸고 있는 여성들이다. 그곳에는 메스티소, 흑인, 선주민, 백인 등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이 모여 있는데 진흙으로 인해 이들 간의 인종적·사회 계급적 경계는 사라지고 이들은 여성이자 자연, 라틴아메리카로 확장되면서 하나의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사마는 이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누워서 여성들이 선주민어를 스페인어로 옮기는 소리를 엿들으며 휴식을 취한다. 선주민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주는 여성의 목소리는 마치 아이에게 단어를 알려주는 어머니의 음성처럼 들리며, 사마는 이러한 모성적 음성을 통해 원초적 결핍과 그리움을 위로받는다<sup>5)</sup>. 번역되지 못하는 단어가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장

5) 카자 실버만(Kaja silverman)은 라캉의 거세 단계 이론을 발전시켜 영화 속에서 모성적 목소리가 남성 인물의 상징적 거세(symbolic castration)로 인한 결핍을 위로하며, 남성 인물로 하여금 자신의

면은 양분화된 정체성을 둘 중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암시하나, 결국엔 선주민어가 스페인어로 번역된다는 점에서 여기서 모성적 음성은 사마가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수용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강제적으로 봉합하는 데 일조한다.

잠깐의 휴식 후 사마는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 위해 고개를 든다. 사회 권력적 관계에서 남성적 위치에 서지 못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사마는 (관음증적) 시선을 통해 여성을 대상화함으로써 남성(지배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자 한다. 감독은 클로즈업 기법을 통하여 라틴아메리카계 여성의 신체를 파편화하는 등 스페인계 여성보다 라틴아메리카계 여성에게 더욱 폭력적인 사마의 시선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적 시선의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라틴아메리카 자체가 상징화 과정에서 거세당한 것으로 원초적 욕망의 대상이며, 사마에게 식민지 여성이란 스페인 왕실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현실을 상기시키고, 펠러스의 유무를 의심하게 하는 등 거세 공포를 유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식민지 사회에서 남근의 부재는 권력의 중심으로의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마는 폭력적인 시선을 통해 라틴아메리카계 여성이 불러일으키는 거세 공포를 제거하고자 한다.

감독은 사마의 폭력적 시선에 동조하면서 그에게 권력을 주는 듯 하나, 궁극적으로 사마의 폭력적 시선 이면의 불안과 나약함을 드러내고자 하며,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들을 통해 사마와 식민지 여성 간의 권력관계를 전복시키고자 한다. 여성의 몸에 발라진 진흙은 마치 갑옷과 같이 사마의 시선으로부터 그들의 몸을 보호하며, 미적 이상화, 성적 대상화를 방지한다. 더불어 여성들을 훑쳐보는 사마의 시선에 그를 발견한 여성의 시선을 대치시키고, 구경꾼(Mirón)이라고 소리치게 함으로써 그의 시선을 차단한다. 모여 있던 여성들 중 흑인 노예 말렘바는 도망가는 그의 뒤를 쫓는데 이를 통해 감독은 남성 = 능동적, 여성 = 수동적이라는 전통적 공식을 깨트리고 여성의 육체를 통해 남성의 시선을 굴복시킴으로써 사마의 젠더적 · 사회적 위치를 격하시킨다(Dieleke & Alvaro, op.cit., p.5).

반면 부왕령 재무부 장관의 아내로 자신의 전근에 힘을 보내줄 수 있는 여성(백인, 유럽 출신)인 루시엥가 부인은 사마에 의해 이상적인 존재이자 사회적 ·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사실상 루시엥가 부인은 사마의 욕망의 기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루시엥가 부인을 본 것이 아니라 루시엥가 부인이 상징하는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스페인계 출신의 권력의 최상위층’을 본 것이며, 그녀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에 입문한 자신의 모습을 욕망한 것이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부하인 벤투라 프리에토와 내연 관계라는 것을 사마가 알았을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전근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그녀는 사마의 욕망의 기표로서 존재하기에 훼손될 수 없으며, 사마 그 자신도 폭력적인 시선을 통해 상처 입힐 수 없고 이것이 라틴아메리카계 여성과 스페인계 여성에 대한 사마의 차별적 태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사마의 전근을 위한 도구로 남지 않고 오히려 사마의 사회적 · 성적 욕망을 좌절시킨다. 감독은 여성에 대한 사마의 폭력적인 시선과 이 시선을 좌절시키는 여성들을 배치함으로써 주인공의 시선과 시선에 기반한 중심 서사를 약화시키고 있다.

---

목소리와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음향적 거울(acoustic mirror)으로써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음향적 거울로서의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상상계로 밀려나면서 언어적 기능을 빼앗긴 여성에게 언어를 다시 돌려주고자 하였으며, 들리는 대상에서 말하는(발화 대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체로, 여성적 목소리의 권위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Silverman, 1988, p.81).

### III. 하위주체의 시선을 통한 권력 구조의 전복 가능성

앞장에서 필자는 하위주체 중 여성에 대한 사마의 폭력적인 시선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여성을 통해 자신의 출신지인지 두 세계와 관계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은 욕망의 대리물이자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감독은 이와 동시에 사마의 시선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저항적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사마의 시선을 약화시키고, 관객들이 사마의 시선에 동일화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루크레시아 마르텔은 지배 계급의 시선에 대응하는 방어적 차원에서의 하위주체의 시선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시선의 주도권을 하위주체에 주고 있다. 더불어 하위주체를 동물, 자연으로까지 확장하면서 이들 간의 연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위주체의 시선에 포박된 지배 계급을 다루고 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트루먼 쇼와 같이 실시간으로 모두에게 공유된다. 루크레시아 마르텔은 한 인터뷰에서 사마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사마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현실과 운명에 대해 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Kantor & Krate, op.cit., p.3). 사마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일부분을 볼 때 그를 둘러싼 세계는 그의 모든 면을 본다. 감독은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주체와 대상간의 구분을 지우고 있으며, 역사의 배경으로 존재해왔던 이들을 주체로 이끌어내고 있다.

루시엥가 부인은 볼거리 하나 없는 식민지 변방에서의 삶에 권태를 느끼며, 독립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류층 여성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으로, 남성들에게는 오로지 육체적 욕망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현실에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고립은 그녀에게 선주민들과의 관계 형성 가능성을 열어주며, 그녀는 선주민들과 목욕도 같이 하는 계급적 이동성이 큰 유연한 인물로 그려진다. 더불어 결혼과 가부장제에 대한 그녀의 비판을 통해 감독은 그녀를 진보적인 여성상으로 그려내는 듯하나, 젠더적·사회 계급적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구조를 변혁하고자 시도하지 않으며 자신의 계급 체제 내에 안위한다는 점에서 그녀는 전형적인 중산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감독은 루시엥가와 사마가 그녀의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신에서 루시엥가의 흑인 노예들의 사마를 감시하는 듯한 적대적인 시선을 담아내며, 이들의 형체를 프레임의 가장자리에 초점이 맞지 않는 상태로 노출함으로써 지배계층을 둘러싼 하위주체의 존재와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루시엥가의 흑인 여성 노예 말렘바는 담배 공장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이다. 그녀는 강을 거슬러 도망쳤으나 차코(chaco)에서 다시 붙잡혀 발바닥에 독을 바르는 벌을 받았다. 그 영향으로 그녀는 다리를 절며, 허가 있음에도 말하지 않고(그 누구도 말렘바의 언어 구사 여부를 알지 못한다) 수화로 소통한다. 루시엥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렘바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말렘바는 루시엥가에게는 노예이나 사마에는 주인으로서 이중적 위치에 놓인다. 말렘바가 혼인하기 위해서는 루시엥가와 그녀의 남편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렘바와 루시엥가의 관계는 완벽하게 종속-지배 관계인 듯 보이나, 감독은 루시엥가에 대한 접근권을 전적으로 말렘바에게 위임함으로써 이 관계를 전복시킨다. 말렘바는 루시엥가를 찾아온 사마를 그녀의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이고 벤투라 프리에토와 루시엥가의 밀애 장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마는 왜 자신이 아닌 벤투라 프리에토가 레르마시로 전근 가게 되었는지 알게 된다. 이 장면에서 말렘바는 단순히 주인의 허락 아래 움직이는 문지기가 아니며, 서사 공간의 주인이자 행위자가 된다. 반대로 사마는 말렘바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수용하는 주체가 되며 루시엥가는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외부에 노출된다. 이러한 역전 현상을 통해 지배 계급의 시각적 대상화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하위주체는 오히려 하위주체라는 위치를 통해 시각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루크레시아 마르텔은 영화 <사마>에서 하위주체의 범위를 동물, 자연으로까지 확장시킨다. 하위주체는 노예의 위치에서 유물론적 시각을 획득하며, 물질적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인간을 넘어 동물, 자연 등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결합하고 이 연합은 지배 계급에 대항하여 권력 구조를 전복시킬 음모를 꾸민다. 어느 날 정복자의 후손인 노부부가 사마를 찾아와 엔코미엔다를 위한 흑인 노예 40명을 요구한다. 그들이 정복자의 후손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돈 도밍고 마르티네스 데 이랄라(Don Domingo Martinez de Irala)라는 선조의 이름뿐 그 어떤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얘기를 듣고는 있으나 사마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그들의 손녀, 메스티소 여성이다. 그녀는 앵글에 의해 목이 잘린 채 등장하여 이후 노부부의 어깨에 얹은 손으로 나타나는 등 사마의 시선에 의해 완벽하게 대상화된 형태로 제시된다. 사마는 그녀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 이때 그녀의 얼굴 앞으로 개가 얼굴을 들이밀면서 마치 사마의 욕망의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더불어 여성의 얼굴이 개의 얼굴로 대체되면서 여성은 동물과 인간의 구분 불가능한 영역에 놓이게 되고, 이를 통해 욕망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감독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성을 훑쳐볼 수밖에 없는 사마와 여성의 손을 애무하듯 핥는 개를 대비하여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사마르 짐승보다 못한 위치로 격하시킨다. 이렇듯 영화 <사마>에서는 하위주체와 동물 간의 정서적 · 육체적 결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하위주체를 비인간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의 연대를 통하여 식민 지배 계급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식민적 관점에서 사유 되어야 한다(Galt, 2019, p.8).

사마는 노부부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나, 그의 보좌관 벤투라 프리에토는 검증할 수 없는 이름 하나 가지고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이에 사마와 벤투라 프리에토는 몸싸움을 벌이는데, 그 결과 벤투라 프리에토는 징계라는 명목으로 사마가 전근가고자 했던 레르마로 가게 된다. 총독으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듣는 장면에서 셰퍼드 음이 등장하고, 음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들리나 사실은 펜로즈의 계단과 같이 일정한 음계가 무한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는 셰퍼드 음은 사마의 무너져가는 정신적 · 육체적 상태를 드러내면서(Severiche, 2020, p. 277). 계속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마의 운명 또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때 셰퍼드 음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가 있다. 바로 라틴아메리카의 토착 동물 라마의 울음소리이다. 라마의 울음소리로 인해 셰퍼드 음을 통해 사마에 집중하고 있었던 관객은 소리의 근원을 찾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된다. 울음소리와 라마가 동시에 등장하지 않기에 관객은 화면에 제시되지 않은 공간과 존재에 대해 사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인공의 서사는 방해받는다. 겔트(Galt)는 영화상에서 라마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라마는 관객의 시선을 뒷배경, 즉 라틴아메리카로 전환시키며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주인공과 그의 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더불어 라마의 이미지와 소리는 주인공의 대사가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며 라마의 귀여움은 사마의 진지함을 비웃는 요소로 작동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마는 길들여지지 않는 움직임(performing)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저항성을 드러낸다(Galt, op.cit., pp.4-6). 라마의 또 다른 이름은 비쿠냐(Vicuña)이며, 식민지 사회에서 모든 악행의 근원으로 여겨졌던 도적의 이름 또한 비쿠냐 포르토이다. 사마는 비쿠냐 포르토 생포 탐험에서 그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사실상 비쿠냐 포르토는 존재하지 않으며 스페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모두 전가해놓은 상상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듣는다. 따라서 라마는 스페인의 죄를 대신 짊어진 라틴아메리카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를 상징하며, 감독은 라마를 영화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백인 지식인에 의해 쓰여진 역사의 허위성을 드러낸다.

이 외에도 영화 <사마>에서 동물들은 인간의 광기, 잔인함, 나약함, 부조리의 목격자로 등장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루크레시아 마르텔은 <사마>에서 “비인간 존재에게 인격과 시점을 부여하는 관점주의적 태도”(박정원, 2020, p.67)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비인간 존재란 동물과 더불어 그동안 비인간 존재로 여겨졌던 여성, 아이 등 하위주체를 포함하며 <사마>에서 하위주체는 인식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식의 주체이자 행위자로서 존재한다. 감독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역사적으로 타자였던 이들의 관점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서구중심의 인식과 역사를 전복시키고 있다.”(Ibid., p.67).

#### IV. 나가는 말

본고에서 필자는 사마의 시선과 사마를 둘러싼 하위주체의 시선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선을 통한 권력 구조의 전복 가능성을 감독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크리오요로서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중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유럽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마의 욕망은 현대 아르헨티나인들의 욕망과 다를 바가 없다. 루크레시아 마르텔은 아르헨티나의 유럽 지향적 정체성을 본 영화를 통해 조롱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지 탐구함과 동시에 그동안 주 정부에 의해 말살되어 온 선주민 문화를 영화에서 마음껏 풀어낸다. 그녀는 1960년대 기타 밴드 로스 인디오스 타바하라스(los indios tabajaras)의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삼고 있으며 선주민어로 나누는 대화 소리를 장면 곳곳에 배경 소리로 삽입하였다. 더불어 흑인 노예의 몸에 그림을 그리는 장면과 빨간색으로 물든 원주민들을 통해 이미 멸종된 원주민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그녀는 자신을 유럽인의 후손으로 인식하는 아르헨티나의 국가적 정체성의 이면이 얼마나 불합리적이고 폭력적인지 고발하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존속되어 온 아르헨티나의 폭력성, 그리고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중산층을 강렬하게 비판한다.

사마에게 라틴아메리카란 자신이 잉태된 어머니적 공간으로 상상계를 상징한다. 반면 아버지의 나라 스페인은 상징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아버지의 나라에 입문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거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를 대상화, 타자화한다. 반면 하위주체는 자신을 대상화하는 사마의 시선을 시선과 음향 그리고 다른 하위주체와의 연합을 통해 교란시키는 동시에 사마의 시선과 동일시 된 관객의 시선을 하위주체로 끌어온다. 이로써 하위주체는 시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시각적 권력 구조를 전복시키고 있다. 본 영화가 하위주체 연구와 관련하여 의의를 갖는 지점은 하위주체가 언어가 아닌 감각을 통해 권력 구조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통해 하위주체 연구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스피박은 하위주체가 지식인의 목소리를 통해 재현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하위주체의 목소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하위주체는 또 다시 하위주체로 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구하는 하위주체의 정체성의 핵심은 ‘부정(negation)’이며 자신들을 재현하는 모든 지배적 문화 기호를 찢고 불사르는 데에서 하위주체의 저항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영화 <사마>는 하위주체의 시선에서 바라본 역사를 서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백인 중산층이자 대학 교육을 받은 지식인인 루크레시아 마르텔은 그들을 재현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들을 재현하는 것이 곧 그들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녀는 백인 남성에게 의해 쓰여진 기존 역사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역사의 배경으로 존

재했던 이들을 부각시킨다. 그녀는 하위주체에게 목소리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시선과 소리, 촉각을 통해 지배 계급의 시선과 언어, 서사를 뒤집고 있다. 그녀의 하위주체의 재현 방식은 비교적 수동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으나, 하위주체 연구의 관점에서 그녀의 방식은 하위주체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하위주체의 정체성, '부정'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V. 참고문헌

- 박정원 (2020). 「인류세 시대와 아메리카 선주민의 관점주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1(3), pp.45-73.
- 자크 라캉 (2008).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자크 라캉 세미나 11』 (맹정현 및 이수련 옮김). 서울: 새물결
- Bardauil, Pablo (2018). “Zama, de Lucrecia Martel: reflexiones en torno del tiempo”. *MONTAJES*, No.7, pp.25-40
- Dieleke, Edgardo, Fernández Bravo, Alvaro (2018). “Zama: heterocronía, voyeurismo y mundos posibles”. *laFuga*, 21, pp.1-10.
- Galt, R. A. (2019). “Learning from a Llama, And Other Fishy Tales: Anticolonial Aesthetics in Lucrecia Martel’s Zama”. *The Cine-Files*, Vol.14, pp.1-21.
- Guha, Ranajit (1988). “Preface”. *Selected Subaltern Studies*. Eds. Gayatri Chakravorty Spivak, Ranajit Guha, Research School of Pacific Studies Ranajit Guha. Oxford University Press USA, pp.35-36.
- Mulvey, Laura (2006).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Media and Cultural Studies: Keywords*. Eds. Meenakshi Gigi Durham, Douglas M. Kellner. Blackwell Publishing Ltd. pp.342-352.
- Makowski, Lucía González (2020). "Zama y la identidad fragmentada, lectura de una transposición." *Trasvases entre la literatura y el cine*, Vol.2, pp.315-324.
- Marchini Camia, G. (2018a), “It’s Not Literary Adaptation... It’s Literary Infection An Interview with Lucrecia Margel”, *Cinéaste*, Vol.43, No.3, pp.45-46.
- Marchini Camia, G. (2018b), “Reviewed Work(s): Zama by Vânia Catani, Benjamín Doménech, Santiago Gallelli, Matías Roveda and Lucrecia Martel”. *Cinéaste*, Vol.43, No.3, pp.53-54.
- Martínez, Carlos Dámaso (2018). "La transposición filmica de la novela de Di Benedetto Zama por Lucrecia Martel y el debate de la crítica." *Orillas: revista d'ispanística*, Vol. 7, pp.429-443.
- Rama, Angel (1998). *La ciudad letrada*. Montevideo: Arca.
- Severiche, Guillermo (2020). “Experiencias sensoriales, porosidad y redención en Zama (2017). Una lectura benjaminiana del film de Lucrecia Martel”. *IMAGOFAGIA*, No.22, pp.266-288
- Silverman, Kaja (1988). *The Acoustic Mirror The Female Voice in Psychoanalysis and Cinema*.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 Kantor, Débora, Kratje, Julia (2017). “El cine como arte de la dispersión, o un

montón de pequeños detalles. Entrevista con Lucrecia Martel". *Revista Invisibles*, No.22, pp.1-9.

*ZAMA* (2017). Dir. Lucrecia Martel. Bananeira Filmes, Canana Films, El Deseo, KNM, Lemming Film, Louverture Films, MPM Film, O Som e a Fúria, Patagonik Film Group, Perdomo Productions, Rei Cine, Picnic Producciones, Schortcut Films.

# Rock nacional과 Charly García의 음악을 통해 살펴본 아르헨티나적 문화횡단(Transculturación)의 가능성 - 《Clics modernos》를 중심으로

김형중(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 I. 서론

‘Rock nacional’은 아르헨티나의 록 음악을 지칭하는 용어으로써, 6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의 록 밴드들이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용된 명칭이다. 1965년 Los Gatos Salvajes가 아르헨티나에서 최초로 스페인어로 된 록 음악을 녹음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록 밴드들이 스페인어로 된 록 음악을 발매했고, Rodríguez Lemos와 Secul Giusti는 이런 시도들이 단순히 가사를 번안하는 것을 넘어 라틴아메리카적인 정체성을 록 음악으로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한다(Secul Giusti & Rodríguez Lemos, 2011: 12). 또한, 아르헨티나에서는 제한된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유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서 록 음악을 향유했고, Rock nacional은 이런 정치적 참여에 부흥하는 가사를 담고 있다(Secul Giusti & Rodríguez Lemos, 2011: 12). 찰리 가르시아(Charly García, 본명은 Carlos Alberto García)는 Rock nacional의 대표적인 가수로 70년대 Rock nacional의 음악적 방향성을 선도했으며,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군사독재 동안에는 정부에 맞서는 대중문화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다(Favoretto & Wilson, 2014: 54). 이런 Rock nacional은 군사독재시기에 사회적 운동으로서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비슷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있던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Vila, 1989: 1).

찰리 가르시아가 1983년 발표한 《Clics modernos》는 80년대 초 미국에서 유행했던 장르 뉴웨이브(new wave)의 영향을 받아서 그 기존에 발표했던 앨범들과 음악적인 차별성을 보인다. 하지만 찰리 가르시아는 한 인터뷰에서 이 앨범에 대해 “저는 이것을 로큰롤의 혼합물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약간의 탱고도요. 로큰롤은 많은 나라에서 지역적인 요소들을 취하는데, 우리는 탱고의 혼합물을 가지고 있죠. 가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sup>1)</sup>라고 말하며 아르헨티나의 록 음악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런 변용이 록 음악의 특징임을 설파했다. 이런 록 음악의 특성은 페르난도 오르티스(Fernando Ortiz)가 『*Contrapunteo cubano del tabaco y el azúcar*』에서 쿠바 문화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던 문화횡단(transculturación)의 개념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Zebadúa-Carbonell의 연구팀은 멕시코의 치아파스(Chiapas) 주에서 원주민 청년들이 록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과 치아파스 주의 록 밴드들이 원주민 전통 음악과 록 음악을 결합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치아파스의 Rock indígena가 치아파스 청년들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요소인 동시에 문화횡단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Zebadúa-Carbonell et al. 2016: 39).

이와 같은 사례처럼 록 음악은 지역의 특성과 결부되어 새로운 문화를 배양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Rock nacional에서도 문화횡단적 요소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

1)

<https://chacoenlineainforma.com/video-clics-modernos-el-disco-de-charly-garcia-que-le-dio-la-bienvenida-a-la-democracia/>

다. 기존의 Rock nacional에 대한 연구들이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문화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찰리 가르시아의 《Clics modernos》를 중심으로 이런 저항문화로서의 Rock nacional이 가진 문화횡단적 요소를 확인해보고자 하며, 앙헬 라마(Angel Rama)가 호세 마리아 아르게다스(José María Arguedas)의 『*Los ríos profundos*』를 통해서 제시했던 페루의 태평양 연안의 도시와 안데스 산맥의 원주민 사이를 잇는 문화횡단과는 다른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뉴욕을 잇는 아르헨티나적 문화횡단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II. 저항문화로서의 Rock nacional

Rock nacional을 비롯한 아르헨티나의 대중음악에 대해서 연구한 Vila는 Rock nacional이 탱고와 민속음악을 기반으로 한 퓨전 음악과 구별될 수 지점으로서 연주자가 록 음악으로 통해서 사회실천(social practice)에 대한 뜻을 청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을 제시한다(Vila, 1989: 4-5). 이와 같은 맥락에서 Manzano는 아르헨티나의 록 음악이 멕시코와 칠레의 경우와는 달리 문화적 제국주의와 연관되어 해석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저항을 위한 장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anzano, 2014: 397). 그러므로 Vila는 Rock nacional에서 ‘nacional’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 아르헨티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한다(Vila, 1989: 9-10).

당시 아르헨티나는 정치적으로는 신식민주의로부터의 민족적 해방을 원했고 문화적으로는 관습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아르헨티나의 록 문화는 청년층이 정치적, 문화적 권위주의에 대해 저항하는 수단으로써 작동했다(Manzano, 2014: 393-394). 1966년 후안 카를로스 옹가니아(Juan Carlos Onganía) 장군이 주도한 쿠데타로 아르헨티나에 권위주의적이면서 관료주의적인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기독교 국가라는 도덕적 에토스를 강요면서 정치적 검열과 탄압을 강화해나갔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아르헨티나의 저항적인 록 문화가 등장하게 된다(Manzano, 2014: 395). 상업화된 음악에 반하는 록 음악을 통해서 청년층이 기성세대에 의해서 성립된 질서에 저항하는 현상은 영국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좌파의 정치적 실천과 연관된 정치-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이념적 투쟁이 록 음악의 한 축을 담당했다(Vila, 1989: 11). 60년대에 활동했던 Almendra는 아르헨티나의 민속음악에 록 음악을 결합시키는데 집중하며 중산층에게 익숙한 주제를 가사에 담아낸 반면에 Manal과 같은 밴드는 가사를 통해서 사회에 대한 항의를 담아내며 노동계층을 대변했다. 이처럼 Rock nacional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가사의 소재와 청자로 설정된 대상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록 음악이 노동계층에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실천적 운동으로서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Almendra 역시도 점진적으로 Manal과 같은 방향으로 변모해나갔다(Vila, 1989: 11-12).

70년대 초에는 기존의 록 밴드와는 다른 음악을 추구하는 새로운 밴드들이 등장했다. 1969년 찰리 가르시아가 니토 메스트레(Nito Mestre)와 함께 결성한 Sui Generis는 어쿠스틱 사운드를 추구하면서 청소년 문제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기에 중산층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기존의 록 음악을 추구하던 이들은 이런 Sui Generis의 음악을 사회적 함의가 결여된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인식했다(Vila, 1989: 13). 하지만 1974년 Sui Generis가 발표한 앨범 《*Pequeñas anécdotas sobre las instituciones*》에서는 일렉트릭 사운드와 사회 비판적인 가사를 담아내며 음악적 변모를 보여주었고, Vila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Rock

nacional이 특정 계층만이 아닌 모든 청년층이 향유할 수 있는 장르로 변모해나갔다고 설명한다(Vila, 1989: 14).

1976년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Jorge Rafael Videla) 장군의 주도로 발생한 쿠데타로 다시 한 번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르헨티나 사회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군사정권은 ‘공산주의, 체게바라주의, 비기독교적 생활양식으로부터 아르헨티나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명목으로 소위 ‘더러운 전쟁(Guerra sucia)’으로 불리는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했다(이강혁, 2008: 435-436). 또한, 군사정부는 국가 재건 과정(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 이하 프로세스)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적 통제와 미디어에 대한 검열, 교육 분야의 개혁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Favoretto & Wilson, 2014: 54). Favoretto와 Wilson은 이런 표현과 소통의 통제를 통해 군사정권은 아르헨티나의 문화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했으며, 서구적, 기독교적 가치와 스페인적 전통에 기반을 둔 하나의 민족적 존재(ser nacional)를 상징하여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한다(Favoretto & Wilson, 2014: 54). 또한, 비델라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신, 조국과 가정(Dios, Patria y Hogar)’을 공식적 문화로서 국가적 정체성의 방향으로 제시했다(Favoretto & Wilson, 2014: 56).

이런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Sui Generis의 《Pequeñas anécdotas sobre las instituciones》에 수록된 곡들이 이런 군사정권이 제시한 문화적 이데올로기에서 부적절하고 판단됐기에 검열을 당했다. 하지만 찰리 가르시아와 다른 록 밴드의 구성원들이 모여 결성한 슈퍼그룹<sup>2)</sup> La Máquina de Hacer Pájaros는 프로세스의 대척점에서 아르헨티나 청년들에게 그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자 했고, 계속해서 가사를 통해 정치적 사건들과 군사정권이 제시한 문화적 이념에 대해 재해석을 했다(Favoretto & Wilson, 2014: 55). 아르헨티나 청년들은 역시 이런 정부의 문화적 탄압에 저항했으며, 언론과 매체의 검열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체제 전복적인 내용을 전하는 Rock nacional의 가사에 열광하게 됐다. 이처럼 Rock nacional은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이어진 군사독재 시기 동안에 권위주의적으로 정의 내려진 문화에 대한 저항문화였고(Amarilla, 2014: 4), 정치적 참여가 제한된 시기에 아르헨티나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Vila, 1987: 133). 즉, 아르헨티나의 록 문화는 청년을 위한 투쟁을 바탕으로 구축됐으며, Rock nacional은 아르헨티나 청년층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Amarilla, 2014: 4).

### III. Charly García의 《Clics modernos》

《Clics modernos》는 찰리 가르시아가 솔로 가수로서 발표한 두 번째 앨범으로 뉴욕의 Electric Lady Studios에서 녹음됐고, 라울 알폰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며칠 뒤인 1983년 11월 5일 발매되었다. ‘Clics modernos’라는 앨범의 제목은 뉴욕 길거리 벽에 낙서된 검은 형체와 함께 적혀있는 ‘Modern clix’이라는 한 밴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찰리 가르시아는 이 낙서 속 검은색의 인간 형상을 보면서 길거리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실종자들(los desaparecidos)을 연상했으며, 옆에 쓰인 ‘Modern clix’가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앨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으며(Secul Giusti & Rodríguez Lemos, 2011: 56), 벽의 낙서 앞에서 찍은 사진을 앨범커버로 채택했다.

2) 기존의 활동으로 이미 유명한 가수들이 모여서 결성한 그룹을 일컫는다.

군사독재 시기 동안 ‘더러운 전쟁’으로 인해 3만 명의 시민들이 실종됐고, 아르헨티나를 정복시키겠다는 명목 하에 진행한 프로세스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가져온 결과는 검열과 억압뿐이었다. 이처럼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군사정권은 오히려 수많은 청년들을 실종시키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Clics modernos’라는 제목과 앨범커버의 이미지는 군사정권이 내세웠던 조국의 근대화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찰리 가르시아는 실종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Clics modernos》의 대표적인 수록곡인 〈Los dinosaurios〉를 통해서 표명했다. La Máquina de Hacer Pájaros 시절의 시적인 표현과 우회적인 내용을 통해서 군사정권을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누구든지 ‘사라질 수 있다(pueden desaparecer)’라는 것을 가사에서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동네의 친구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라디오의 가수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신문에 실린 것들은 사라질 수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방송하는 것들이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동네의 친구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공룡들은 사라질 거예요<sup>3)</sup>

〈Los dinosaurios〉에서는 실종자들이 ‘동네의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친숙하고 가까운 이들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종자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검열로 통제되고 있는 매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군사독재 하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르헨티나의 사회상을 환기시키고 있다. 노래의 제목이기도 한 ‘los dinosaurios’는 군사정부를 의미한다.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실종될 수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찰리 가르시아는 이러한 공포스러운 사회를 조성한 공룡과 같은 군사정권이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한다. 또한, 이어지는 가사에서는 ‘los dinosaurios’의 또 다른 표현인 ‘los pesados’로부터 벗어나 가벼워지고 싶다는 의지를 전하며 군사독재의 종식에 대한 기원을 전하고 있다.

1983년 12월 5일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당선된 라울 알폰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아르헨티나는 7년간의 군사독재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였다. 찰리 가르시아는 군사독재의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루나 파크 스타디움(Estadio Luna Park)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Clics modernos》의 수록곡들을 연주하기 전에 곡들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다. 〈Bancate ese defecto〉에 대해서 찰리 가르시아는 “군사정권 시절에 만든 메시지이지만, 현재의 아르헨티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큰 코를 가졌다면 그걸로 무엇인가를 하세요, 당신을 병들게 하지 말고요’입니다”<sup>4)</sup>라고 설명했다. ‘bancar’는 아르헨티나의 구어에서 사용되는 단어

3) [원문] Los amigos del barrio pueden desaparecer / Los cantores de radio pueden desaparecer / Los que están en los diarios pueden desaparecer / La persona que amas puede desaparecer / Los que están en el aire pueden desaparecer en el aire / Los que están en la calle pueden desaparecer en la calle / Los amigos del barrio pueden desaparecer / Pero los dinosaurios van a desaparecer

4) <https://www.vice.com/es/article/xwj89d/charly-garcia-clics-modernos-luna-park-1983>

로 ‘참다’, ‘견디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즉, <Bancate ese defecto>는 제목에서부터 ‘결함을 견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너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요  
(생략)  
그리고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이라 자랑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바보가 되지 마세요, 결함이 당신을 부르듯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 결함을 견디세요!  
코가 얼굴과 맞지 않으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sup>5)</sup>

<Bancate ese defecto>의 가사는 프로세스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시작된다.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행되는 일들은 찰리 가르시아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로 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사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상적인 사람(humano normal)’은 사실 ‘바보(gil)’가 된 것에 불과하다. 찰리 가르시아는 군사정부가 결함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교정할 필요가 없다고 외치며, 군사정권이 주장하는 결함은 군사정권이 지정한 것이지 아르헨티나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을 이 곡을 통해서 전하고자 한다. 이처럼 《Clícs modernos》에서는 Rock nacional이 가진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의식과 저항문화로서의 특징을 확인해볼 수 있다.

#### IV. 문화형단으로서의 Rock nacional 과 《Clícs modernos》

《Clícs modernos》에서는 이전 찰리 가르시아의 앨범들과 대비되는 음악적, 장르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 유행했던 뉴웨이브의 영향을 받아서 신디사이저와 샘플러를 이용한 전자음과 디스코적인 리듬이 가미되었고, 록 음악보다는 팝 음악에 더 가까워졌으며 춤을 추기에 더 적합한 곡들이 《Clícs modernos》에 수록됐다. 펑크 록(punk rock)에서 파생된 뉴웨이브는 펑크의 특징인 사회에 대한 공격성이 줄어든 대신에 레게와 같은 각지의 민속음악과 컴퓨터 신디사이저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음악적인 면에서 록 음악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서동진, 1998: 221). 뉴욕 출신의 뉴웨이브 밴드 중 가장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갖고 있던 밴드는 토크 헤즈(Talking Heads)였는데, 이들은 단조롭고 반복되는 멜로디와 펑크 리듬에 중동지역의 민속음악을 차용하여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였다(서동진, 1998: 237). 하지만 토크 헤즈의 지적이면서 냉소적인 가사는 펑크 록이 보여주었던 반사회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내용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찰리 가르시아는 이런 장르적 특성의 전환 속에서 음악적 변화는 수용하면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정권을 향한 비판적인 가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상황을 담아내면서 사회 운동의 성격을 보존했다.

이처럼 뉴웨이브의 장르적 특징과 Rock nacional의 체제 비판적 특성이 결합된 《Clícs

5) [원문] Están pasando demasiadas cosas raras / Para que todo pueda seguir tan normal (생략) Y no presumas más de ser un humano normal / Y no te hagas más el gil, que el defecto te nombra / Y yo te digo / ¡Ey, bancate ese defecto! / No es culpa tuya si la nariz no hace juego en tu cara

modernos》는 문화횡단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앨범으로 볼 수 있다. 앙헬 라마는 그의 저서 『*Transculturación narrativa en América Latina*』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문화의 상실과 절단만을 설명하는 문화의 동화(aculturación)보다는 문화의 접촉에서 새로운 문화 현상의 탄생을 이끌어내는 문화횡단이 더 적합한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문화횡단은 단순한 문화의 퇴적이 아닌 새롭고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독립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Rama, 2008: 39-41). 라마는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들의 사건들(asuntos)과 그것을 바라보는 라틴아메리카인의 세계관(cosmovisión)을 문학적 형태(formas literarias)에 담아내는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만의 새로운 문화의 고유성이 형성되고 문화횡단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Rama, 2008: 41).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졌던 군사정권의 폭압에 대한 아르헨티나 청년층의 목소리를 가사에 담아서 표현해내고자 했던 Rock nacional 역시도 문화횡단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라마가 페루의 소설가 아르케다스의 『*Los ríos profundos*』를 라틴아메리카의 문화횡단에 대한 예시로서 제시한 이유는 구성에 있어서 페루 원주민의 언어인 케추아어와 스페인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원주민의 민속음악에서 나타나는 구술성(oralidad)과 서구의 사실주의적 산문을 결합시켜 음악적, 언어적 계층을 횡단하고 있기 때문이다(Rama, 2008: 287-289).

또한, 라마가 제시했던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 나타나는 문화횡단은 수도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적(혹은 서구적)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문화와 지방 혹은 원주민 문화 사이의 문화적 교차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도시와 지방 모두 하나의 민족국가라는 이상을 구현해내고자 했다는 점을 문화횡단의 목적으로 보았다(Rama, 2008: 41-43). 하지만 Rock nacional을 통해 아르헨티나 청년층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아르케다스가 그의 소설들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통합된 민족국가의 이상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과는 구별된다.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른 두 개의 문화가 교차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낸다는 문화횡단의 개념에서 봤을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사회운동으로서의 기능을 맡아왔던 Rock nacional은 영미권의 록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록 문화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역시도 문화횡단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Rock nacional은 라마가 제시했던 내적 문화(culturas internas)를 중심 문화와 결합시켜 민족문화를 구성해내는 문화횡단과는 구별되는 당시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된 아르헨티나적인 문화횡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Clics modernos》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펑크와 뉴웨이브의 흐름과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한 아르헨티나 청년층의 정체성이 교차하는 문화횡단적인 앨범으로도 볼 수 있다. 뉴욕의 스튜디오에서 녹음과 믹싱이 진행됐던 만큼 《Clics modernos》는 80년대 초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과의 결합이나 컴퓨터를 사용한 전자음의 도입 등의 뉴욕 록 음악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Rock nacional이 가지고 있던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식을 상실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Rock nacional을 영국과 미국의 록 음악과 구별되는 아르헨티나 사회를 반영시킨 새로운 형태의 록 음악으로 이해한다면, 그 자체로서 문화횡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문화로서 록 음악이 가지는 반문화(反文化)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그 저항의 대상으로서 군사정권과 그들이 강요했던 체제를 구체화시키고 아르헨티나 청년층이 추구했던 정체성을 가사에 투영했기에 Rock nacional을 아르헨티나의 시대적 상황과 그에 대한 아르헨티나 청년들의 세계관으로 재구성된 아르헨티나적 문화횡단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의 장르적 유행을 계속해서 수용하면서 한 번의 접촉으

로 문화의 형성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화의 횡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뉴웨이브와 Rock nacional이 결합된 《Clics modernos》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Rock nacional과 찰리 가르시아의 음악을 통해서 라마가 제시했던 지식인으로서의 문학가들이 문학의 영역에서 민족국가의 문화 형성을 시도했던 것으로 이해했던 문화횡단과는 다른 대중음악의 영역에서 록 밴드들이 청년층의 정체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횡단자(transculturador)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르헨티나적인 문화횡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Rock nacional은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상황에서 청년층의 저항의식을 발산시켜주는 공간으로 기능했고, 1976년 쿠데타 이후부터는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찰리 가르시아의 《Clics modernos》에서는 이런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문화로서 Rock nacional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영미권의 록 음악을 아르헨티나의 사회와 문화에 맞게 변용시킨 문화횡단의 산물로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Rock nacional이 보여주는 문화횡단의 형태는 앙헬 라마가 제시했던 소위 ‘문자도시(ciudad letrada)’로 불리는 도시의 지식인 계층이 민족국가의 정체성과 민족문화를 정의하기 위해 생겨난 문화횡단의 사례와는 목적과 횡단의 지점이 상이하다. 오히려 Rock nacional에서 상정하는 ‘nacional’은 권위주의적인 질서에 의해서 국가의 하나의 정체성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반대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함으로써 각자의 문화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Rock nacional은 기존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됐던 문화횡단과는 다른 대중문화에서의 아르헨티나적 문화횡단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찰리 가르시아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진 뛰어난 감각은 영어의 사운드에 탱고를 적용하는 것이며, 비록 록 음악은 영어와 관련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의 소리와 의미가 음악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합치될 때 인상적인 것인 무언가가 생겨난다고 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음악의 의미를 설명했다.<sup>6)</sup> 이처럼 음악은 상이한 장르 사이의 연결은 물론 가사와의 결합을 통한 무한한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확장과 변용의 과정에서는 새로운 고유의 문화가 창출되는 문화횡단을 포착해낼 수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음악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간다면, ‘문자도시’적인 정체성 담론에서 벗어나 라틴아메리카 대중이 형성해나가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추구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석영(1996). 라틴아메리카사 하.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서동진(1998). 록 젊음의 반란. 서울: 새길.  
 이강혁(2008). 라틴아메리카역사 다이제스트 100. 서울: 가람기획.  
 Amarilla, Yanina Soledad(2014). Hablar en tiempos de silencio: El Rock Nacional durante la dictadura. *Revista Question*, Vol.1(43), 1-16.

6) [http://news.bbc.co.uk/hi/spanish/misc/newsid\\_6362000/6362687.stm](http://news.bbc.co.uk/hi/spanish/misc/newsid_6362000/6362687.stm)

Favoretto, Mara, & Wilson, Timothy(2014). Los ángeles de Charly: Entre el ser nacional ideal del 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 y el ser real del rock nacional argentino. *Per Musi : Revista De Performance Musical*, 30, 53-63.

Manzano, Valeria(2014). “Rock Nacional” and Revolutionary Politics: The Making of a Youth Culture of Contestation in Argentina, 1966-1976. *The Americas*, 70(3), 393-427.

Rama, Ángel(2008). *Transculturación narrativa en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Ediciones El Andariego.

Secul Giusti, Cristian Eduardo, & Rodríguez Lemos, Federico(2011). Si tienes voz, tienes palabras: análisis discursivo de las líricas del rock argentino en la “primavera democrática” (1983-1986). Tesis de grado de Licenciatura en Comunicación Social, 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 La Plata, Argentina.

Vila, Pablo(1987). Rock Nacional and Dictatorship in Argentina. *Popular Music*, 6(2), 129-148.

\_\_\_\_\_(1989). Argentina’s “Rock Nacional”: The Struggle for Meaning. *Latin American Music Review*, 10(1), 1-28.

Zebadúa Carbonell, Juan Pablo, López Moya, Martín de la Cruz, & Ascencio Cedillo, Efraín(2017). Juventudes, identidades y transculturación. Un acercamiento analítico al rock indígena en Chiapas. *Liminar*, 15(1), 29-41.

<https://chacoenlineainforma.com/video-clics-modernos-el-disco-de-charly-garcia-que-le-dio-la-bienvenida-a-la-democracia/>

[http://news.bbc.co.uk/hi/spanish/misc/newsid\\_6362000/6362687.stm](http://news.bbc.co.uk/hi/spanish/misc/newsid_6362000/6362687.stm)

<https://www.vice.com/es/article/xwj89d/charly-garcia-clics-modernos-luna-park-1983>

Keywords: Rock nacional, Rock argentino, Charly García, Clics Modernos, Transculturación

발표자 성명: 김형중

발표자 이메일: lavadura@naver.com

# 체제를 흔드는 자연과 여성 : 중남미 에코 페미니즘 소설로서의 《Distancia de rescate》 연구

김지선  
경희대학교 석사 1기

## 1. 신유물론, 여성, 에코페미니즘

플럼우드(Plumwood, 1994)는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sup>1)</sup>에서 지금까지 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여성과 자연을 연결하는 것은 그 수동성과 육체적 본능을 강조한 퇴행적이고도 모욕적인 논의였으나, “자연의 배경화-도구화와 여성의 배경화-도구화는 긴밀한 상동관계를 갖는다”며 서구식 남성적 지배 모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여성-자연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도본느(Francis d'eaubonne)가 저서 《페미니즘 아니면 죽음인가 le feminisme ou la mort》에서 최초로 언급한 ‘에코 페미니즘’(eco-feminismo) 개념을 지시하는 것으로 플럼우드에게 따르면 “여성-자연의 친밀성에서 생태주의적이고 여성 해방적이며 동시에 반자본주의적인 저항과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sup>2)</sup> 한편, 《Things with a history》에서 저자 Hector Hoyos는 자연과 문명이 분리되기 힘든 라틴아메리카에서 물질과 비 물질을 구분하는 서구식 근대화는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그 모델을 그대로 체현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고 혹은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서구식 근대화의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Hoyos는 해당 저서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 논의에는 기존의 서구식 논법이 아닌, 물질-비물질의 결합 속에서 진행되는 관점이 필요하며,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의 “always historicize “에 ” with things “를 더한 신유물론적 관점을 주장했다. 그 분석 대상으로는 카프카의 소설을 비롯한 ‘문학 작품’을 제안했다.<sup>4)</sup>

필자의 시선에서 두 논의는 합치되는 바가 있다. Hector Hoyos가 주장하는 신유물론, 다시 말해 탈중심적 인류학으로부터 세계의 주변부에 있는 것(노동자, 여성, 아이 등)을 고려한 이 문화 분석 관점은 앞서 자연-여성의 연결고리 속에서 사회/지배구조를 바라보고자 하는 에코 페미니즘과 연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Hoyos가 제안하는 신유물론적 관점의 문학 작품 분석과 에코 페미니즘은 여성의 시선으로 비가시적 세계의 공포를 관찰하고 기존 체제의 균열을 보여주는 사만타 슈웨블린(Samanta Schweblin)의 소설 『구조거리 Distancia de rescate』(2014)의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이다. 특히, 『구조거리』는 자연과 친숙한 아르헨티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이 도리어 인간 문명을 위협하는

- 1) 플럼우드(Plumwood, 1994),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 『여성, 자연, 환경』, 한신문화사, 2000, pp109-142
- 2) 황주영(2016), 「페미니즘에서 자연의 위치들- 에코페미니즘과 그로츠의 조우 가능성 탐색」, 시대와 철학 제17권 1호(통권 74호), pp295-323
- 3) 플럼우드는 여성과 자연 모두 그 주변부적 위상이 서구식 가부장제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이 둘을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은 결국 서구의 남성지배 모형을 분석하고 그 틈을 지적하는 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 4) Hoyos, Hector(2019), 《Thigs with a history- Transcultural Materialism and the Literatures of Extraction in Comtemporary Latin America》, ColumbiaUnivPr

세계를 그리고, 이를 감지해내는 대상으로서 여성/아이/자연물을 보여주며 균열하는 이분법적 세계 속 기존의 여성성을 이용하는 동시에 이를 재설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자연의 도식으로부터 ‘모성’과 관련지어 나타나는 ‘구조 거리’(distancia de rescate)가 독자와 문명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체제의 균열을 인식하게 만들며, 일종의 저항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해당 소설은 에코 페미니즘 작품으로서 충분한 분석 가치가 있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는 『구조거리』가 그려내는 공포와 감각의 세계를 살펴보고 이 ‘알 수 없는’ 공포가 ‘서구식 이분법적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는 카프카식 공포와 동일하다는 점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로부터 소설이 그려내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서구식 근대화의 불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불가능성을 최초로 감지하는 주체(agente)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 이 주체가 자연물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소설이 이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소설 속 여성의 위상과 여성성에 대해 정리해볼 것이다. 끝으로, 기존 에코페미니즘 논의가 갖는 한계(여성-자연의 도식의 부정성)를 위 소설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한편으론 이 도식을 어떻게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중남미 에코 페미니즘 소설로서의 『구조거리 Distancia de rescate』의 가치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2. 《Distancia de rescate》세계와 서구식 근대체제의 (불)가능성

### 2.1. 보이지 않는 공포, 체제를 흔드는 위협

도시에서 살던 아만다와 그의 딸 니나는 여름 휴가를 즐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한다. 아만다는 그곳에서 도시 여성처럼 보이는 카를라와 그의 아들 다비드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들과 가까이하게 된다. 그러나 마을에 익숙해질수록, 아만다와 니나는 매우 기이하고 비극적인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시골 마을에는 원인 모를 수상한 전염병이 돌고 있었고 그 병은 동식물, 아이, 어른을 가리지 않고 이 마을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카를라 역시 이 병에 노출된 상태였다. 그의 아들은 이미 병에 걸려 ‘괴물’이 된 상태였고, 카를라 가족이 키우던 말들도 모두 병에 걸려 죽었으며, 카를라는 이 병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병의 심각성을 알게 된 아만다는 마을을 떠나려 하지만, 아만다와 니나에게도 병은 이미 침투해있었다. 결국, 이 둘은 도시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병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독특한 것은 ‘벌레’의 근원을 찾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공포의 감정만 극대화될 뿐 그 원인은 좀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수많은 기형아와 기형 동식물, 병 걸린 사람들로 가득한 마을의 전경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사람들(남성)은 이 광경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염병에 노출된 수많은 대상들을 ‘병적인’ 상태로 규정, 타자화하거나 - 다비드의 아버지의 경우-, 병에 걸린 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병원에서조차도 그 기형적인 질병을 ‘일사병’과 같은 대수롭지 않은 질병으로 분류-아만다의 경우-하며, 이 ‘알 수 없는 질병’을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세에 이미 생활에 침투해있어, 완전히 타자화될 수 없는 이 병과 병에 걸린 대상들은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타자, 예외성이자 공포다. 다음 장면에 주목해보자.

“그러던 어느 날 오마르가 내 발을 흔들어서 깨워요. “ 카를라가 말해. ” 그이는 침대에 앉아 있

어요, 핏기 없는 얼굴로 무표정하게. 내가 무슨 일이나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아침 5-6시쯤 됐을 거예요. 밖이 제법 밝거든요. ‘오마르’, 난 그이에게 물어요. ‘오마르, 무슨 일이에요?’ ‘말들이,’ 그이가 대답해요. 진짜예요, 아만다, 그이의 말투가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가끔 오마르가 폭언을 한 적이 있지만 어떤 말도 그 한마디만큼 공포스럽게 들린 적은 없었어요. 그이는 다비드에 대해 험한 말을 하곤 했어요. 다비드가 정상적인 아이 같지 않다고요. 그 아이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요. 그이는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아이에게 아예 말을 하지 않았죠. 때때로 우리는 밤중에 잤는데 그때마다 다비드는 제 방에 없고 집 안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이 점이 오마르를 미치고 팔짝 뛰게 했죠. 내 생각엔 오마르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 처음 몇 번은 아이를 찾아 나섰어요. (...) 한번은 집을 나서기 전에 오마르가 칼을 챙겨 들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 그 뒤로 오마르는 다비드의 방문에 자물쇠를 채우기 시작했어요.<sup>5)</sup>

여기서 오마르는 등장인물 중 몇 안 되는 남성으로, 그는 가부장제에서의 전형적인 남성성(가부장적 태도, 가사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적인 일 - 말 키우기, 농장일 등-에만 몰두하는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의 성격은 “남성/여성, 문명/자연, 이성/감성의 대립 구조로부터 언제나 우등한 남성 지배체제”<sup>6)</sup>, 중심부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체제에서 배제된 타자에게 ‘알 수 없기에’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그 공포스러운 타자가 체제를 흔드는 위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말에서도 알 수 있듯 작가는 이 ‘병’과 ‘공포’, ‘비인간성’이 작은 시골 마을을 넘어서 문명의 중심-도시사회-을 위협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국 체제를 흔들어 놓을 이 전염병은 결코 예외적인 타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전유정(2017)은 이 시대에서 “세계의 주체 혹은 주체성은 비단일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오염되어야만 한다”며, 이는 “더 이상 이원론의 틀로 구성되지 않고 계급, 젠더, 세대뿐 아니라 인간성 역시 넘어서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7)</sup> 또한, 이에 대한 사유거리를 제공하는 대상으로서 카프카의 단편 소설 「가장의 근심 Die Sorge des Hausvaters」(1920) 속 오드라텍(Odradek)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전유정(2017)이 말하는 오드라텍은 서구 이분법 체제의 존속 불가능함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구조거리』의 ‘알 수 없는’ 병과 ‘병적인 것들’과 같은 맥락을 공유하게 된다.

## 2.2. 카프카의 오드라텍(Odradek)과 이분법의 해소

카프카의 「가장의 근심」은 어느 날 ‘나’ (가장)의 보호공간으로 여겼던 집이라는 공간에 오드라텍(Odradek)이라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침투, ‘나’를 공포스럽게 만든다는 일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에 따르면, 가장의 시선에서 오드라텍은 “이름 해석의 불확실성”을 보이고, 형태적으로 “납작한 별 모양의 실타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타래인 것만은 아니며, 마치 “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다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갖고 있어 분석이 불가능한 존재다.<sup>8)</sup> 다시 말해, 가장의 세계에서 오드라텍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 불가능한 것이며, 존재인지 아닌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 존재인지, 인간인지 비인간인지 혹은 집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는 혼종적 개체이며, 이는 가장의 완전한 지

5) 사만타 슈웨블린 저, 조혜진 역, 『구조거리 Distancia de rescate』, 창비, 2021, p110

6) 램 모리스저;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 출판사, 1997

7) 전유정(2017), 「비인간적인 것의 정치윤리적 가능성」, 카프카연구 제38집, 한국카프카 학회, p52

8) 프란츠 카프카 저; 이지영 역, 「가장의 근심」, 『변신, 프란츠 카프카 단편선』, 보성, 2010, p167

배공간인 ‘집’에서 그를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며 ‘집’이라는 지배구조의 동일성을 상실하도록 한다. 가장의 ‘집’ 공간을 공간화된 인간 사회로 확장해보면, 질서를 혼드는 오드라텍은 『구조거리』속 벌레/병/병적인 대상이 되고, ‘집’은 아만다와 나나가 머무르는 작은 시골마을로 환원 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장의 근심」에서 집이 오드라텍이라는 존재로 하여금 지배구조로서의 동일성, 폐쇄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구조거리』의 마을 역시 기존의 질서, 체제의 동일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는 곧 시골 마을을 넘어서 또 다른 사회, 혹은 도시 문명으로 퍼져갈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sup>9)</sup> 이에 따라, 『구조거리』의 세계는 타자성으로부터 자연/문명, 여성/남성, 비인간/인간의 질서가 무화되는 현장을 그려내고 있으며, 소설이 암시하는 벌레의 근원(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체제의 위협은 결국 비물질과 물질을 분리할 수 없는 이 세계 속에서 연원한다. 즉, 『구조거리』의 세계 속 도리스 소머(Doris Sommer, 2001)<sup>10)</sup>가 지적한 19세기 근대국가 성립 시기의 서구식 근대화의 질서/대립구조<sup>11)</sup>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그 체제의 균열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음은 소설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기서 작가는 곧 이 공포는 작은 시골 마을을 넘어 도시공간으로 향할 것이며, 곧 시스템 자체의 균열을 일으킬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다비드와 그 아버지 오마르)의 형체가 점점 멀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 두 사람은 멀찍이 떨어진 채 집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문이 잠기지. 그제야 남편(아만다의 남편)은 차의 시동을 걸고 언덕을 내려가 자갈길로 접어들어. 그이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느껴. 읍내에서 차를 멈추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아. 콩밭도, 메마른 땅을 가로질러 흐르는 개울도, 가축 한 마리도 없이 몇 킬로미터나 드넓게 펼쳐진 들판도, 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수많은 자동차가, 갈수록 더 많은 차들이 아스팔트 위를 덮고 있다는 것도. 교통이 정체되어 몇 시간 동안 오도 가도 못한 채 뜨거운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다는 것도. 그이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해. 어딘가에서 불붙은 도화선처럼 마침내 느슨해진 실을. 이제 곧 분출되기 일보 직전인, 움직이지 않는 재앙을.

### 2.3.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서구 체제 (불)가능성

앞서, 필자는 카프카의 단편 소설 「가장의 근심」을 통해 카프카가 그리는 ‘알 수 없는 공포’와 『구조거리』의 공포, 위협이 모두 기존의 체제에서 질서화되거나 의미화될 수 없는 공포를 생성하며 기존의 체제를 흔들며 놓는다는 점에서 두 소설 모두 서구식 근대화의 틈을 지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전유정(2017) 역시 비인간성의 어느 물질(오드라텍)이 익숙한 가장의 세계(집)에 침투하고, 결국엔 가장의 지배공간, 익숙함, 친밀함을 모두 무너뜨리

9) 실제로 결말은 시골에서 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곳이 이미 황폐화되었음을 보여주며, 곧 이 공포/병/벌레가 도시 문명으로 침투할 것을 암시한다.

10) Doris, Sommer(2001), “For Love and Money: Of Potboilers and Precautions”,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1) 도리스 소머(Doris Sommer)에 따르면, 근대국가 성립시기의 라틴아메리카 19세기 낭만주의 소설은 국가적 근대화를 위하여 소설 속 사랑을 시민교육의 일부로서 국가적,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려낸다. 특히, 그 근대화가 유럽-서구형 모델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소설 배경 속 ‘문명/야만’의 도식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여기서 문명에 해당하는 ‘라틴아메리카가 근대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향해야할 가치’들은 유럽, 도시문명, 남성성, 백인이며, 이와 반대로 지양해야할 가치는 라틴아메리카성, 자연, 여성성, 원주민, 흑인 등으로 나타난다. 즉, 19세기 근대 국가 성립시기의 낭만주의 소설은 그 목적달성을 위한 철저한 대립구조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소설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체화하도록 한다.

고 ‘타자’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게 만든다며, 비인간적 타자성에서 “혼종과 차이의 윤리학” 혹은 “비인간적인 것의 정치 윤리학”을 발견해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전유정(2017)에 따르면, 타자로서의 ‘오드라텍’이라는 존재 자체가 서구 질서에 이미 항상 있던 균열을 드러내는 셈인 것이다. 하지만 『구조거리』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으며<sup>12)</sup>, 실제 서구사회가 아닌 서구 질서를 체현한 공간으로서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이 균열을 보여주기에, 이와 같은 점에서 두 소설의 논의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먼저, 앙헬 라마(Angel Rama, 1984)가 《문자도시 *Ciudad letrada*》<sup>13)</sup>를 통해 지적했듯이 라틴아메리카의 도시 문명은 태초에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배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 도시는 서구식 모델을 차용했으나, 유럽의 대도시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는 지배를 위해 의도적으로 구축된 공간이라는 것이다. 예상 가능한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이 만들어진 도시 문명은 역사적으로 발전과정을 거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도시공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차이는 원주민 생활권, 문화공간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sup>14)</sup> 필자는 『구조거리』의 작가 사만타 슈웨블린이 소설의 배경으로 아르헨티나 시골 마을을 설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근대화된 질서와의 괴리가 시골 마을에서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자연에 친숙한 이 공간에서 비물질-물질 간의 결합은 더욱 견고하게 나타나는 반면, 서구식 근대화의 질서와의 결합은 다소 느슨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근대화된 체제의 균열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는 『구조거리』의 배경인 라틴아메리카 어느 시골 마을에서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Hector Hoyos(2019)가 지적한 대로 라틴아메리카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가 갖는 자연, 물질문화와의 친밀함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서구식 근대화를 완전히 체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서구식 근대화 체제의 균열 분석은 더욱 용이한 것일지도 모른다.

### 3.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Distancia de rescate》 세계

#### 3.1. 소설이 ‘여성성’을 이용하는 법

필자는 ‘2.3.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서구 체제 (불)가능성’ 부분에서 『구조거리』에 나타나는 체제의 균열은 카프카의 논의보다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지적한 대로 카프카의 「가장의 근심」에 나타난 체제의 균열은 ‘오드라텍’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체제에 이미 있었던 균열을 들추는 일이었다면, 『구조거리』가 보여주는 균열은 기존의 틈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균열의 ‘현장’은 자연/물질문명이 사회에 침투하여 만들어

12) 적극적인 형태의 균열 양상은 아래 ‘3.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Distancia de rescate》 세계’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13) Rama, Angel(1984), *Ciudad Letrada*, Arca

14) 앙헬 라마는 저서 《*Transculturación narrativa en América Latina*》에서 서구문화와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간의 대립이 나타나는 사례로, 페루의 Cusco-serrano 와 Lima-costeño 문화권을 이야기한다. 예로부터 잉카 제도의 수도로 원주민 문화가 잘 발달한 Cusco-serrano 생활권은 특히 안데스 산맥에 가로막혀 있어 그 고유성이 강하게 나타난 공간인데, 이는 해안에 위치하여 서구식 근대화를 먼저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가 형성된 Lima-costeño 생활권과의 큰 차이를 보인다.

내는 것이며, 여기서 ‘여성’ 역시 균열의 현장을 목도하고, 또 기존의 체제가 바라보지 못하는 위험을 감각하고 있기에 ‘여성’ 역시 체제를 흔드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피상적으로는 여성인 아만다와 카를라가 병에 걸린 다비드, 니나와 함께 이 모든 위험을 감지하고, 벌레를 무시한 채 삶을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그 원인을 찾아내려 하는 모습이 그러하다. 또한, 초자연성이 현실화 되는 녹색집(casa verde)의 여인 역시 최초로 이 ‘벌레’와 공포를 인간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느낀다는 것, 또한 서구식의 근대 체제 병원조차도 해소하지 못했던 이 병에 대해 일종의 방책을 내놓았다는 것(다비드의 영혼 분리) 역시 소설이 이야기하는 주체(agente)로서의 여성성-체제의 균열을 감지하는 동시에, 문명의 질서/이성에 균열을 만드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왜 여성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플럼우드(Plumwood, 1994)<sup>15)</sup>가 언급한 서구식 가부장제, 즉 남성 지배 모델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이성/감각, 문명/자연, 남성/여성 비물질/물질의 도식에서 여성은 늘 열등함에 속하는 성격을 부여받아 왔다. 이 논의에 따르면, 사회 주변부에 속하는 ‘열등적’ 존재인 여성은 지배체제에 대해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주변부에 속하는 자연, 감각, 물질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이에 전통적으로 여성은 감각세계, 자연, 물질세계에 친밀한 존재인 것이다. 필자는 소설이 이러한 전통적 이분법 구조를 역 이용하여, 물질세계와 자연이 문명 세계에 침투한 이 시점에서 여성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이 징후적으로 느끼는 ‘공포’와 ‘위협’에 대한 감각, 여기서 만들어지는 ‘구조거리’<sup>16)</sup>는 “기존 남성지배 모형에서 ‘환경’으로 취급받아온 여성-자연이 남성-문명 체제로부터 중심”<sup>17)</sup>이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설 속에서 여성-아이-비가시적 세계가 만들어 내는 ‘구조거리’라는 공간 역시 체제에 대한 일종의 저항공간임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은 소설 속에서 주체(agente)이자 주변(margen)인 이중적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은 소설 속 다비드와 아만다의 대화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구조거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다비드) 구조거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주세요.

- (아만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져.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집에 온 뒤 처음 몇 시간 동안에는 니나가 항상 내 가까이에 있길 바랐어. 나는 집에 출구가 몇 개 있는지 알고, 바닥에서 가장 많이 파손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단이 빠져대는 소리가 어떤 위험을 뜻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했어. 니나한테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지. 니나는 겁이 많지는 않지만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서 두 번째 날에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 또다시 늘어났어. 그 실은 존재하지만 느슨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약간의 독립성을 허용해줘. 그런데 구조거리가 정말 중요하니?

- (다비드) 중요해요.

(...)

- (다비드) 이 구조거리는 언제부터 재기 시작하셨어요?

- (아만다) 그건 우리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야.<sup>18)</sup>

15) 플럼우드(Plumwood, 1994),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 『여성, 자연, 환경』, 한신문화사, 2000, pp109-142

16) ‘구조거리’(distancia de recate)는 소설 속에서 주인공 아만다가 딸 니나를 공포와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니나에게 도착하기 위한 최단 거리를 뜻한다.

17) 플럼우드(Plumwood, 1994),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 『여성, 자연, 환경』, 한신문화사, 2000, pp109-142

18) 사만타 슈웨블린 저, 조혜진 역, 『구조거리 Distancia de rescate』, 창비, 2021, pp49-50

### 3.2. 주변(margen)이자 주체(agente)인 여성

한편, 소설은 여성을 주변이자 주체로 이중적으로 그려내며 이분법을 이용하는 동시에 이에 균열을 내고 있다. 즉, 주체(agente)로서의 여성은 기존 체제의 주변(margen)이기에 질서의 혼동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존재이며, 이러한 위상으로부터 여성은 공포를 감지하고, 사건의 원인을 찾는 데에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설이 그리는 여성성은 세계의 중심/주체로서 기존의 이분법을 전복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소설에서 여성은 사건의 원인-벌레, 물방울, 드럼통, 오염된 자연물-을 감지해내는 주체이나, 결국 아만다-니나, 카를라-다비드 모두 공포와 벌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다음 소설의 부분에 따르면 ‘구조거리’는 여성의 모성(maternidad)과 결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설이 그리는 모성 역시 전통적 질서에서의 모성과는 조금 다르다.

- (다비드) 엄마들은 왜 그러나요?
- (아만다) 뭐 말이야?
- (다비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내다보려는 거요, 구조거리 말이예요.
- (아만다) 조만간 끔찍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 어머니의 어린 시절 내내. 어머니는 나한테 그러셨고, 내 어린 시절 내내. 그러니 이제 내가 니나를 돌볼 차례야.

위의 대화에서 ‘구조거리’는 모성과 여성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Ninfa(2020)과 Jorge(2020)<sup>19)</sup>에 따르면, 이들의 모성은 전통적 여성/어머니로서 역할을 하려한다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결국 공포와 위협, 체제의 혼돈 속에서 그럴 수 없다는 점(no poder), 다시 말해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완전히 보호해내지 못했기에 기존의 모성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구조거리』는 여성과 감각을 체제의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긴 하나, 여성-자연의 연결로부터 이들을 지나치게 신비화, 낭만화하지도 않으며, 자연과 모성, 여성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재앙, 급변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구조거리’라는 세계, 여성이 만들어내는 저항공간은 위협적 상황의 해결 주체는 아니다. ‘구조거리’가 공포, 위협, 체제의 혼동을 감지하며 소설 진행에 있어 주요한 모티프로 진행되는 것처럼, 소설의 페미니즘적 시각은 단순한 이분법적 체제의 정복을 통한 여성의 주체성 정복이 아니라 서구적 지배 모델에 문제제기를 하고, 틈을 내며 지속불가능성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4. 에코페미니즘 소설로서의 《Distancia de rescate》

초기 에코페미니즘에서 자연은 어머니 대지, 가이아, 집이라는 은유에 따라 인간에게 필요와 안정적 정체성의 토대를 제공해 주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자연과의 합일, 영성을 통한 자연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자연은 지나치게 신비화되고 낭만화되는 경향이 있다. 자연이 언제나 안정적이고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연 안에는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만이 아니라 인간이나 동물에게는 재앙이 되는 급변도 공존한다. 또한 어머니 지구로서 자연의 표상은 “이상적 여성에 대한 비

19) Sanchez, Ninfa(2020), Londono, Jorge(2020), “Lo familiar y lo femenino en la narrativa de Samanta Schweblin”, Cuadernos de Filosofía Latinoamericana,

현실적인 남성적 판타지에 근거한 낭만적 전통”( ‘Cahia Heller,1993; 황주영 2017)에서 유래한다. 이와 같은 자연의 이미지는 자연-인간 관계를 보호받는 여성으로서의 자연과 오염으로부터 이 여성을 구출하는 남성으로서의 인간관계로 설정할 뿐 아니라, 오염과 파괴의 원인으로 인간과 자연 사이에 적대만을 남겨놓는다. 이는 자연/문화의 이분법에서 우열관계를 역전시킬 뿐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웠던 자연-인간 관계에 대한 상상적 향수는 항상 이미 성장과 변화라는 미래로 향하는 자연의 시간을 과거에 가두어 놓는다.<sup>20)</sup>

위의 인용구는 초기의 에코페미니즘이 만들어냈던 담론적 한계를 지적한다. 황주영(2017)에 따르면, 체제에 배제되어 있어 익숙하지 않은 자연과 여성이라는 빈공간을 지나치게 신비화하고, 낭만화하는 것, 이로부터 현재의 오염된 자연을 묘사하는 데 있어 인간(man)에 의해 처녀성을 잃은 파괴된 여성의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 역시 지나치게 남성적인 시선이 개입된 결과다. 따라서, 『구조거리』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여성-자연의 연결고리를 ‘박해당한 여성의 이미지 ‘로부터 관련을 짓는 것도 일종의 억압적 해석일 수 있다. 그러나, 작가 사만타 슈웨블린은 자연과 여성을 모두 공포와 위협, 재앙의 배경 속에서 그려내며, 자연과 여성에 의해 지배당한 세계라는 이분법적 이미지가 아니라 기존의 문명에 의해 규정되는 자연과 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로써, 과거의 여성-자연이 부정성을 극복하고 있는 해당 소설은 필자의 시선에서 에코페미니즘 소설로서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한편, 앞서 카프카의 논의로부터 공포는 ‘혼종과 차이의 윤리학 ‘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소설은 구조거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공포를 경험하는 인간 스스로도 기존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구조거리 ‘라는 비가시적 세계로 인간 문명이 오염시킨 자연, 이로부터 만들어진 공포에 저항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즉, 피상적으로 자연과 초자연성이 위협하는 듯 보이는 소설의 풍경과 그 위협에 대처하는 듯 보이는 여성의 ‘구조거리 ‘는 결코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아만다-니나, 카를라-다비드의 가족적 연결에서 이들의 행위는 자연으로 하여금 오염된 별레를 생성하도록 한, 기존의 인간 문명에 저항, 균열을 내는 것으로 ‘구조거리 ‘는 앞서 말했던 체제에 대한 주변부의 저항공간이며, 이는 타자로서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윤리학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여성의 주체(agente)을 시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플럼우드(Plumwood, 1997; 황주영, 2017)는 “여성과 자연의 친밀성이 재생산 역할을 근거로한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자연의 친밀성에서 생태주의적이고 여성 해방적이며 동시에 반자본주의적인 저항과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자연/문화의 이원론에 의해 작동하고, 자연 지배가 둘 사이의 단절과 자연 비하에 의해 정당화된다면, 단절의 수준이 약한 곳은 단지 종속적인 열등함의 장소가 아니라 자연과의 연속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장소는 다름 아닌 『구조거리』의 세계를 통해 재현되고 있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여성을 자연으로부터 떼어내는 일이 아니라 남성적 문화를 자연에 다시 연결하는 일이다.” <sup>21)</sup>

20) 황주영(2016), 「페미니즘에서 자연의 위치들- 에코페미니즘과 그로츠의 조우 가능성 탐색」, 시대와 철학 제17권 1호(통권 74호), p308

21) 황주영(2016), 「페미니즘에서 자연의 위치들- 에코페미니즘과 그로츠의 조우 가능성 탐색」, 시대와 철학 제17권 1호(통권 74호), p307

## 5. 체제를 혼드는 자연과 여성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목축업 국가이자 농업 대국으로, 소가 사람보다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대두 생산량은 세계 3위에 해당하며, 광활한 초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Monsanto에 의해 유전자 변형 대두를 수입한 이후로, 현재까지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 90% 이상은 실험실에서 조작된 ‘유전자 변형’ 제품이며, 화학적으로 농약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조작된 것이 대부분이다.<sup>22)</sup> 이에 작가가 바라보는 실제 현실에서 아르헨티나는 인간에 의해 이미 균열이 발생하고 오염된 공간이자, 현재적 오염에도 노출되어 있는 공간으로 『구조거리』는 작가는 자신이 바라보는 그 현실을 그저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초자연적 문화와 감각, 그리고 여성의 시선을 통해 소설에 옮겨놓은 것임에 다를 아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그려내는 아르헨티나 시골 마을과 자연과 동식물, 자연은 다소 정치적이며, 여성 해방적인 측면이 존재하는데 그녀는 기존에 주변 환경(environment)에 불과했던 자연과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하면서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그려내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여성성과 모성을 이용하여 저항공간 ‘구조 거리’를 구성해내는 것도 독특한 시선이라 할 수 있는데, 그녀는 무너진 체제의 이분법을 이용해 여성성을 그려내고, 또다시 이 이분법을 부수어내며 일종의 해방공간을 형성해내고 있다. 특히, 소설은 현 “Things with a history” 세계에서 여성-자연을 생물학적 본질론으로 바라보는 오염된 자연/환경에 대한 ‘박해당한 여성-자연의 이미지’의 극복해내면서도, 서구식 남성 지배 모델에 있어 자연과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구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남미 에코페미니즘 소설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 참고문헌

Hoyos, Hector(2019), *Things with a history- Transcultural Materialism and the Literatures of Extraction in Contemporary Latin America*, ColumbiaUnivPr

Rama, Angel(1984), *Ciudad Letrada*, Arca

Rama, Angel(1982), *Transcuturación narrativa en América Latina*, Siglo XXI de España Editores, 2004

Doris, Sommer(2001), “For Love and Money: Of Potboilers and Precautions”,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pp380-391

Forttes, Catalina(2019), “El horror de perder la vida nueva: gótico, maternidad y transgénicos en Distancia de rescate de Samanta Schweblin”, REVISTA DE ESTUDOS LITERÁRIOS DA UEMS, pp147-162

Sanchez, Ninfa(2020), Londono, Jorge(2020), “Lo familiar y lo femenino en la narrativa de Samanta Schweblin”, Cuadernos de Filosofía Latinoamericana

로즈마리 통(T. Rosemary) 저; 이소영, 정정호, 강규한, 김경한 역, 『여성, 자연, 환경』, 한신문화사, 2000

사만타 슈웨블린 저; 조혜진 역, 『구조거리 Distancia de rescate』, 창비, 2021

팸 모리스 저;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 출판사, 1997

---

22) Forttes, Catalina(2019), “El horror de perder la vida nueva: gótico, maternidad y transgénicos en Distancia de rescate de Samanta Schweblin”, REVISTA DE ESTUDOS LITERÁRIOS DA UEMS, p149

프란츠 카프카 저; 이지영 역, 「가장의 근심」, 『변신, 프란츠 카프카 단편선』, 보성, 2010

전유정(2017), 「비인간적인 것의 정치윤리적 가능성」, 카프카연구 제38집, 한국카프카 학회, pp51-69

황주영(2016), 「페미니즘에서 자연의 위치들- 에코페미니즘과 그로츠의 조우 가능성 탐색」, 시대와 철학 제17권 1호(통권 74호), pp295-323

주제어: 서구식 근대체제, 이분법, 여성성, 구조거리, 에코페미니즘

발표자 성명: 김지선

발표자 이메일 : [Jiseonkim@khu.ac.kr](mailto:Jiseonkim@khu.ac.kr)

# 『경계의 미사』, 멕시코 카우보이의 이주민에 대한 위로와 이질적 도시 티후아나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석사1기  
조은지

## I. 서론

Tijuana는 미국 기업의 공장지대가 들어서 있으며, 미국 비즈니스 맨들에게 사업상 중요한 도시로서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Tijuana는 그랑고들의 피서지이자 그랑고들과 멕시코인들, 티후아네로들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들은 가격이 싼 Tijuana에서 휴가를 보내곤 한다. 그러나 Tijuana는 국경 문제로 인해 이주를 원하는 이들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Tijuana는 마약 밀수입을 위한 통로이자, 마약 밀매를 위한 카르텔의 알력 싸움이 일어나는 죽음의 공간이다. Tijuana만의 오묘한 특수성은 21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칸클리니가 티후아나를 혼종성의 도시라고 규정했을 때에도 그의 대립적인 요소들이 드러남과 동시에 혼합된 문화가 드러나는 특수성은 그 지역, 어느 시간대에도 존재했었다.

이 지역의 앞선 특수성은 루이스 움베르토 크로스웨이트(Luis Humberto Crothwaite)의 『경계의 미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 작품은 티후아나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겪는 일을 퍼포먼스적으로 표현해낸 작품이다. 그들의 희망을 표현함과 동시에 희망이 부딪히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미사의 형식을 이용해 나타냈다. 이 작품에서 가장 팔목할 만한 점은 두 가지의 시대적 담론을 동시에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가르시아 칸클리니(García Canclini)가 출판한 『혼종문화들: 모더니티에 들어가고 나오기 위한 전략들』(1988)의 주요 개념인 혼종성(hibridez)로 중요한 도시가 되었던 티후아나의 미국과 멕시코를 융합시킨 새로운 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미국적인 것”과 “멕시코적인 것”이 온전하게 섞일 수 없는 이질성(heterogeneidad)을 증명하며, 이러한 이질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즉, 이민자들에 대한 수용을 티후아나의 혼종성을 통해 보여주려 했던 과거의 시각이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결국 혼종되지 못한 티후아나에서 충돌하는 두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계급화되는지, 이런 계급화된 현실이 왜 생길 수 밖에 없는지에 관해 설명한다. 루이스 움베르토가 어떻게 이주민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보내는지, 이주민들은 왜 미국에 섞일 수 없는지에 대해 티후아나에 대한 정의, 이주자들의 현실, 이주민들을 위로하는 방식 그리고 이주민들의 정체성에서부터 오는 이질성까지 『경계의 미사』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 II. 티후아나를 머무르는 이주민의 현실

국경지대 티후아나는 미등록이주자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현실은 세 가지로 「Ⅲ. 강론」, 「Ⅳ. 보편지향기도」, 「Ⅷ. 성찬 전례」에서 이주과정의 현실을, 「Ⅸ. 주님의 기도」에서 이주민과 마약과 폭력을, 「Ⅶ. 사도신경」에서 이주 후의 현실이다. 작품에서 이주민들의 현실은 다소 무덤덤하게 쓰이며 심지어 유머러스하기도 하지만 유

머는 가볍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 자체가 살기 위해 목숨을 거는 다소 무거운 도전이기 때문이다.

## 1) 이주과정의 현실

「Ⅲ. 강론」은 이주 과정을 보여준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면서도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경계의 존재를 다룬다.

어릴 적에는 ‘경계’라고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었고, ‘선’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선은 여기서 저리로 저기서 이리로 건너기 위해 거기 있었습다.

이전 국경에 대한 개념이 강력하지 않을 당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규제는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다. 국경에 대한 개념은 1848년 과달루페-이달고 조약(Tratado of Guadalupe-Hidalgo)로 인해 멕시코의 영토였던 텍사스, 뉴 멕시코, 아리조나,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영토로 이양되면서 국경에 대한 개념은 강해진다.

처음에는 자연을 기준으로 국가가 나뉘었다. 그러나 이후 두 국가의 분리선은 자연구조물에서 인위적 구조물로 바뀌게 된다. 인조구조물 또한 변화를 거듭한다. 초반의 철망은 현재 “위압적인 장벽”이 되었다. 하나의 철망은 여러 개의 장벽들로 바뀌었으며 장벽 뒤에는 경비원, 헬리콥터, 밴, 레이더, 몽둥이와 권총이 미등록이주자들을 향해 있다. 미등록이주자가 장벽을 넘은 후 당하게 될 폭력성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드러난다. “저기서 이민국 관리들이 오고 있는데 심기가 불편해 보이니까요.”

「Ⅳ. 보편지향기도」는 미등록이주자들의 이주에 대한 정당성과 험난한 여정이 드러난다.

*Nos quitaron mucha tierra, luego nos echaron de esa tierra. Quisimos regresar y todavía lo estamos haciendo. Nos golpean, nos dicen puercos mexicanos, váyanse de aquí. Pero seguimos cruzando-Castillo de Chapultepec en la Ciudad de México.<sup>1)</sup>*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으로 영토가 이양되면서 원래 그 곳에서 거주하던 멕시코인은 한 순간에 멕시코 미국인(Mexican-American)이 되었다. ‘자고 나니 국경을 넘어 미국인이 된 것이 아니라, 국경이 우리를 넘어 미국인이 되었다.’ 심지어 멕시코 영토 반 이상이 상실되면서 그들 중 일부는 옛 보금자리를 뒤로 한 채 미국 영토 밖으로 나갔다. 19세기에 일어난 대륙상실의 트라우마는 현재까지 이주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작가는 이주민들의 험난한 여정을 기록한다. 그들의 시련은 단순히 장벽 뒤를 지키는 경비원만은 아니다. “사막으로 건너자고,/ 산으로 건너자고,/ 자연이 우리의 길을 막을 거라고/ 그들이 말한 곳으로 건너왔고/ 아무도 거리를 건너지 않아,/ 아무도 감히 그러지 못하지,/ 그렇게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건넵니다.”<sup>2)</sup> 국경을 넘기 위한 길의 거친 환경은 이주민들 앞에 놓인 또 다른 어려움이다. 그들은 이주하기 위해 사막뿐만 아니라 눈길을, 폭염 속을 걷는다. 그들은 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

1) Núria Vilanova, Otras Performances: La Frontera de Crosthwaite En Contraste, Revista Iberoamericana Vol.34, 2018, p.1055

2) 루이스 움베르토 크로스웨이트(Luis Humberto Crothwaite), 『경계의 미사』, 지구적 세계문학, 2015, 5, p.95

「Ⅷ. 성찬 전례」는 이주 과정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예수(코요테)를 따르는 신자들이 어떻게 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지를 그린다. 루이스 움베르토는 헬리콥터와 경비원으로부터 도망친 미등록 이민자들의 모습과 실패한 예수가 죽은 모습 그리고 예수가 죽은 후의 모습까지 그리며 여정의 긴박성을 드러낸다. 실제로 2018년에 1000명 중 250명이 경계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경계지 넘어의 세상으로의 여정은 더 힘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2) 이주민과 마약과 폭력

죄없는 이들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미국인들이 행복한 소비를 위한 마약을 팔러 오는 이들의 마약거래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미국에서 흡입하고 피워대는 모든 코카인과 마리화나가 우리의 도시를 지나며, 피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피우는 건 좋다 침시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경작하면 안 된답니까?

경계에서는 경찰들이 죽습니다. 경계에서는 기자들이 죽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죽습니다. 강과, 사막과, 티후아나에서 마타모로스까지, 산이시드로(San Ysidro)에서 브라운스빌까지 거대한 경계의 도시들에서 시체들이 쌓여갑니다. 폭력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꿈 구석구석까지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던 시절을, 아무 위협없이 밤에 외출해 거리를 돌아다니고, 파티를 벌이고, 즐기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하고, 예전엔 그랬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제 자식들이 제 말을 믿을까 자문해봅니다.

미국분들이여, 내 나라를 돌려주십시오, 제발! 맥들의 풀과 가루는 직접 경작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해약을 끼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해보십시오! 폭력이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Ⅸ. 주님의 기도」 p.106-107

경계는 마약거래 유통지로 좋은 조건을 지닌다. 마리화나 공급지 멕시코 또는 코카인 공급지 콜롬비아에서부터 출발하여 경계를 넘어 소비자들이 사는 미국으로 마약은 이동한다. 마약은 많은 이들의 피를 흡수하며 유통된다. 2000년 이후 경찰조직과 마약카르텔은 정치권력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서 현재 티후아나와 같은 국경지대는 무장지대로 변모한다. 경찰과 마약카르텔의 물리적 전쟁은 군사의 개입과 동시에 죽음의 무대로 떠오른다. ‘마약과의 전쟁’은 경찰과 군인의 죽음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주민, 이주민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다. 또한, 기자들도 죽는다. 2019년에 나온 드라마 「티후아나」<sup>3)</sup>에서 알 수 있듯이 국경지대에서 일어나는 마약조직에 의한 살인의 대상은 기자들과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에게로 향한다. 이를 통해 기자들이 마약조직과 정치계의 유착관계 또는 마약운반책으로 변모한 코요테들과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민들의 죽음까지 밝히는 것, 즉 언론의 일은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드라마의 현실 각색을 고려하더라도, 『경계의 미사』에서 언급한 기자의 죽음과 주민들의 죽음은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이다.

마약은 폭력 또는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르코월드:중독된 도시」<sup>4)</sup>에서도 볼 수 있다. 마약 운반책과 마약밀매업자, 마약 제조사와의 인터뷰는 그들이 죽음을 각오한 마약 밀매를 한다. 그들의 생존 문제, 돈 문제와 직결되기에 그들은 마약 밀매에 그들의 목숨을 다한다. 그들은 그들 목숨만 바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을 막는 그 모두에게 총을 겨눌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

3) 티후아나, 다니엘 포사다, 사이레 페레르, Netflix, 2019

4) 나르코월드:중독된 도시, Netflix, 2019

약의 폭력은 이들 뿐만 아니라, 마약과 관련없는 미등록이주자에게로 향하기도 한다. 그들이 이주하는 길은 미등록 이주자들이 지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잔혹한 상황은 미국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마약 최대 소비지이며 미국과 연결된 멕시코의 국경지대가 마약운반을 위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멕시코가 마약과 마약밀매조직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 것은 마약 최대 소비지로서의 미국때문이다. 마약금지정책 이후 마약사범이 멕시코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로 이동하면서 미국으로 마약 운반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으로 멕시코의 국경지대를 이용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정책을 멕시코에 강요한다. 김은중(2012)은 미국의 정책을 이렇게 요약한다: "우리의 경제적 지원은 멕시코 군경이 멕시코 국민을 죽이는 것과 관계가 없고, 이러한 대량 학살이 마약의 유입을 막거나 마약 가격의 인하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멕시코에 경제적, 정치적 압력과 함께 그들의 정책에 협조하라고 강요한다. 또한 미국은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수혜국이다. 마약 사범의 돈세탁을 위한 밀약으로 인해 미국 은행가는 부유해지고 가난한 농민과 중소 지주를 내쫓아 풍부한 자본을 가질 수 있다. 미국의 정책은 정치적 반대파, 이민자, 원주민과 같은 방해요인도 제거하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군수업자에게 이윤이 많다.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많은 폭력은 무장한 채로 진행된다.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는 마약밀매조직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며 무기를 미국의 군수업자에게서 사 온다. 결국, 멕시코 국경지대의 마약 전쟁에 무관심한 수혜국인 미국때문에 죽는 많은 이들을 크로스웨이트는 작품을 통해 드러낸다.

### 3) 이주 후의 현실

「VII. 사도신경」은 이주 이후의 현실을 그린다. 멕시코를 지나치는 이주민 카라반은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간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본국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거로 생각한다. 미국행이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루이스 움베르토는 그들에게 현실을 보여준다.

*저기서는 가장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다고 사람을 죽인다고들 합니다.*

*저기에는 사냥꾼들이, 마치 우리가 자기네 가축을 노리는 코요테인 것 마냥 경계를 지키는 총잡이 농장주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저기서는 세상의 악이 우리를 노린다고들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가장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다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옛날부터 이어져 온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것임을 암시한다. 이때, 흑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들 중 하나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건너오는 흑인이다. 미국으로 이주하길 원하는 이주자들과 미등록이주자들은 유럽 혈통의 백인, 인디헤나(Indigena), 아프리카 혈통의 흑인, 메스티소(Mestizo)까지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인이어서 미국에 가고 싶다가나 흑인이어서 다른 대륙에 가려하는 것이 아닌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는 어떤 이들이든 미국으로 향한다. 그렇기에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라틴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이주민의 생명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의 주류 인종과 다른 이질적 존재들이 위협받을 가능성까지

---

5) 김은중, 박애주의자의 얼굴을 한 식인귀: 멕시코의 마약 전쟁, 라틴아메리카이슈, 4, 2012, p.47-72

도 제기된다.

이주민들을 자신의 것을 빼앗는 코요테처럼 여기는 이유도 이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다. 주로 미국에서 히스패닉은 경제적 하층민 계층에 분포되어 있다. 그들의 빈곤은 세대를 전승해왔으며 그로 인한 교육 혜택에서도 차이가 있어왔다. 미국의 히스패닉이 차별적 위치에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약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그들이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100년과 관련있다. 본격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이주가 활성화된 시기는 1965년 『이민법』이 성립되었을 때이지만 이민의 활성화가 시작된 시기는 미국에서 단순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국제 노동 이주 제도 브라세로(Bracer) 프로그램으로 인해서이다. 단순노동자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브라세로로 인해 들어온 단순노동자 계층의 멕시코 이주민들이 쓰는 스페인어는 미국에서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쓰는 언어로 인식되었으며 그들의 언어는 ‘빈곤’의 언어로 분류되었다. 그렇기에 스페인어를 쓰는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미국에서 미국의 자본을 빼앗을 빈곤한 코요테로 정의되었다.

경제적 하층민의 비율이 높은 미국의 히스패닉은 살기 위해 악을 저지르기도 악에 쉽게 노출되며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주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마약, 밀매, 매춘에 빠지기도 하고 이를 방지할만한 적당한 환경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합법적 이주민의 지위를 얻었을 때조차도 그들의 인간적 권리 보장되지 않았다. 미국의 국경지대, 콜로니아(Colonia)에는 많은 주민이 멕시코인 또는 라틴아메리카인이다. 그 지역 사람들의 대부분인 합법적 거주민이고 대략 15% 정도만이 미등록자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도시는 공공 의료서비스의 부재, 교육 시설 부재, 불완전한 상하수도로 인해 그들의 인권은 침해받고 있다. 그들은 악에 노출되기도 악의 공간에 있기도 하다.

*사람들이 제게 경계는 가족들을 가르기 위해 있는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모들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살았고, 반면 엄마와 저는 멕시코에서 살았습니다. - 「Ⅲ. 강론」, p.92*

그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자들의 경우, 트럼프 정부 이후부터 이민에 대한 무관용 정책으로 인해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이 강화되었다. 그와 동시에 가족 분리와 생명권까지 위협받는다. 다큐멘터리 「이민자의 나라」는 공중보건법 『타이틀 42』로 인해 추방당하는 가족들로 인해 홀로 남겨지는 아이들을 보여주기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지내는 청소년의 모습까지 보여준다. 심지어 가족과 분리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수용시설에서 학대의혹<sup>6)</sup>까지도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드러난다. 또 주로 미국으로의 이주는 그들의 신변, 목숨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 이들은 위험한 신세가 되었다. 마약과의 전쟁 중 미국 군을 도와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정보를 넘겨준 경찰이 보복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느껴 미국으로 온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미등록 이주자로 규정한 채 그의 난민 신청을 기각시켰다. 그의 목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의 고국으로의 추방 명령은 그에게 잔혹한 결정이었다. 악은 이들을 노린다. 하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 여정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

6) 노재현, 미국행 밀입국 대란 속 미성년자 수용시설서 학대 의혹, 연합뉴스, 2021.04.08.

### Ⅲ. 이주민에 대한 위로: 문화 혼종의 노래

움베르토는 작품을 통해 악에 노출된 이들을 위해 문화적 혼종성의 방식으로 위로를 한다. 그는 노래를 통해 이들을 위로하며 노래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밝힌다. 더 나아가 그가 하는 노래는 단순히 멕시코의 노래가 아닌, 경계지에서 볼 수 있는 멕시코 북부와 미국 남부에서 융합된 노래로 이주민을 다독인다.

#### 1. 노래의 치유와 위로

「복음」에서 노래는 멕시코 내에서 마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왔는가에 대해 시사한다. *거친 자들 중 가장 거친 자들에게* 호세 엘프레도는 노래를 통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노래를 통해 울지 않는 마초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호세 엘프레도의 노래는 마초의 연약함을 쓰다듬으며 멕시코 땅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했다. 마리아치의 노래는 *불행한 이에게 평화를, 고통받는 이에게 희망을* 주는 멜로디이다. 이 멜로디는 마초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자 감성적인 곁을 찾아낼 방법이다. 즉, 노래는 카우보이들이 오기 전에 마초들을 위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주민들도 위로할 수 있을 것을 장담하고 고통받는 이주민들은 *희망을 주는 멜로디*에 위로 받을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

#### 2. 문화 혼종의 노래: 노르테노(Norteño) 음악

「말씀 전례: 제1독서」는 초반에 노래로 마초들을 위로한 멕시코의 치유자 호세 엘프레도가 나온다. 그가 나온 이유는 티후아나에서 이주민들을 어떻게 치유할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노래로 마초들을 위로했듯이, 움베르토는 노래로 이주민들을 위로하려 한다. 하지만 마초들을 위로한 노래가 아닌 티후아나의 특성에 맞는 노래로 말이다. 티후아나는 멕시코의 북쪽, 미국의 남쪽에 있는 지리적으로 중간지대이다. 티후아나의 지리적 특성과 같이 티후아나의 노래는 멕시코와 미국의 것이 서로 맞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텍사스에서부터 온 아코디언과 멕시코의 바호 섹스토를 든 노르테노 음악이다. 그들의 차림새는 미국 카우보이와 같다. 하지만 밴드 이름은 멕시코인이다. 그들의 출신지를 붙이기도 하고(티후아나의 투칸, 리나레스의 하사관, 누에보레온의 침입자들), 아무 이름에 북부라는 말을 붙이거나(북부의 호랑이, 북부의 용자들, 북부의 허리케인), 또는 카톨릭 세례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카를로스와호세, 루이스와 홀리안, 미겔과 미겔). 그는 노르테노 음악에 대한 말한다.

*우리 엄마, 아우로리타의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는 그 노래.*

*멀리서 내 귀환을 간절히 바라는 가족과 나를 만나게 해주는 또 다른 노래.*

...(중략)...

*경계의 음악인 멕시코 카우보이의 손에서, 그 노래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남정네들과 여인네들의 심장에서 자라나는 구멍을 잠시 채워줄 것입니다.*

움베르토는 멕시코 카우보이의 명맥을 이어나가려 한다. 「회개」에서 그는 60년대 유행했

던 로큰롤 신봉자였다. 그는 찢어진 바지, 모리슨 티를 입었고 머리는 길었으며 목욕을 하지 않고 이도 안 닦았다.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처럼. 그는 호세 엘프레도의 목소리를 통해 경계의 음악을 접한다. 움베르토는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멕시코 카우보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는 움베르토가 결국 멕시코의 것과 미국의 것이 혼종된 음악이 이주민들을 다독여주며 경계의 노래의 치유와 위로의 힘을 전파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는 티후아나에 머물다 가는 이들, 미국에 가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그들의 힘들었던 여정, 그들의 희생에 대해 인정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을 문화가 혼종된 노래에서 찾는다. 혼종된 음악, 노르테노 음악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위해 노르테노 음악이 어떻게 문화적 혼종성을 지닌다. 특히 노르테노 음악이 그러하다는 것은 Los Tigres del Norte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노르테노 밴드는 이야기, 삶, 사랑 그리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생존하려는 노력에 대해 노래한다. 그들은 "Willie Nelson과 Rolling Stones"의 결합체 즉, 노동계층에게 인기 많았던 대중스타이다. 이들은 멕시코인들과 멕시코아메리카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코리도(Corrido)를 통해 멕시코 경계지의 이야기를 했다. Narcocorridos, 마약 밀수업자들에 관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경계지에서 볼 수 있는 마약밀매와 관련된 나르코칸시온(Narcocanción), 멕시코 정부의 부패를 비판하던 코리도폴리티코(Corrido Político), 특히 그들의 앨범 헤페 데 헤페스(Jefe de Jefes)까지 Los Tigres del Norte는 소작농의 삶, 성공한 이민자, 탐욕스러운 정치가, 마약세계의 사람들 모두를 노래했다. 물론 카우보이 복장을 입고 말이다. 노르테노 음악을 통해 루이스 움베르토는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형성으로부터 발생한 문화적 요소가 접촉하고 결합"하는 것, 즉 두 국가의 문화적 혼종성을 통해 이주민을 위로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IV. 미국의 히스패닉과 이주민의 정체성

앞서 언급했듯이 움베르토는 티후아나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주민과 미국인 사이의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이주민과 미국인 사이의 이질성은 역사적 사건과 이주민이 지닌 하위주체성을 통해 알 수 있다.

*저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이등분되어 있고 - 「I. 고백의 기도」, p.87-88*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장벽은 가르지 않았습시다. 반대로, 경계를 건너도 이모들은 계속 스페인어로 말하고, 계속 멕시코 음악을 듣고, 그녀들에게서만 봐온 파티의 기분과 정열로 계속 즐겼습시다. - 「III. 강론」, p.92*

*경계: 갈라짐, 보이지 않는 장벽, 분할선, 라틴아메리카의 궁둥이이자 심장. - 「VIII. 사도신경」, p.100*

세뮤얼 헌팅턴에 따르면 멕시코인들의 이주는 미국이 1830년에서 1840년대에 무력으로 빼앗은 지역에 대한 인구적 레콩키스타(Reconquista)가 되어<sup>7)</sup> 멕시코인들이 미국에서 노스탈지어를 느낀다. 이들은 미국인으로 귀화하는 비율이 최하위에 있으며 그들은 "기억된 집단"이다. 즉,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으로 인한 상실의 역사를 기억하는 집단이다. 미국으로 이주한 멕시코인들은 미국에 섞이지 않았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멕시코를 기반으로 한다. 멕시

7) 로버트 D. 카플란(Robert D. Kaplan), 지리의 복수, 미지북스, 2017, p.484

간 이주민의 정체성은 「Ⅲ. 강론」에서도 비슷하게 서술된다.

그들의 정체성은 미국의 치카니스모(Chicanismo)에서도 드러난다. 치카노(Chicano)는 멕시코계 미국인으로서 라티노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치카노 운동 즉, 치카니스모를 펼쳤다. 이 운동을 통해 멕시코의 정체성은 물론, 더 나아가 히스패닉 정체성을 미국 사회에 드러냈으며 미국 대학 내 외국어 필수과목으로 스페인어를 채택할 것을 그리고 스페인어로 된 강의 개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남부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는 전국적인 스페인어로 된 방송 "Televisa"와 일간지 La Opinión이 있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새로운 히스패닉들의 이민과 함께 여전히 지속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으로 이주한 히스패닉계가 다른 미국 시민의 인종계열보다 그들만의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히스패닉계, 특히 이주민들이 미국인과 이질성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본질적 이질성은 하위주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은 지리적으로 수직성을 가지고 있듯이 두 국가의 관계도 수직성을 가지고 있다. 히스패닉과 미국으로 간 이주민의 정체성이 라틴아메리카에 있다는 점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미국 내에서도 주류 백인 미국인들과 히스패닉계 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이주민 간의 계급이 존재한다. 줄곧 히스패닉 이주민의 위치는 하위계층에 속했다. 이들은 불가리아 공산당 대표인 게오르기 디미트로프(Georgi Dimitrov)에 따라 미국의 주류인 백인들과는 다른 정체성,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적 행위자로서 구성된 "이질적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8)</sup> 이 이질성은 피지배계층 또는 민중공동체에게 내재적인 것이다. 그들은 사회의 경계에, 국가의 가장자리에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히스패닉들은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지에 많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하위주체성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다. 과달루페-이달고 조약 체결 후 멕시코 아메리칸들은 차별을 받았다. 원래 멕시코 아메리칸은 지역의 지배자였다. 그러나 조약이 체결되고 철도가 생기면서 앵글로(Anglo)들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차별받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실효권을 잃었다. 히스패닉에 대한 차별은 20세기 초 멕시코 노동자들을 치카노라고 부르면서 지속되었으며 여전히 미국에서 그들의 위치는 하위계층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지리적, 정치적 수직관계는 두 국가간의 이질성을 강화하며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은 역사적으로 하위주체적으로 "이질적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질적 집단은 미국 내에서도 과거부터 그들의 정체성과 네트워크가 뚜렷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을 미국에서가 아닌,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에서 찾는다.

## V. 결론

루이스 움베르토는 『경계의 미사』를 통해 이주민의 삶을 세상에 알리며, 그들을 위로한다. 멕시코 카우보이를 자처하는 그는 텍스트를 통해 이주민들의 삶, 이주 과정, 그 이후의 삶, 심지어 나르코스까지 노래한다. 시로 노래를 하기도 하고, 미사로 노래한다. 마치 Los Tigres del Norte가 헤페 데 헤페스에서 암울하고 우울한 경계지의 삶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것처럼. 그는 미사형식을 패러디하여 그만의 노래로 이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만의 퍼포먼스로, 그의 스타일로 텍스트에 옷을 입혀 열악한 삶을 가볍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

---

8) 존 베벌리(John Beverley), 하위주체성과 재현, 그린비, 2013, p.201

의 삶에 대해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주민들을 애도하고, 진심으로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을 위로한다. 미국으로 가는 이유도, 미국에 가야 하는 사정도 모두 이해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과 미국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이야기한다. Núria Vilanova(2018)는 크로스웨이트가 혼종된 것에 대한 무언의 거절이 있다고 한다. 그러한 거절은 위로의 방식인 노르테노 음악에서조차 이질성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멕시코의 것과 미국의 것을 섞은 형태로 제시된 노르테노 음악은 차림새만 미국의 것일 뿐 음악은 멕시코 전통 발라드 코리도이다. 노르테노 음악의 노르테노는 북부를 의미하며 멕시코 북부음악을 이야기한다. 이미 음악의 정체성부터 멕시코의 것이기에 노르테노 음악은 코리도의 형식을 지니며 미국과 멕시코의 문화가 융합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혼종성을 거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내에서 멕시칸 카우보이, 미국 차림새를 한 멕시코인이 나온 티후아나를 양국의 문화가 섞여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작가가 완전히 혼종성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멕시코의 정체성이 짙지만 노르테노 음악은 티후아나가 혼종성의 도시라서 나올 수 있는 문화적 혼종이었다. 또한 작가가 멕시코 지역인 티후아나의 미국의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은 미국에서도 멕시코의 문화와 이민자들을 관용적으로 포용해주길 바라는 소망을 암시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본다.

『경계의 미사』는 두 국가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미국과 멕시코가 근본적으로 이질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 사회 내에서 이질성을 느끼고 있을 이들, 미국으로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 경계지에 있는 이들 모두에게 루이스 움베르토는 음악을 통해 그리고 음악성을 넣은 그의 텍스트를 통해 위로의 말을 전하려 한다.

**Keyword:** 티후아나, 이주민, 문화적 혼종성, 노르테노 음악, 이질성,

## 참고문헌

- 루이스 움베르토 크로스웨이트(Luis Humberto Crothwaite), 『경계의 미사』, 지구적 세계문학, 2015, p.84-114
- 존 베벌리(John Beverley), 『하위주체성과 재현』, 그린비, 2013, p.194-277
- 로버트 D. 카플란(Robert D. Kaplan), 『지리의 복수』, 미지북스, 2017, p.59-79, p.149-168, p.459-498
- 김연진, 미국의 인구조사, 통계정책지침15, 그리고 ‘히스패닉/라티노’의 탄생, 미국학논집, 48, 2016, p.75-103
- 임상래,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과 이민: 멕시코아메리카와 치카노, 라틴아메리카연구, 16, 2003, p.199-233
- 전기순, 미국 내 히스패닉 인종의 사회적 현황과 문화적 정체성, 라틴아메리카연구, 16, 2003, p.259-294
- 림수진, 이주자의 도시 티후아나: 희망의 관문에서 절망의 대합실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p.51-53
- 림수진, 멕시코 두 국경 사이의 이주자들,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p.58-59
- 김미경, 세계화 시대의 미국-멕시코 국경: 삶과 죽음의 공간, 인문연구, 73, 2015, p.97-136
- 김은중, 박애주의자의 얼굴을 한 식인귀: 멕시코의 마약 전쟁, 라틴아메리카이슈, 4, p.47-72

Josh Kun and Fiamma Montezemolo, The Factory of Dreams, Tijuana Dreaming: Life and Art at the Global Border, p.1-19

Heriberto Yépez, Tijuanaologies: An Urban Essay, The Factory of Dreams, Tijuana Dreaming: Life and Art at the Global Border, p.47-59

Elijah Wald, Narcocorrido, Rayo, 2001, p.1-7

Núria Vilanova, Otras Performances: La Frontera de Crosthwaite En Contraste, Revista Iberoamericana Vol.34, 2018, p.1049-1061

정은혜, 트럼프 육하더니 더했다…슬쩍 국경 닫고 역풍 맞은 바이든, 중앙일보, 2021년 05월 09일  
노재현, 미국행 밀입국 대란 속 미성년자 수용시설서 학대 의혹, 연합뉴스, 2021.04.08.

